

하루만에 읽는 구약개론

기독교복음사역원

메시지사역장 손 영

1. 총론, 성경
2. 창세기
3. 출애굽기
4. 레위기
5. 민수기
6. 신명기
7. 여호수아서
8. 사사기
9. 룻기
10. 사무엘상서
11. 사무엘하서
12. 열왕기상서
13. 열왕기하서
14. 역대상서
15. 역대하서
16. 에스라
17. 느헤미야
18. 에스더서
19. 욥기
20. 시편
21. 잠언
22. 전도서
23. 아가서
24. 이사야서
25. 예레미야서
26. 예레미야 애가
27. 에스겔
28. 다니엘
29. 호세아서

- 30. 요엘
- 31. 아모스
- 32. 오바다
- 33. 요나
- 34. 미가
- 35. 나훔
- 36. 하박국
- 37. 스바냐
- 38. 학개
- 39. 스가랴
- 40. 말라기

1. 총론, 성경전서(Bible, τó βιβλίον)

성경(Bible)은 기독교의 최고경전을 통칭하는 것으로 영문명 "Bible"은 고대 파피루스 무역의 본거지인 비블로스지역에서 유래하던 "그 책"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토비블리온"(βιβλίον)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그 책"이란 "THE BOOK"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직 이것 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인 "타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는 B.C 1500~400년에 이르는 1,10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바빌로니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의 지역에서 각각 기록된 경전들을 한권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최초에는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A.D 90년경,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 "요하난벤 자카이"가 "얌니아 회의"(Council of Jamnia)에서 유대교인들이 완결하였다는 전승이 정설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와는 달리 15권이 추가된 39권을 정설로 받아 들였으며, 이것이 A.D 382년 로마공의회를 거치는 등 수백년에 걸친 학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정되어 갔습니다 로마카톨릭은 로마공의회에서 구약44권, 신약27권 등 71권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예레미야 애가와 바룩서가 별도 문헌으로 독립됨으로서 구약46권, 신약 27권 등 73권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문헌들은 성경외에 외경(Apocrypho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은 "숨겨진", "감춰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이단적 내용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것, 거짓된 것 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BC. 2세기경에 시작하여 AD. 1세기에 확산되어 있던 문헌 중 경전에서 제외된 모든 서적들을 위경(Apocrypha)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구약위경으로는 12성조의 유훈, 에녹서, 유빌레움, 므낫세의 기도, 제3에스라서, 제3마카베오서 등이 있고, 신약위경으로는 에피온인, 히브리인, 이집트인, 니고데모, 야고보, 베드로, 다양한 사도행전, 서간, 계시록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성경 66권은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종교의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간의 적대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특유의 신화가 그리스 신화와 유사점을 가지면서 종교적 행태로 내려왔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지창조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

는 수많은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였고 하나님이 왜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오직 백성들을 위한 사랑과 은혜일 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도 기록을 읽어본 사람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속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내용들과 비교하여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부터 눈을 떼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된 역사에 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지 그 부모의 부모들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이야기가 500년 세월도 흐르기 전에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바알, 우상, 태양신, 달의 신, 급기야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까지 우상을 숭배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군가로 부터 끊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의해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적으로도 빠르게 확산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악에 까지 도달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거나, 또는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등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흩어버리거나 불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행악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찾으셨고 그 소수의 백성을 위해서 다수의 행악자들을 그대로 살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무지와 악행으로 이어졌고 국가와 개인의 욕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자가 나타나도 그 아들이 그것을 승계하지 않고, 그 손자가 승계한 하나님을 그의 손손자가 다시 거부하는 되물림이 역사속에서 재현되고 반복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지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리면 그만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갈아엎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의 한 몸에 다 담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세워 새로운 신의 통치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하나님을 이야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했고 독생성자 예수님의 죽음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보혜사를 이야기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속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흥미로운것은 구약시대 그토록 하나님을 쫓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강론하는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강론하고, 꿈에서조차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박는 최일선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복음과 재림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전하였던 유대인들을 잊지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무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 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후대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복음, 이것이 성경입니다

(1) 구약성경(הַנְּשִׁיָּה תִּירְבָּה)

구약성경(הַנְּשִׁיָּה תִּירְבָּה)(라틴어,Vetus Testamentum,영어,Old Testament)은 유대교 성경(Hebrew Bible)인 "타나크"(תנ"ך)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382년 로마 공의회에서 새롭게 구성한 경전들을 "신약"(New Testament)이라는 명칭으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함으로써 그 이전의 경전은 자동적으로 "구약"(Old Testament)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은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히브리성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0년에 걸쳐서 30명 정도의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전승되어져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① 유대교적 관점에서의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나크"(TANA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나크는 B.C 1500~400년경 유대민족의 구전적 전승이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그로부터 100년 이상은 경과한 시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토라"(תּוֹרָה)로 알려진 "모세오경"(הַשְּׁמַחַת)은 유대왕국 후반에서 바벨론 유수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성문서"를

의미하는 "케투빔"(Ketubim, מִכְתָּבִים)과 "예언서 또는 선지서" 로 알려진 "느비임"(Nevi'im)은 바벨론 유수기에서 예루살렘 귀환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의 퍼즐들은 A.D 90년경, 기독교를 이단으로 축출하기 위해 소집한 얀니야 회의에서 24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은 주로 전통적인 증언에 의존해 왔습니다. 당시 여러 문헌들이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전승되었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일부의 기록들은 채색되었으며,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전통을 계승하였던 유대인들은 신학적 우월성을 가지며,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사용하던 그리스어 번역 70인역은 배척을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의 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안과 힘을 찾아내고 인쇄술이 발명될 때까지 2천년 이상을 한 글자, 한 구절도 흠어지거나 오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해 내려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그 유래가 없는 것이었고,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이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삶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구약성경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의 경전인 "타나크"를 "구약"(Old Testamen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382년, 로마에서 개최된 공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몇권의 경전들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New Testament)으로 결정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종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독교는 그리스어 문헌인 70인역을 기독교 경전으로 사용하면서 히브리어 경전을 사용하던 유대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성경의 개념이 유대교에 비해 상당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90년에 개최된 얀니야 회의에서 히브리어 원문성경과 내용이 다른 70인역에 대하여 강도높은 비난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세기 이후 히브리어 전문가인 멜리투스에 의해 기독교안에서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고, 70인역의 경전성은 4세기에 이르기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4세기 로마제국이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갈등은 증폭되었고, 서방교회가 70인역을 옹호하자 동방교회는 유대교적 입장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대의 주장을 하는 정치적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가종교로 공식 승인되면서 신약성경을 포함한 경전 확립을 위한 회의가 거듭되었지만 양측의

대립의 접점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와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은 히브리어 경전본문과 그 우월성을 주장하며 70인역을 "아포크리파"(외경, 外經, Apocrypha)로 분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의 지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하는 서방교회학자들은 그들과 분리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70인역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구약성경을 확정지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인 마틴루터에 의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 대한 논쟁은 재점화되었습니다. 칼빈도 397년 카르타고회의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구약성경에 대한 유대교의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정경에 대한 도전적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외경에 대해서는 제2경전이라는 명칭으로 정당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신구약성경에 대한 갈등은 첨예한 대립속에 100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결국 로마카톨릭과 분리된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유대교로 부터 독립한 이래, 15세기, 로마카톨릭으로 부터 또 다시 독립하는 재탄생의 예고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카톨릭의 외경을 경전에서 모두 부인하고 유대교의 타나크 24권을 재분류하여 39권의 독자적인 구약성경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안에서도 의견은 또 다시 갈리었고, 루터교와 성공회는 외경을 신앙에 유익한 문서로 편입하였고, 성공회는 준정경으로 인정하여 봉독하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반면, 칼빈주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주의자들은 외경을 교회 내 봉독 금지 조치하는 등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2) 신약성경(新約聖經, Καινή Διαθήκη)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 New Testament)은 구약성경과 대비하여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4대 복음서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제자들의 서신과 예언서 등 27권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거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독교사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2세기 중엽, 영지주의자인 마르시온(Marcion, 85~160년)의 등장으로 초대교회의 정경 확립과 교리체제 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초대교회의 경전을 부인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서와 함께 다양한 바울서신들을 하나로 하여 새로운 경전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사회의 정체성 확립의 시급성이 요구되었고, 마르

시온의 범주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이단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내부의 이단세력들의 발흥을 규제하고 보편교회로서의 직제를 구성하면서 4대복음서의 권위를 다른 성경과 비교하여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교회 국교로 공인된 후 기독교의 교세는 지역적으로 내용적으로 확장을 가속화하여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전이 시급하게 확정됨으로서 내외에서 발현하는 이단세력의 등장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마카톨릭교회는 정경에 관한 4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들을 중심으로 정경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① 사도로 인정되는 제자가 직접 기록하였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기록한 문헌
- ②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다고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문헌
- ③ 다른 문헌들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문헌
- ④ 믿음과 직제가 통합된 보편교회(Catholic Church)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헌

로마카톨릭교회의 4대기준을 중심으로 유세비우스는 3가지 정경 분류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 ① 호모루구메나(경전성에 적합한 문서) : 4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1서
- ② 안티레고메나(경전성에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문서) : 베드로후서, 요한2~3서, 유다서, 야고보서
- ③ 노트(경전성에 부적합하나 인지도가 높은 문서) : 베드로묵시록, 요한묵시록, 디다케, 바나바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예루살렘의 주교 키릴루스는 호모루구메나와 안티레고메나의 합본호로서 26권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신약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27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382년 로마 공의회에서 확정되었고,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성경 목록과 함께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로마카톨릭교회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였고 구약성경의 아포크리파와 신약성경의 안티레고메나를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정경논란은 692년 트룰란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 로마카톨릭교회의 정경을 인정함으로서 모든 사태는 종결되었습니다. 9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마틴루터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공의회결정을 번복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과 구성들은 A.D. 50~150년경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시점으로 성립된 것들이었습니다.

이후의 시간들은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보다는 어느 것을 정경으로 포함시키고 어느 것을 제외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로 인한 신중한 접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의지와 지혜로서 과연 무엇을 분별하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고민들의 흔적들이 역사의 자취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들의 불가피성은 동시대로 부터 발현한 이단과 이교들 때문이었고, 후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시점에서 기억조차 희미해져 버린다면 이 중요한 기록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신화로 남아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혹독한 시련과 핍박속에서도 이러한 일치된 작업을 중단하거나 지지부진하지 않은채 일관성 있게 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구체적인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성경의 장절(성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남)

1. 구약성경 : 39권, 920장, 23,145절, 352,319단어, 1,006,953글자
2. 신약성경 : 27권, 260장, 7,958절, 110,237단어, 315,579글자

(3) 구약성경의 분류와 각권의 주제들

I. 율법서 : 모세오경 5권

- ① 창세기 : 창조와 역사, 구원의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1:1,12:1~3)
- ㉮ 장절 : 50장, 1533절, ㉮ 신약성경인용 : 260회, ㉮ 성경연대 : BC. ?~1805년
- ② 출애굽기 :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19:4~6)(십계명)
- ㉮ 장절 : 40장, 1213절, ㉮ 신약성경인용 : 250회, ㉮ 성경연대 : BC. 1876~1446년
- ③ 레위기 :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16:9)
- ㉮ 장절 : 27장, 859절, ㉮ 신약성경인용 : 120회, ㉮ 성경연대 : BC. 1446년
- ④ 민수기 :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9:17)
- ㉮ 장절 : 36장, 1288절, ㉮ 신약성경인용 : 100회, ㉮ 성경연대 : BC. 1445~1407년
- ⑤ 신명기 : 언약갱신, 하나님의 신실하심(6:4~5)
- ㉮ 장절 : 34장, 959절, ㉮ 신약성경인용 : 208회, ㉮ 성경연대 : BC. 1407?년

II. 역사서 : 12권

- ⑥ 여호수아 : 믿음의 승리(21:43~45)
- ㉮ 장절 : 24장, 685절, ㉮ 신약성경인용 : 22회, ㉮ 성경연대 : BC. 1406~1390년
- ⑦ 사사기 :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21:25)

- ㉞ 장절 : 21장, 618절, ㉞ 신약성경인용 : 14회, ㉞ 성경연대 : BC. 1390~1055년
- ⑧ 롯기 :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롯에게 이룬 축복(4:14)
- ㉞ 장절 : 4장, 84절, ㉞ 신약성경인용 : 6회, ㉞ 성경연대 : BC. 1300?년
- ⑨ 사무엘상 :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18:7)(왕국의 시작)
- ㉞ 장절 : 31장, 810절, ㉞ 신약성경인용 : 35회, ㉞ 성경연대 : BC. 1091~1010년
- ⑩ 사무엘하 : 다윗왕조 40년의 승리(7:16)
- ㉞ 장절 : 24장, 695절, ㉞ 신약성경인용 : 26회, ㉞ 성경연대 : BC. 1025~970년
- ⑪ 열왕기상 : 솔로몬의 평화 40년,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두 왕국의 80년(11:35~36)
- ㉞ 장절 : 22장, 816절, ㉞ 신약성경인용 : 53회, ㉞ 성경연대 : BC. 971~853년
- ⑫ 열왕기하 : 분열, 그리고 최악의 비극적 결과(17:22~23)
- ㉞ 장절 : 25장, 719절, ㉞ 신약성경인용 : 26회, ㉞ 성경연대 : BC. 853~560년
- ⑬ 역대상 : 하나님 나라의 정통계열로서 다윗의 혈통과 모세의 율법정신(28:4)
- ㉞ 장절 : 29장, 942절, ㉞ 신약성경인용 : 23회, ㉞ 성경연대 : BC. 1010~970년
- ⑭ 역대하 :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남유다의 20왕들(7:1)
- ㉞ 장절 : 36장, 822절, ㉞ 신약성경인용 : 45회, ㉞ 성경연대 : BC. 970~538년
- ⑮ 에스라 : 성전재건과 다시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6:16)
- ㉞ 장절 : 10장, 280절, ㉞ 신약성경인용 : 6회, ㉞ 성경연대 : BC. 539~444년
- ⑯ 느헤미야 : 성벽재건과 율법교육(6:15)
- ㉞ 장절 : 13장, 406절, ㉞ 신약성경인용 : 5회, ㉞ 성경연대 : BC. 445~415년
- ⑰ 에스터 : 페르시아제국의 왕후, 에스터와 유대의 구원(4:14)
- ㉞ 장절 : 10장, 167절, ㉞ 신약성경인용 : 3회, ㉞ 성경연대 : BC. 483~473년

Ⅲ. 성문서 : 5권

- ⑱ 욥기 : 고의적 고난의 허용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1:21)
- ㉞ 장절 : 42장, 1070절, ㉞ 신약성경인용 : 36회, ㉞ 성경연대 : BC. 족장시대?
- ⑲ 시편 :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라(150:6)
- ㉞ 장절 : 150편, 2461절, ㉞ 신약성경인용 : 454회, ㉞ 성경연대 : BC. 1500~450년
- ⑳ 잠언 : 신앙생활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1:7,3:5~6)
- ㉞ 장절 : 31장, 915절, ㉞ 신약성경인용 : 66회, ㉞ 성경연대 : BC. 970~697년
- ㉑ 전도서 : 인생의 헛됨속에서 발견하는 참된 하나님의 선(1:2)
- ㉞ 장절 : 12장, 222절, ㉞ 신약성경인용 : 6회, ㉞ 성경연대 : BC. 935년
- ㉒ 아가서 :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남녀의 사랑이 주는 기쁨(6:3)
- ㉞ 장절 : 8장, 117절, ㉞ 신약성경인용 : 0회, ㉞ 성경연대 : BC. 965년

IV. 예언서 : 17권

㉓ 이사야 :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1:19~20,53:1~7)(신구약성경)

㉔ 장절 : 66장, 1292절, ㉔ 신약성경인용 : 472회, ㉔ 성경연대 : BC. 739~681년

㉕ 예레미야 : 유다의 심판과 회복(30:15,31:31)(예루살렘의 멸망)

㉖ 장절 : 52장, 1364절, ㉔ 신약성경인용 : 137회, ㉔ 성경연대 : BC. 627~574년

㉗ 예레미야 애가 : 예루살렘이여 통곡하라(1:1)(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한 장송가)

㉘ 장절 : 5장, 154절, ㉔ 신약성경인용 : 7회, ㉔ 성경연대 : BC. 586년

㉙ 에스겔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환상(38:23)

㉚ 장절 : 48장, 1273절, ㉔ 신약성경인용 : 151회, ㉔ 성경연대 : BC. 593~559년

㉛ 다니엘 : 핍박과 고난속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4:3)

㉜ 장절 : 12장, 357절, ㉔ 신약성경인용 : 152회, ㉔ 성경연대 : BC. 605~536년

㉝ 호세아 : 타락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1:10)

㉞ 장절 : 14장, 197절, ㉔ 신약성경인용 : 26회, ㉔ 성경연대 : BC. 755~725년

㉟ 요엘 : 여호와의 날(1:4)(성령시대의 예고)

㊱ 장절 : 3장, 73절, ㉔ 신약성경인용 : 34회, ㉔ 성경연대 : BC. 440~430년

㊲ 아모스 : 정의와 공의의 심판(5:24)

㊳ 장절 : 9장, 146절, ㉔ 신약성경인용 : 22회, ㉔ 성경연대 : BC. 767~755년

㊴ 오바다 :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1:15)

㊵ 장절 : 1장, 21절, ㉔ 신약성경인용 : 1회, ㉔ 성경연대 : BC. 580~560년

㊶ 요나 : 이방, 니느웨의 복음(4:11)

㊷ 장절 : 4장, 48절, ㉔ 신약성경인용 : 9회, ㉔ 성경연대 : BC. 784~772년

㊸ 미가 : 유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베들레헴(3:8,5:2)

㊹ 장절 : 7장, 105절, ㉔ 신약성경인용 : 14회, ㉔ 성경연대 : BC. 733~701년

㊺ 나훔 : 니느웨의 멸망(1:2)

㊻ 장절 : 3장, 47절, ㉔ 신약성경인용 : 4회, ㉔ 성경연대 : BC. 650~620년

㊼ 하박국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2:4)

㊽ 장절 : 3장, 56절, ㉔ 신약성경인용 : 8회, ㉔ 성경연대 : BC. 621~609년

㊾ 스바냐 : 여호와의 날, 심판과 축복(3:17)

㊿ 장절 : 3장, 53절, ㉔ 신약성경인용 : 5회, ㉔ 성경연대 : BC. 636~623년

㋀ 학개 :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1:8)

㋁ 장절 : 2장, 38절, ㉔ 신약성경인용 : 7회, ㉔ 성경연대 : BC. 520년

㋂ 스가랴 :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 성전건축(8:3)

㋃ 장절 : 14장, 211절, ㉔ 신약성경인용 : 71회, ㉔ 성경연대 : BC. 520~489년

㋄ 말라기 :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의 약속(1:11)

㋅ 장절 : 4장, 55절, ㉔ 신약성경인용 : 25회, ㉔ 성경연대 : BC. 435~415?년

(4) 신약성경의 분류와 각권의 주제들

I. 4복음서

- ① 마태복음 : 예수님의 계보, 메시아(16:16~18)(왕)
㉞ 장절 : 28장, 1071절, ㉞ 저자 : 마태, ㉞ 기록연대 : AD. 50~70년
- ② 마가복음 : 예수, 섬기는 하나님의 종(10:45)(종)
㉞ 장절 : 16장, 678절, ㉞ 저자 : 마가, ㉞ 기록연대 : AD. 67~70년
- ③ 누가복음 :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 구원(19:10)(인자)
㉞ 장절 : 24장, 1151절, ㉞ 저자 : 누가, ㉞ 기록연대 : AD. 58년
- ④ 요한복음 : 말씀의 성육신, 그리고 영생의 길(3:16)(하나님)
㉞ 장절 : 21장, 879절, ㉞ 저자 : 요한, ㉞ 기록연대 : AD. 85~90년

II. 사도중심의 역사서

- ⑤ 사도행전 : 성령에 의한 복음의 세계화(1:8)(성령행전)
㉞ 장절 : 28장, 1007절, ㉞ 저자 : 누가, ㉞ 기록연대 : AD. 61~62년

III. 서신서(사도바울)

- ⑥ 로마서 : 위대한 서신, 기독교의 핵심교리(1:16~17)(신구약성경의 핵심)
㉞ 장절 : 16장, 433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5~56년
- ⑦ 고린도전서 : 십자가의 도, 사랑(15:58)
㉞ 장절 : 16장, 437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5년
- ⑧ 고린도후서 :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시련과 위로(12:9)
㉞ 장절 : 13장, 257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5년
- ⑨ 갈라디아서 : 이신득의(以信得義)(2:16)
㉞ 장절 : 6장, 149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6년
- ⑩ 에베소서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생활(3:10~11)
㉞ 장절 : 6장, 155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2년
- ⑪ 빌립보서 :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도의 평화(3:10)
㉞ 장절 : 4장, 104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2년
- ⑫ 골로새서 :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소명(1:18)
㉞ 장절 : 4장, 95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62년
- ⑬ 데살로니가전서 : 예수, 우리의 소망(4:16~17)
㉞ 장절 : 5장, 89절, ㉞ 저자 : 바울, ㉞ 기록연대 : AD. 50년

- ⑭ 데살로니가후서 : 인내로 굳게 서라(2:15)(주의 재림과 교회)
- ㉮ 장절 : 3장, 47절, ㉮ 저자 : 바울, ㉮ 기록연대 : AD. 50년
- ⑮ 디모데전서 :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선한 길로 행하라(6:11)
- ㉮ 장절 : 6장, 113절, ㉮ 저자 : 바울, ㉮ 기록연대 : AD. 63년
- ⑯ 디모데후서 : 용기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 군병(2:2)
- ㉮ 장절 : 4장, 83절, ㉮ 저자 : 바울, ㉮ 기록연대 : AD. 66년
- ⑰ 디도서 : 건강한 교회(2:1)
- ㉮ 장절 : 3장, 46절, ㉮ 저자 : 바울, ㉮ 기록연대 : AD. 66년
- ⑱ 빌레몬서 : 형제와 용서(1:16)
- ㉮ 장절 : 1장, 25절, ㉮ 저자 : 바울, ㉮ 기록연대 : AD. 62년
- ⑲ 히브리서 :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의 길(1:1~3)
- ㉮ 장절 : 13장, 303절, ㉮ 저자 : 바울(익명), ㉮ 기록연대 : AD. 60년 후반

IV. 서신서(야고보)

- ⑳ 야고보서 : 행동하는 믿음(2:26)(산 믿음)
- ㉮ 장절 : 5장, 108절, ㉮ 저자 : 예수의 형제, 야고보, ㉮ 기록연대 : AD. 62년

V. 서신서(베드로)

- ㉑ 베드로전서 : 순례자의 인생(4:13)(산 소망)
- ㉮ 장절 : 5장, 105절, ㉮ 저자 : 베드로, ㉮ 기록연대 : AD. 64년
- ㉒ 베드로후서 : 믿음의 발전(1:12)(참진리,참지식)
- ㉮ 장절 : 3장, 61절, ㉮ 저자 : 베드로, ㉮ 기록연대 : AD. 66년

VI. 서신서(요한)

- ㉓ 요한1서 : 코이노니아(Koinonia)(1:3)(영생의 확신)
- ㉮ 장절 : 5장, 105절, ㉮ 저자 : 사도 요한, ㉮ 기록연대 : AD. 90년
- ㉔ 요한2서 : 진리안에서 서로 사랑하라(1:8)
- ㉮ 장절 : 1장, 13절, ㉮ 저자 : 사도 요한, ㉮ 기록연대 : AD. 90년
- ㉕ 요한3서 :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1:8)
- ㉮ 장절 : 1장, 15절, ㉮ 저자 : 사도 요한, ㉮ 기록연대 : AD. 90년

VI. 서신서(유다)

- ㉖ 유다서 : 배교에 대한 경고(1:3)

㉔ 장절 : 1장, 25절, ㉕ 저자 : 예수의 형제, 유다, ㉖ 기록연대 : AD. 70~80년

VII. 목시록

㉗ 요한계시록 :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1:7,11:15)

㉘ 장절 : 22장, 404절, ㉙ 저자 : 사도 요한, ㉚ 기록연대 : AD. 81~96년

(5) 남유다, 북이스라엘, 앗수르제국의 왕들

I. 남유다의 왕 연대기(BC,재임기간,선악분별,성경)

- ① 르호보암(931~913년)(17년,惡,열왕기상12:1~14:31,역대하10:1~12:16)
- ② 아비암(아비아)(913~910년)(3년,惡,열왕기상15:1~8,역대하13:1~22)
- ③ 아사(910~869년)(41년,善,열왕기상15:9~24,역대하14:1~16:14)
- ④ 여호사밧(872~848년)(25년,善,열왕기상22:41~50,역대하17:1~20:37)
- ⑤ 요람(848~841년)(8년,惡,열왕기하8:16~24,역대하21:1~20)
- ⑥ 아하시야(841년)(1년,惡,열왕기하8:25~29,9:27~29,역대하22:1~9)
- ⑦ 아달랴(841~835년)(6년,劇惡,열왕기하8:18,25~28,11:1~20,역대하22:1~23,24:7)
- ⑧ 요아스((835~879년)(40년,善,열왕기하11:1~12:21,역대하22:10~24:27)
- ⑨ 아마샤(796~767년)(29년,善,열왕기하14:1~14,역대하25:1~28)
- ⑩ 아사랴,웃시야(790~739년)(52년,善,열왕기상15:1~7,역대하26:1~23)
- ⑪ 요담(751~736년)(16년,善,열왕기하15:32~33)
- ⑫ 아하스(742~725년)(16년,惡,열왕기하16:1~20,역대하28:1~27)
- ⑬ 히스기야(728~697년)(29년,善,열왕기상18:1~20:21,역대하29:1~32:33)
- ⑭ 므낫세(697~642년)(55년,惡,열왕기하21:1~18,역대하33:1~20)
- ⑮ 아몬(642~640년)(2년,惡,열왕기하21:19~23,역대하33:21~25)
- ⑯ 요시야(640~609년)(31년,善,열왕기하22:1~23:30,역대하34:1~35:27)
- ⑰ 여호아하스(609~608년)(3개월,惡,열왕기하23:31~33,역대하36:1~4)
- ⑱ 여호야김(608~597년)(11년,惡,열왕기하23:34~24:5,역대하36:5~7)
- ⑲ 여호야긴(597년)(3개월,惡,열왕기하24:6~16,역대하36:8~10)
- ⑳ 시드기야(597~586년)(11년,惡,열왕기하24:17~25:7,역대하36:11~21)
- ㉑ 예루살렘 함락(586년)

II. 북 이스라엘의 왕 연대기(BC,재임기간,선악분별,성경)

- ① 여로보암1세(931~910년)(22년,惡,열왕기상11:26~14:20,역대하9:29~13:22)
- ② 나답(910~909년)(2년,惡,열왕기상15:25~28)

- ③ 바아사(909~886년)(24년, 惡, 열왕기상15:27~16:7, 역대하6:1~6)
- ④ 엘라(886~885년)(2년, 술꾼, 열왕기상16:8~10)
- ⑤ 시므린(시므리)(885년)(7일, 살인자, 열왕기상16:10~20)
- ⑥ 오므리(885~874년)(12년, 劇惡, 열왕기상16:16~27)
- ⑦ 아합(874~853년)(22년, 劇惡, 열왕기상16:28~22:40, 역대하18:1~34)
- ⑧ 아하시야(853~852년)(2년, 惡, 열왕기상22:40, 51~53, 열왕기하1:1~17, 역대하20:35~37)
- ⑨ 요람(852~841년)(12년, 惡, 열왕기하3:1~3, 9:14~25)
- ⑩ 예후(841~814년)(28년, 惡, 열왕기하9:1~10:36, 역대하22:7~12)
- ⑪ 여호아하스(814~798년)(17년, 惡, 열왕기하13:1~9)
- ⑫ 요아스(798~782년)(16년, 惡, 열왕기하13:10~25, 14:8~16, 역대하25:17~24)
- ⑬ 여로보암2세(793~753년)(41년, 惡, 열왕기하14:23~29)
- ⑭ 스가랴(753~752년)(6개월, 惡, 열왕기하15:8~12)
- ⑮ 살롬(752년)(1개월, 惡, 열왕기하15:13~15)
- ⑯ 므나헴(752~742년)(10년, 惡, 열왕기하15:16~22)
- ⑰ 브가히야(742~740년)(2년, 惡, 열왕기하15:23~26)
- ⑱ 베가(752~732년)(20년, 惡, 열왕기하15:27~31)
- ⑲ 호세아(732~722년)(9년, 惡, 열왕기하17:1~41)
- ⑳ 사마리아 함락(722~721년)

Ⅲ. 앗수르제국의 왕들(BC)

- ① 살만에셀3세(858~824년)
- ② 아다드 니라리 3세(810~783년)
- ③ 디글랏 빌레셀 3세(744~727년)
- ④ 살만에셀5세(727~722년)
- ⑤ 사르곤2세(722~705년)
- ⑥ 산헤립(705~681년)
- ⑦ 에살하돈(680~669년)
- ⑧ 니느웨의 함락(612년)
- ⑨ 므깃도 전쟁(609년)
- ⑩ 갈그미스 전쟁(605년)
- ⑪ 느부갓네살2세(605~562년)(바벨론제국 왕)

Ⅳ. 히브리 선지자들(BC)

- ① 오바댜(853~841)(열왕기하25장, 역대하36:11~21)

- ② 요엘(835~796)(열왕기하11장~15:17)
- ③ 요나(793~753)(열왕기하13~14장)
- ④ 아모스(760~755)(열왕기하14:23,15:7)
- ⑤ 호세아(746~724)(열왕기하15~18장)
- ⑥ 이사야(740~680)(열왕기하15~20장,역대하26~32장)
- ⑦ 미가(740~695)(열왕기하15:8~20장,이사야7~8장,예레미야26:17~19,역대하27~32장)
- ⑧ 나훔(640~630)(요나서,이사야10장,스바냐2:13~15)
- ⑨ 스바냐(640~630)(열왕기하22장~23:34,역대하34장~36:4)
- ⑩ 예레미야(626~585)(열왕기하22~25장,역대하34~36:21)
- ⑪ 하박국(608~597)(열왕기하23:1~24:20,역대하36:1~10)
- ⑫ 다니엘(600~530)(열왕기하23:35~25:30,역대하36:5~23)
- ⑬ 에스겔(592~570)(열왕기하24:17~25장,역대하36:11~21)
- ⑭ 학개(520~519)(에스라5~6장)
- ⑮ 스가랴(520~475)(에스라5~6장)
- ⑯ 말라기(435~425)(느헤미야13장)

(6) 언약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가이드인 성경은 언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베리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일"과 관련성이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디아데케"로 언약이 구원을 도래하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이라는 3대명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I. 구속언약

구속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구원받을 자의 대표인 성자 사이에 결정된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입니다. 구속언약의 실현이 은혜언약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계획속에 영원전부터 있었고(에베소서1:4,데살로니가후서2:13), 그 계획은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요한복음5:30).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에는 당사자로서 삼위 하나님의 대표인 성부와 택함을 받은 자의 대표인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시2:7~8). 또한, 보증인으로서 성자는 언약의 당사자인 동시에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히브리서7:22). 다음은 조건으로서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완성하고 인간 대신 죄악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시40:7~8). 약속은 성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요한복음17:5).

구속언약의 성취는 언약의 당사자인 성부께서 언약의 다른 당사자이며 보증인인 성자를 세상에 보내어(요한복음3:16), 그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에 따라 고난과 죽음을 당케 하시며(로마서3:26), 언약의 약속에 따라 부활 승천하여 성부 우편에 앉으시고(베드로전서3:22),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지도,보호 하시다가(요한복음14:26) 성자의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영화롭게 함으로서(에베소서1:6) 구속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II. 은혜언약

은혜언약은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하나님과 구원받기로 결정한 인간, 즉, 택함을 받은 인간을 각각 당사자로 하며, 성자를 성부와 인간 사이의 중보와 보증인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은혜언약의 특징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은혜언약의 당사자는 행위언약과 동일하게 제1 당사자인 성부 하나님과 제2 당사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택함을 입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은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창세기17:7,예레미야31:33)

은혜언약은 구원에 관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삼위하나님이 모두 참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에베소서1:3~5,요한복음19:30).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계약이며(창세기17:9,사무엘하23:5), 모든 세상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 제한하였다는 측면에서 특수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만 인간의 공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에베소서2:8). 더 나아가 계약당사자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성립되는 편무계약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히브리서6:17)

① 시대의 은혜언약

은혜언약은 시대와 사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불변진리의 약속이었고(창세기17:7,출애굽기19:5~6,예레미야31:33), 약속의 조건은 언제나 믿음이었다는 변함없는 사실(창세기15:6,로마서4:9~11), 그리고 중보자가 성자 예수님으로서 언제나 동일하다는 절대불변의 원칙(디모데전서2:5,갈라디아서3:19~20,히브리서13:8)의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 ㉟ 아담과의 원시언약 :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꺾을 것이라는 원시복음(창세기 3:15)
- ㊱ 노아와의 이중언약 : 홍수전에 택한자의 구원에 대한 언약(창세기6:18)과 홍수후 다시 이러한 홍수가 없을 것이며 기후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약속의 언약(창세기9:8~10)
- ㊲ 아브라함과의 축복언약 : 가나안에 대한 현세적 축복과 메시아에 대한 영적 축복(창세기15:4~5), 그리고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신 칭의(창세기15:6)
- ㊳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 : 도덕적, 의식적, 국가적 율법이 주어진 언약(출애굽기24장)
- ㊴ 신약시대의 언약 : 이스라엘 선민에서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확대되는 복음의 보편성, 성령강림으로 인한 성령충만의 언약

(7) 신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와 이름

I.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와 이름

■ 히브리어

- ① 엘 엘론(창세기14:18~20) : 지극히 높은 자
- ② 사팻(창세기18:25) : 재판자
- ③ 엘 올람(창세기21:33) : 영원하신 하나님
- ④ 여호와 이레(창세기22:14) :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 ⑤ 엘 엘로헤 이스라엘(창세기33:20) :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 야곱의 하나님
- ⑥ 엘 샤다이(창세기49:25) : 전능하신 하나님
- ⑦ 여호와 닛시(출애굽기17:15) : 주는 나의 깃발
- ⑧ 여호와 샬롬(사사기6:24) : 주는 평화이시다
- ⑨ 엘 브릿(사사기9:46) : 언약의 하나님
- ⑩ 여호와 츠바웃(사무엘상17:45) : 만군의 하나님
- ⑪ 아도나이(시편2:4) : 주님, 주인
- ⑫ 케도시 이스라엘(이사야1:4)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 ⑬ 여호와 치드케누(예레미야23:6) : 우리의 의로운 주
- ⑭ 여호와 삼마(에스겔48:35) : 주는 거기에 계신다

■ 아람어

- ① 아티고 요임(다니엘7:9) :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
- ② 일라야(다니엘7:18) : 지극히 높으신 자

II.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와 이름

■ 헬라어

- ① 로고스(요한복음1:1) : 말씀
- ② 소테르(요한복음4:42) : 구주
- ③ 데오스 호 파테르(에베소서3:15) : 하나님 아버지
- ④ 퀴리로스(빌립보서2:9~11) : 주님
- ⑤ 알파 카이 오메가(요한계시록1:8) : 처음과 나중

(8)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스라엘의 3대직분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으로서 이 가운데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특징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성경상 제사장(히브리어, 코헨)과 선지자(히브리어, 나비) 등 두 직분의 기원은 BC. 21세기경, 멜기세덱(창세기14:8)과 아브라함(창세기20:7)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기 애굽과 바벨론 등 고대 근동지역의 국가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불리우는 무리들이 사회지도층의 최고위직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창세기41:45,47:22) 아브라함 시대로 추정되는 율기에도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케훈나"가 나타나고 있음은(율기12:9)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의미의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출애굽(BC.1446) 호렘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방의 신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레위사람 제사장(하르위임 하코하님)으로 표기함으로서 이방의 제사장들을 가르키는 "케마림"(열왕기하23:5,호세아10:5,스바냐1:4)과 애굽의 제사장(창세기46:20), 블레셋의 제사장(사무엘상6:2), 다곤의 제사장(사무엘상5:5), 바알의 제사장(열왕기하10:9), 다른 이방의 제사장(역대하34:4,예레미야48:7)들의 "코헨"과 완전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방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기원이 토속적이고 인위적이며 미신, 마술, 거짓, 계시, 복술, 사주, 관상 등 허탄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예레미야14:14,23:25~28), 성경적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대조되는 것입니다

① 제사장직의 직무

제사장직은 성소를 중심으로 ㉞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히브리서5:1) ㉞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출애굽기30:8,히브리서7:25) 이러한 중보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직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중 레위지파에 속해야 하

며(민수기3:11,히브리서5:1~2),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인 자(민수기16:5, 히브리서5:4), 아론의 후손인 자 중에서도 도덕적 순결과 거룩한 자(레위기21:6~8)로 제한하였습니다

② 선지자직의 직무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로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언자들이었습니다 ㉓ 피동적 요소로서 반드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이사야6:1, 예레미야1:4~10,에스겔3:1~4) ㉔ 능동적 요소로서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에스겔3:17,4:1~12) 한편 선지자 직분은 오직 신적 소명에 의존하므로 신분과 직업과 혈통과 계층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③ 제사장과 선지자의 특징

제사장과 선지자는 신적기원과 소명에 근거하고 있다는 공통점하에서 제사장은 체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선지자는 체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언)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두 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무엘상2:18,3:20,에스겔1:3,에스라7:11,스가랴1:1)

④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구속사적으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분이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영원히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두 직분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중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직무입니다(갈라디아서2:20) 오늘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베드로전서2:4~5)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고 동시에(로마서12:1)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전도자서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9)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의미

① 성전의 존재 의미 :

성전 자체는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적인 실체로서 신앙의 확신과 경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서 성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의 모형이며 예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구속사 전개에 한 시점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 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성과 죄인이 하나님앞에 나아오는 방법과 절차를 엄정하게 제한함으로써 신약의 성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와 비교해 볼 때 간접성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② 성전의 역사 :

성전의 역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Tebernacle)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성을, 성전은 고정성을 갖는 점 외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 건립되었으나 성경에는 에스겔이 환상중에서 본 성전까지 모두 네 개의 성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시대적 구분은 솔로몬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과 신약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③ 성전의 단계적 제한성의 의미 :

유대교가 가진 배타적 장소를 설명하며 죄 지은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앞에 나아가는 것의 제한적 요소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전건물은 6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졌고 각 구획마다 한 단계씩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성결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방인의 뜰 : 이방인들에게 허용한 유일한 장소로 성전경내 외곽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 성전, 벽 : 90cm의 담으로서 이방인들이 넘어설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 여인의 뜰 : 이방인의 뜰보다 90cm 높은 곳으로서 유대 여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이스라엘의 뜰 : 여인의 뜰보다 3m 높은 곳으로 유대 남자들이 들어갔습니다.

㉼ 제사장의 뜰 : 이스라엘의 뜰보다 90cm 높은 곳으로서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전 : 제사장의 뜰보다 2m50cm 높은 곳으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개의 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때에 자신의 임무를 위해 들어갔으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단 한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배제하였던 것은 유대인의 선민사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뜰을 계급별로 나누고 출입을 금지하여 유대교 체제의 엄격한 신분차별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년에 단 한차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점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한 장소 가까이에 보통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한 여러가지 경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들로부터의 분리에 대해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④ 성전에서 교회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과 회개한 인간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 졌는데(마태복음27:51),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히브리서 10:19~20).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로마서10:12)과 남자와 여자의 차별(갈라디아서3:28)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차별(요한계시록1:6) 등 모든 신분적 차별이 철폐된 것이었습니다.

2. 창세기(創世紀,Bereshith,Genesis)

(1) 명칭

창세기는 구약성경의 첫번째 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하여 70인역에서는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Genesis"라고 부르고, 히브리성경에서는 "태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브레쉬트"(Bereshi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 "태초의 기원", 또는 "태초의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아무것도 이루어지거나 준비되거나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는 창조의 세계에 대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책이라 할 것입니다. 로마카톨릭에서는 창세기2장4절의 "천지창조의 유래"에서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셉투아진타"(Septuaginta)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2) 저자

창세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흔히 이 다섯권의 책을 모세오경(펜타츠크,Pentateuch)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라"(תּוֹרָה)라고도 불리우는 모세5경은 유대인의 율법책으로 반드시 암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어떤 존재도 그와 같은 기록을 저술하거나 남길만한 역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배운 모세가 유용한 모든 역사적 기록들, 필사본, 구전자료들을 해독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작업들을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사도행전7:22).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1장의 내용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만이 존재할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과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의논하는 듯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영감과 인도함으로서 그것을 기록에 포함하도록 모세에게 지시 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1:20~21).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신화를 하나하나 구별하기 어려웠던 모세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한 영감과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기자의 자세로 기록하였으며, 이것으로서 성경의 관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연대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 이전에 이것을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후 느보 산상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인 B.C 1446~140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섭리를 직접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계시를 통하여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절대유일의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 어둠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3:15)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원시복음의 태동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혈통

- ㉠ 여자의 후손(3:15) ㉡ 셋의 줄기(4:15) ㉢ 셈의 자손(9:26) ㉣ 아브라함의 가계(12:3) ㉤ 씨(18:18)
- ㉥ 이삭의 후손(26:3) ㉦ 야곱의 후예(46:3) ㉧ 유다지파(49:10) ㉨ 실로(49:19)

② 그리스도의 모형

- ㉠ 가시(3:18) : 저주와 가시관
- ㉡ 가죽 옷(3:31) : 대속물, 속죄
- ㉢ 어린양(4:1~5) : 화목제물, 희생양
- ㉣ 방주(7~8) : 교회, 구원, 교회의 머리(에베소서5:23)
- ㉤ 사다리(28:10) : 그리스도의 중보(디모데전서2:5)

③ 그리스도의 예표

- ㉠ 아담(로마서5:14) : 오실 자의 표상
- ㉡ 멜기세덱(14:17,히브리서7:2~3) : 의(義)의 왕
- ㉢ 여호와와 사자(16:7~14,18:22,19:1,22:11~16,31:11~13) : 사람으로 오심
- ㉣ 이삭(22) : 희생양, 순종
- ㉤ 유다(43:9,44:32) : 죄를 대속함
- ㉥ 요셉(37:28,41:41~42) :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 가지만 애굽을 통치함
- ㉦ 실로(49:10) : 장차 오실 이

(4) 주제

"창조와 역사, 구원의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1:1)를 주제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과 우주와 인류의 기원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죄, 구원의 문제 해결자로서의 여자의 후손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원시적 역사와 계보에 나타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 요절은 12:1~3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5) 내용

창세기는 아담으로 부터 시작되는 조상들에 대하여 각각의 생애로서 역사를 계승하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즉, ① 천지창조(1:1~2:4) ② 아담의 생애(5:1) ③ 노아의 생애(6:9) ④ 셈, 함, 야벳의 생애(10:1) ⑤ 셈의 생애(11:10) ⑥ 아브라함의 생애(11:27) ⑦ 이스마엘의 생애와 이슬람의 원시적 탄생(25:12) ⑧ 이삭의 생애(25:19) ⑨ 에서의 생애(36:1)와 이슬람의 원시적 초기 ⑩ 야곱의 생애(37:2) ⑪ 요셉의 생애(37:1~50:26) 등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13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서 독자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담으로 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이스마엘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계보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각각 소개되었으나, 이삭으로 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보에는 에서와 및 다른 계보들의 존재는 역사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과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창세기는 이어져 오면서 마지막 애굽이라는 이방나라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단일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와 자연과 인류의 기원(1:1~11:9)과 인류의 역사(11:10~50:26)를 주제로 각각의 내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① 천지창조와 안식일제도의 시행(1:1~2:4) ② 에덴의 창설과 상실(2:5~3:24) ③ 인류문명의 시작과 타락(4:1~6:4) ④ 노아시대(6:5~9:29) ⑤ 여러민족의 기원과 바벨탑으로 인하여 언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가와 민족(10:1~11:9) ⑥ 아브라함의 생애와 역사(11:10~25:28) ⑦ 이삭과 야곱의 생애(25:19~36:43) ⑧ 요셉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원시적 탄생(37:1~50:26)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부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신정국가의 모형을 이루기까지의 긴 여정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계시의 역사를 고대사회의 시공속에서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에서 부터 아브라함의 탄생까지 세계는 매우 특별한 사건들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천지창조(1~2장)로 부터 시작

된 인류의 역사속에 시작 단계에 부터 첫 인류의 범죄와 타락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3~6장) 인류의 타락은 쓰나미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급속한 경향으로 온 인류는 홍수 심판이라는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만나게 됩니다(7~10장)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온 우주속에서는 노아의 가족인 8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살아남은 자 가운데 함의 계보가 생존 첫날부터 노아로 부터 저주를 받는 새로운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됩니다 오직 한 계보 때문이었을까요? 인류는 또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바벨탑의 사건에서 온 인류는 언어중심으로 전세계로 분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11장) 이러한 재앙은 족장시대의 첫 태동인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불의 멸망은 단 세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계시록 대재앙의 예표이기도 하였습니다(18~19장)

아브라함(12~25장)과 이삭(26~28장)과 야곱(29~35장)과 요셉(37~50장)으로 이어지는 고대근동의 4대족장의 계보는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원시부족으로, 원시부족에서 국가의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언약계열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3명의 그림자를 통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1~5장), 세상의 조상 노아(6~11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12~25장)으로서 인류의 태동과 세계인의 조성, 그리고 그 가운데 특정하신 아브라함계보의 선민사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①창세기의 역사성

창세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에덴과 대홍수와 같은 전설이 동시대 다른 민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승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Atrahasis epic)에 기록된 사건들은 창조-반역-홍수라는 전개과정을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누마 엘리쉬"(Eunma elish)라는 문헌과 같이 다신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타민족과의 구별성은 이스라엘만이 갖는 선민적 사상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사에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어떤 역사서나 경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창세기는 인류사를 고민하는 고고학자들에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류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강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는 물과 자원과 초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류가 정착하기 매우 유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건축술, 생활문화양식, 법적인 관습, 소와 양 등의 가축업 등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관한 고대근동의 일치된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에덴이 있었고, 바벨탑이 건설된 지역이었으며,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이삭이 아내를 취한 곳이었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보내었던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지역이었습니다 "마리서판"(Mari Tablets)과 "누지서판"(Nuzi Tablets)은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인류문명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동시대의 역사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실존성을 증거하였습니다

BC. 2000년 경, 팔레스타인은 아람인의 지배하에 있었고(창세기14), BC. 1900년경 이집트의 기념비에는 셈족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고대문헌인 두 형제의 이야기(Table of Two Brothers)의 기록에는 요셉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어서 요셉의 근거가 되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가지 제도들과 원시적인 법률, 가족중심의 원시부족사회 등은 여타 민족들의 역사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세기의 역사성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② 창세기의 연대추정(족장시대,BC)

- 2166년 : 아브라함 출생(11:26)
- 2091년 : 아브라함 가나안 이주(12장)
- 2080년 : 이스마엘 출생(16장)
- 2067년 : 소돔 멸망(19장)
- 2066년 : 이삭 출생(19장)
- 2045년 : 모리아산 이삭의 제물사건(22장)
- 2029년 : 사라 사망(23장)
- 2026년 :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24장)
- 2006년 : 에서와 야곱 출생(25장)
- 1991년 : 아브라함 사망(25장)
- 1990년 : 요셉의 생애
- 1985년 : 에서가 팔죽 한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김(25장)
- 1929년 : 야곱이 이삭에게 에서라고 속인후 축도를 받고 하란으로 도피함(27장)
- 1915년 : 요셉 출생(30장)
- 1909년 : 야곱이 세겜으로 이주(33장)
- 1899년 : 야곱이 벧엘로 이주(35장)
- 1898년 : 요셉이 애굽노예로 인신매매 됨(37장)
- 1885년 : 애굽의 국무총리에 요셉 취임(41장)
- 1876년 :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애굽이주(46장)
- 1859년 : 야곱 사망(49장)
- 1805년 : 요셉 사망(50장)

(6) 창세기에 나타난 6개의 테마

① 하나님의 영원한 대우주 건설은 지구의 질서를 위한 것이었으며, 지구와 지구환경은 존재하는 동식물과 모든 생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창조의 중심에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즉,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큰 지구가 필요하였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질서를 위해 태양계가 필요하였으며, 태양계의 질서를 위해 더 거대한 우주와 영원의 대우주가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②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인간은 순종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심어준 극악한 변명이 되었고 모든 인류는 범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③ 세계적인 대홍수 때문에 노아가 500세 때 방주를 지었다는 말에는 그리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500세의 노아가 과연 배를 건조하는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므두셀라가 960세를 살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시각으로 고대근동의 고령 계층을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이 보다 더 놀라운 일은 대홍수에서 불과 1가정만이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세계인은 모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과연 대홍수의 세계적인 재앙에서 단지 8명만이 생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이토록 극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들의 죽음 가운데 단 한명의 억울한 자도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생존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8명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경악할 일이고, 그들 모두는 생존하였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④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세계는 언어중심으로 국가개념이 재편되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상호 경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해야 했고, 서로 힘을 합치거나 다시 하나로 뭉쳐 하나님께 도전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서로는 전쟁을 통하여, 뺏고 빼앗기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서 제국은 식민통치를 하고, 약육강식의 동물적 본능에 의한 지배의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⑤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은 최악의 끝을 보여주는 계시록의 작은 모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두 천사의 강제적인

인도로 목숨 만큼은 건졌지만, 그 추잡한 습성과 전통을 버리지 못한채 근친상간으로 대를 이어가는 죄악을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과 단절 되어가는 세상속에서는 결코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⑥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 그가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으로 팔려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생활은 역사속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집결시켰습니다 330년의 노예생활, 고통과 시련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이후에는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 붓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의 대역사를 한꺼번에 체험하는 축복의 증인이었지만 그 만큼의 댓가를 누리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7) 개요

창세기는 50장, 1533절로 신약성경에 260회 인용되었으며 BC. ?~1805년의 기록입니다

- ① 천지창조(1:1~2:25)
 - ㉠ 창조의 시작(1:1~2)
 - ㉡ 창조의 기간(1:3~2:3) : ㉢ 1일 : 빛과 어두움, 낮과 밤 ㉣ 2일 : 궁창
 - ㉤ 3일 : 땅(육지)과 바다, 풀, 채소, 열매과실나무 ㉥ 4일 : 하늘의 별, 해와 달
 - ㉦ 5일 : 바다짐승, 바다생물, 새 ㉧ 6일 : 육지생물, 가축, 짐승, 사람 ㉨ 7일 : 안식
 - ㉩ 남자와 여자의 창조(2:4~25)
- ② 인간의 범죄(3:1~24)
 - ㉪ 유혹(3:1~7), ㉫ 심판(3:8~24)
- ③ 인간 사회의 시작(4:1~5:32)
 - ㉬ 가인과 그의 후손들(4:1~24), ㉭ 셋(4:25~26), ㉮ 아담에서 노아까지(5:1~32)
- ④ 노아의 역사(6:1~9:29)
 - ㉯ 홍수의 원인(6:1~13), ㉺ 홍수의 과정(6:14~8:19),
 - ㉻ 홍수 이후의 사건들(8:20~9:29)
- ⑤ 노아의 후손과 바벨탑(10:1~11:26)
 - ㉼ 야벳의 아들들(10:1~5), ㉽ 함의 아들들(10:6~20), ㉾ 셈의 아들들(10:21~32),
 - ㊱ 바벨탑(11:1~9), ㊲ 셈의 후손들(11:10~26)
- ⑥ 아브라함의 역사(11:27~25:11)
 - ㊳ 아브라함 가족(11:27~32), ㊴ 소명 받은 아브라함(12:1~20),
 - ㊵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13:1~18),

- 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함(14:1~24), ㉕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15:1~21),
- ㉖ 이스마엘의 출생(16:1~16), ㉗ 아브라함의 할례(17:1~27),
- ㉘ 소돔 고모라의 멸망(18:1~19:38),
- ㉙ 아브라함과 아비멜렉(20:1~18), ㉚ 이삭의 출생(21:1~34),
- ㉛ 이삭을 제물로 바침(22:1~24),
- ㉜ 사라의 죽음과 장사(23:1~20), ㉝ 이삭의 결혼(24:1~67),
- ㉞ 아브라함의 죽음(25:1~11)
- ㉟ 이스마엘의 후손들(25:12~18)
- ㊱ 이삭과 그 아들들의 역사(25:19~36:43)
- ㊲ 야곱과 에서의 출생 : 장자권을 판 에서(25:19~34),
- ㊳ 이삭과 아비멜렉(26:1~35),
- ㊴ 속임수로 축복을 얻은 야곱(27:1~46), ㊵ 메소포타미아로 피신한 야곱(28:1~9),
- ㊶ 베엘에서 꿈 야곱의 꿈(28:10~22),
- ㊷ 야곱과 라반의 딸들(29:1~30:43) :
- ㊸ 야곱과 라헬의 만남(29:1~14), ㊹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음(29:15~30),
- ㊺ 야곱의 자녀들(29:31~30:24), ㊻ 야곱과 라반의 계약(30:25~43)
- ㊼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옴(31:1~33:20) :
- ㊽ 라반을 떠남(31:1~55), ㊾ 야곱과 에서의 화해(32:1~33:20)
- ㊿ 야곱의 노년기(34:1~36:43) :
- ㋀ 세겔에서의 대살륙(34:1~31),
- ㋁ 베엘에서 갱신된 언약(35:1~15)
- ㋂ 라헬과 이삭의 죽음(35:16~29), ㋃ 에서의 후손(36:1~43)
- ㋄ 요셉의 역사(37:1~50:26)
- ㋅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37:1~36), ㋆ 유다와 다말(38:1~30),
- ㋇ 보디발의 집에서 시중드는 요셉(39:1~23),
- ㋈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40:1~23)
- ㋉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요셉(41:1~57)
- ㋊ 애굽에서 재회하는 요셉과 그 형제들(42:1~45:28) :
- ㋋ 열 명의 형제들의 첫번째 방문(42:1~38),
- ㋌ 열 한명의 형제들의 두번째 방문(43:1~44:34),
- ㋍ 요셉이 자신을 밝힘(45:1~28)
- ㋎ 애굽에 내려온 요셉의 가족(46:1~47:31)
- ㋏ 축복을 받는 요셉의 아들들(48:1~22)
- ㋐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함(49:1~27)
- ㋑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49:28~50:14)
- ㋒ 요셉의 말년(50:15~26)

3. 출애굽기(出埃及記,Liber Exodus)

(1) 명칭

모세오경의 제2서 출애굽기는 "탈출", "출발"이라는 의미의 "Exodus"(19:1)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히브리성경에서는 "웨엘레 쉘못"으로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탈출과 관련되어 기록하고 있어서 한글번역에서 출애굽기라는 책명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2) 저자

출애굽기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흔히 이 다섯권의 책을 모세오경(펜타츠크,Pentateuch)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라"(תּוֹרָה)라고도 불리우는 모세5경은 유대인의 율법책으로 반드시 암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다른 4권의 책들과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한사람의 문체로 기록되었음을 알려주는 문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책의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출애굽기 17:14,24:4,34:27,민수기33:2,신명기31:9,여호수아1:7,8:8,열왕기상2:3,열왕기하14:6,마태복음19:8,마가복음7:10,누가복음20:37,로마서10:5).

출애굽기는 언제 어디서 모세가 기록에 남겼을까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른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후 애굽의 사정은 더욱 극심한 노예핍박이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호렘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직후부터 느보 산상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인 B.C 1446~1406년경 모세는 창세기와 함께 출애굽기를 역사에 남겨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온갖 난관과 기록적 한계를 극복하며 출애굽기는 탄생을 하였습니다.

(3) 기록목적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출애굽을 한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약의 실현으로 성취한 구원(창세기15:13~14)과 그 계약으로 요구되는 율법이 기록되어짐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사의 전환점에서 있는 출애굽의 대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성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신 언약을 절대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이라는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을 통해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지상도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주도하는 택한 백성에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차별함으로서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자를 완전히 구별하여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굽나라, 동일한 국가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재앙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해 내고 역사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였습니다 애굽의 백성중에 그 어떤자라도 예외가 없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중에 단 한명이라도 포함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출애굽기를 흔히 "구속계시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모형적 사건들이 출애굽기속에 그대로 나타남으로서 이러한 택한 백성의 선민사상으로서의 구속사적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 모세(3:10) :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마태복음1:21)
- ㉡ 유월절 어린양(12:3) : 하나님의 어린 양
- ㉢ 만나(16:15) : 광야의 양식(요한복음6:48)
- ㉣ 반석과 물(17:6, 민수기20:13) : 반석(고린도전서10:4), 물(요한복음4:14)
- ㉤ 성막과 그 구조
- ㉥ 출애굽기(13:17~22) : 죄에서 해방, 구원(사도행전4:12, 요한복음3:16)
- ㉦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감(14:21~31) :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로마서6:2~3)
- ㉧ 절기 : 그리스도의 사역
- ㉨ 구름기둥, 불기둥(13:21) : 그리스도의 임재
- ㉩ 대제사장 아론(29:9) :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히브리서9:28)

(4) 주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19:4~6)를 주제로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배자로 부터 구속을 받아 오랜 세월 노예로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 부터 성별하여 구원하고 죄에서 해방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세례를 베풀고, 바로의 군대에게는 영원형벌의 재앙을 내리는 상반된 두가지 역사를 하나의 장소에서 실현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재앙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과 이방과의 혼합과 우상숭배의 지난 과거로 부터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도록 하는 십계명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열어가는 첫 행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성구는 3장8절로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세상권력에서 구원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재확인과 계약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5) 내용

이집트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그 역사는 3,00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집결지로 모은 곳은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였습니다 그들은 400년동안 큰 민족을 이루며 요셉의 자손으로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의 후왕들에게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 그들의 왕성함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인과 분리하여 그의 대부분을 노예화 해버린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의 집결지로 이끌었는데 그들 모두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도 없는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고난에 관한 서술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구원자로 선택된 모세의 어린 시절과 소명, 이집트에서의 열가지 재앙과 출애굽, 200만 명에 달하는 민족 대이동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역사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아서고 바다에서는 물과 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와 같이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저버린 댓가로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으며 시내산에 도착하기 까지 출애굽의 여정속에는 많은 기적과 진노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써 주신 십계명과 함께 "계약의 서"(20:22~23:33)로 칭하여 진 율법서, 그리고 성막건설의 상세한 지시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25:1~31:18,35:1~40:33)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부터의 구원의 대장정(1~18장)과 하나님의 율법과 제도적 계시(19~40장)라는 두개의 전혀 다른 내용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지며 이것이 한 권의 책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요셉에 의하여 이집트로 집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수백만에 이르게 되어 이집트 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였다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집결시켰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보다 빠르게 진전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함의 자손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겨 두었습니다. 요셉의 친구들이었던 바로왕의 평화기간은 불과 70년, 그로 부터 400년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의 노예가 되어 고향을 잃은 슬픔이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된 바로왕의 이스라엘 장자들에 대한 대학살 사건으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으며, 훗날 출애굽의 정점에 서게 되는 모세라는 인물은 학살원흉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는 속일수 없었던것일까요? 바로왕의 후계자 중 한사람이었던 모세는 뜻하지 않는 한 사건으로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하게 됨으로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한 때 자신이 거주하며 위엄을 자랑하였던 바로의 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하였고, 바로왕은 수많은 건설계획의 차질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에서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집트에는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바로왕의 강박한 마음이 열릴때 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재앙인 피(7:14~25)로 부터 개구리(8:1~15), 이(8:16~19), 파리(8:20~32), 가축 전염병(9:1~7), 독종(9:8~12), 우박과 불(9:13~25), 메뚜기(10:1~20), 어두움(10:21~29)과 그 옛날 바로왕이 이스라엘 장자를 학살하였던 이집트 장자의 죽음(11:1~12:36)에 이르기 까지 이집트 전역에는 통곡과 비명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한바가 없었고, 이집트 백성에게는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피해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던 바로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댓가는 참혹했습니다. 이미 잿더미가 되어 버린 이집트에는 이 재앙을 뒷수습할 경제적 능력도 상실한 채 나라 전체가 황폐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낙담하고 분노하였을까요? 바로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엑소더스의 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에게는 이집트의 황폐함을 재건할 노동자들이 필요하였고, 그들을 놓아 주기엔 너무나 멀리와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바로의 말발굽소리에 당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랜 노예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같은 열가지 재앙을 목도하고도 원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냐"는 원망은 급기야 하나님의 궤전에도 들렸습니다 눈앞에 거칠 것이 없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라는 큰 바다앞에서 진퇴양난의 풍전등화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은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 버릴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대열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킨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는 길을 열고 땅은 큰 광풍으로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서 목도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할 기력도 없이 홍해를 건너갔으며, 200만명에 달하는 백성들은 이 명백한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바다의 땅은 그들에게 세례의 통로가 되었지만,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에게는 영원형벌의 바다가 되었다는 점에서 극과 극의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만나와 적정온도, 주거지 문제 해결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 2부는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과 제도와 성막건립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하시며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대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시내산 대평원에는 성막과 제사와 규범과 제도와 규약이 있는 국가개념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즉,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한다는 제도의 탄생은 전 인류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로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서 기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금송아지 우상숭배와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오랜 광야생활이 연장되었고,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이라는 목표지점에 결국 도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적이 한꺼번에 한 시대에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이지만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나홀이면 도달할 그 짧은 거리를 40년이나 우회하며 헛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① 출애굽기의 연대추정(광야시대,BC)

- 1805~1730년 : 이스라엘이 요셉의 사후 75년동안 번영을 누림(1:1~7)
- 1580년 : 애굽의 박해시작(1:8~12:42)
- 1527년 : 모세 출생(2:1~4)
- 1487년 : 모세, 애굽군인에 대한 살인으로 미디안 도피(2:11~15)

- 1446년 : 모세, 애굽으로 복귀(4:20), 유월절 제정(12:2), 10가지 재앙, 출애굽,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16:14), 이스라엘, 시내산 도착(19:1)
- 1445년 : 성막건립(40장), 가데스바네아를 떠남(민수기10:11), 가데스바네에 돌아옴(민수기13:1~14:45)
- 1445~1406년 :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함(민수기15:1~신명기34장)
- 1406년 : 모세 사망(신명기34:1~7)

(6) 개요

출애굽기는 40장, 1213절로 신약성경에 250회 인용되었으며 BC. 1876~1446년의 기록입니다

I. 애굽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1:1~12:36)

- 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심(1:1~4:31)
- ② 모세의 훈련(2:1~25) : 40세까지(2:1~10), 80세까지(2:11~25)
- ③ 모세를 부르심(3:1~4:31)
- ㉠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3:1~22), ㉡ 모세의 거절(4:1~17)
- ㉢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순종(4:18~31)
- ②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심(5:1~7:13)
- ㉠ 바로와 모세의 일차 접견(5:1~7:7), ㉡ 바로와 모세의 두번째 이차 접견(7:8~13)
- ③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가지 재앙(7:14~12:36)
- ㉠ 첫째 재앙 : 피(7:14~25)
- ㉡ 둘째 재앙 : 개구리(8:1~15)
- ㉢ 세째 재앙 : 이(8:16~19)
- ㉣ 네째 재앙 : 파리(8:20~32)
- ㉤ 다섯째 재앙 : 가축 전염병(9:1~7)
- ㉥ 여섯째 재앙 : 독종(9:8~12)
- ㉦ 일곱째 재앙 : 우박과 불(9:13~25)
- ㉧ 여덟째 재앙 : 메뚜기(10:1~20)
- ㉨ 아홉째 재앙 : 어두움(10:21~29)
- ㉩ 열번째 재앙 : 장자의 죽음(11:1~12:36) : 재앙의 예고(11:1~10), 유월절 제정(12:1~36)

II. 시내산으로의 행군 ; 해방과 출발(12:37~18:27)

- ① 애굽에서 나옴(12:37~51)

- ② 초태생의 봉헌에 대한 규례(13:1~16)
- ③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13:17~22)
- ④ 홍해가 갈라짐(14:1~22)
- ⑤ 추격하던 애굽군대의 몰살(14:23~31)
- 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15:1~21)
- ⑦ 백성들의 원망(15:22~17:7)
- ㉠ 쓴물에 대한 불평(15:22~27), ㉡ 굶주림에 대한 불평(16:1~36)
- ㉢ 물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불평(17:1~7)
- ⑧ 아말렉을 물리침(17:8~16)
- ⑨ 책임의 분담(18:1~27)

Ⅲ.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19:1~40:38)

- ① 율법을 주심(19:1~24:18)
 - ㉠ 언약의 제시와 백성의 맹세(19:1~25), ㉡ 십계명(20:1~26), ㉢ 종에 관한 율법(21:1~11),
 - ㉣ 개인적인 상해에 관한 율법(21:12~36), ㉤ 도적질에 관한 율법(22:1~4),
 - ㉥ 재산피해에 관한 율법(22:5~15), ㉦ 결혼을 빙자한 간음에 관한 율법(22:16~17),
 - ㉧ 백성의 종교적,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율법(22:18~23:9), ㉨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율법(23:10~19),
 - ㉩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율법(23:20~33), ㉪ 언약의 인가(24:1~8)
- ㉫ 시내산에 강림한 주의 영광(24:9~18)
- ② 성막의 제도(25:1~31:18)
 - ㉠ 재료(25:1~9), ㉡ 언약궤와 속죄소(25:10~22), ㉢ 진설병을 놓은 상(25:23~30),
 - ㉣ 등대(25:31~40), ㉤ 성막을 덮는 막들(26:1~14), ㉥ 널판들(26:15~30), ㉦ 휘장들(26:31~37), ㉧ 돛제단(27:1~8), ㉨ 성막뜰(27:9~19), ㉩ 기름(27:20~21), ㉪ 제사장의 옷(28:1~43),
 - ㉫ 제사장의 위임식(29:1~46), ㉬ 분향할 단(30:1~10),
 - ㉭ 생명의 속전(30:11~16),
 - ㉮ 물두멍(30:17~21), ㉯ 관유(30:22~33), ㉰ 향품(30:34~38), ㉱ 성막을 만드는 직공들(31:1~11)
- ㉲ 안식일의 표징(31:12~18)
- ③ 율법을 어긴 백성들(32:1~34:35)
 - ㉠ 백성들의 죄 : 금송아지(32:1~10), ㉡ 모세의 진노와 중보기도(32:11~35),
 - ㉢ 백성들의 회개(33:1~11), ㉣ 모세의 기도(33:12~23), ㉤ 두번째 언약 돌판(34:1~35)
- ④ 성막의 건축(35:1~40:38)

- ㉠ 백성에게 한 교훈(35:1~36:7), ㉡ 양장을 만듦(36:8~19), ㉢ 널판을 만듦(36:20~34),
㉣ 휘장들을 만듦(36:35~38), ㉤ 언약궤를 만듦(37:1~9), ㉥ 떡상을 만듦(37:10~16),
㉦ 등대를 만듦(37:17~24), ㉧ 분향 단을 만듦(37:25~29), ㉨ 놋제단을 만듦(38:1~7),
㉩ 물두멍을 만듦(38:8), ㉪ 성막뒀을 만듦(38:9~20), ㉫ 사용된 재료들(38:21~31),
㉬ 아론을 위한 성의를 만듦(39:1~31),
㉭ 모세의 확인(39:32~43)
㉮ 성막을 똑 바로 세움(40:1~33), ㉯ 성막을 덮은 여호와의 영광(40:34~38)

4. 레위기Leviticus, The Book of)

(1) 명칭

레위는 70인역 성경인 "레비티쿠스"(Leviticus), 또는 "류이티콘"(Leuitikon)을 번역한 것으로 "레위(Levites)인에게 속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각 권들의 제목은 본문의 첫 단어 또는 첫 귀절을 따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부르시니"라는 의미를 가진 "와이크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연결된 첨가된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사상을 전개하는 독립된 책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경건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기록하고 성스럽게 하는 제사의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직분이 기록되어 있고(7:1), 이들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저자

레위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흔히 이 다섯권의 책을 모세오경(펜타츠크, Pentateuch)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기록이 56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의 율법 조항들이 모세시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모세를 레위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18절에는 "제사장을 그 분 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생활 후 재건한 성전봉헌식의 절차적 기준을 레위기에서 찾았습니다. 레위는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규례를 기록한 모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질서있고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힘과 상당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가확립을 위해서 제도정비와 함께 제사규례를 명확히 하여야 했으며 이것을 전통적으로 기록에 남겨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와 함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남긴 모세는 BC. 1446~1406년 기간중 시내광야에서 레위기서를 문서로 남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3) 기록목적

성막봉헌을 완료한 출애굽기에 이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전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교제, 거룩한 제사의식과 성결의식을 가르쳐 주기위해 기록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제물과 제사는 장차 오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에는 보다 상세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죄와 노예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되었으며 또한 개인과 가족과 작은 부족에서 국가를 형성하는 대규모의 단일민족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성별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조성되었고, 그 경배의 규례와 양식과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전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때로 복잡하고 구조가 세밀해 보여도 이것은 사람이나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그 특별한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가야만 한다는 것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㉞ 대제사장(1:10) : 영원한 대제사장(히브리서2:17)
- ㉞ 제사와 제물
- ㉞ 번제(1:3) :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림
- ㉞ 소제(2:1) :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
- ㉞ 화목제(3:1) :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죽으심
- ㉞ 속죄제(4:2) :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
- ㉞ 속건제(5:14) :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심
- ㉞ 절기와 성일
- ㉞ 안식일(23:3) : 영원한 안식
- ㉞ 유월절(23:5) : 대속의 죽으심
- ㉞ 무교절(23:6) : 그리스도의 무죄, 성도의 성결
- ㉞ 초실절(23:10) : 처음 열매가 되심과 부활(고린도전서15:20~23)
- ㉞ 속죄일(23:27)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 ㉞ 초막절(23:34) :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

(4) 주제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역대상16:29)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성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인간세계에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을 나타내셨고, 성막을 지어 제사의 모든 규례조건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성결된 삶과 거룩한 제사의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방인들의 죽은 제사와 구별하여 산제사라고 명하였습니다. 레위기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메시아적 의미를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방인들의 관습속에서 살았던 과거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우고 새롭게 거듭나는 제사를 통하여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가는 한 시대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위기19:2)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제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사의 규례로서 죄사함을 말하고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1~10장). 우리의 거룩함은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순결함으로 제단과 화해하며 사람과 제사장이 각각 지켜야 할 규례를 통하여 약속이 실현되고, 절기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가나안땅에 들어갔을때에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11~27장).

(5) 내용

레위기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례들을 명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죄, 불결함, 거짓됨, 불성실, 악습을 제거함으로서 하나님과의 상실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들을 세밀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 예배생활, 사회생활, 윤리관, 경제생활, 등에 관한 규범을 레위기의 법으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는 길(1~17장)은 성막에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레위기에 규정된 제물(1~7장)과 규정된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8~10장)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과정에서 백성들의 준비된 성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11~15장). 특별히 대속죄일(16장)을 제정하여 타락한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제사드리는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17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18~27장)은 성결법(The Holiness Code) 제정으로 이루셨습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타 이방민족과는 구별된 성결된 삶이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18~25장) 이 율법의 순종여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저주 등 2개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26장) 27장에는 서원이라는 특별한 제도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만 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영적의미는 난해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규례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성결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아사셀의 광야에 버려진 속죄염소(Scapegoat)의 기이한 기록들이 난해함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사상은 성결(Holiness), 희생(Sacrifice), 속죄(Atonement)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성결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이방 풍습 등 지난 과거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세상과 죄와 이방풍습과 우상 등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결(Holiness)이라는 단어는 분리(Seperation)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제사의식과 규례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의 일체된 성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에는 "생명은 피에 있기에"(17:11) 반드시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의 희생제물로서 그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제물의 생명이 죄와 타락한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드려 진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에 있습니다 속죄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 한번으로 완전하게 자신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신 것입니다(로마서3장) 속죄의 의미는 죄와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원시적 희생이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백성들은 성결함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I. 절기와 성일

레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거룩한 숫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7이 등장하였습니다(23장,25장)

- ①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 되었으며,
- ②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하는 안식년이 되었고,
- ③ 7년이 7회 지난 50번째의 해는 희년으로 거룩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 ④ 유월절(유대종교력 1월14일)은 아빡월(Abib)의 두번째 7일인 제 14일 밤에 지켰으며,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열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름으로서 생명을 유지한 기념일입니다
- ⑤ 무교절(유대종교력 1월15일~21일)은 유월절 다음 7일동안 지냈으며,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는 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 ⑥ 오순절(칠칠절)은 곡식단을 흔드는 제사를 지낸 후 49일이 지난 50일째 거행 되었으며, 밀 추수의 첫소산을 봉헌하기 위한 기념일이었습니다
- ⑦ 제 7월 디스리 월(Tishri)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 3대 거룩한 절기로 인하여 신성시 되었으며 ⑧ 초막절은 7일동안 거행하고(디스리월15일부터 22일까지) 마지막 집회를 위하여 제 8일을 추가하였으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동안 생활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 ⑨ 나팔절은 유대종교력 7월1일로서 안식의 달을 맞이하여 봉헌하기 위한 기념일이었습니다
- ⑩ 속죄일은 유대종교력 7월10일로서 나라와 백성의 죄를 해마다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II. 레위기에 나타난 5대 희생제사

- ㉮ 번제(올라,1:1~17) : 가축중에서 소, 양, 염소의 수컷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완전하게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흡향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자기의 온전한 몸을 다 드려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 ㉮ 소제(민하,2:1~16) : 볶거나 찢은 햇곡식으로 고운 밀가루를 올리브 기름, 향, 소금과 함께 드리되 누룩과 꿀은 첨가해서 안되며 그 일부를 태워서 드리고 남은 것은 지성물로서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흡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화목제(제바흐 슬라뮌,3:1~17) : 가축중에서 흠없는 소, 양,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 가운데 내장과 기름기를 태워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흡향하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㉔ 속죄제(하타트,4:1~5:13) :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백성의 지도자는 흠없는 숫염소를 드리며, 일반백성은 흠없는 암양, 암염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고운 밀가루를 제사로 드리되 기름기를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와 고백의 제사입니다

㉕ 속건제(아삼,5:1~6:7) : 흠없는 숫양을 드리되 내장과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를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속건제는 하나님의 지성물이나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 하였을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로서, 남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규범에 관한 것을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6) 개요

레위기는 27장, 829절로 신약성경에 120회 인용되었으며 BC. 1446년의 기록입니다

I.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 제사(1:1~10:20)

① 제물을 통해서(1:1~7:38)

㉑ 번제(1:1~17)

㉒ 소제(2:1~16)

㉓ 화목제(3:1~17)

㉔ 속죄제(4:1~5:13)

㉕ 속건제(5:14~6:7)

㉖ 각 제사의 규례(6:8~7:38) :

㉗ 번제(6:8~13) ㉘ 소제(6:14~23) ㉙ 속죄제(6:24~30) ㉚ 속건제(7:1~10) ㉛ 화목제(7:11~38)

② 제사장을 통해서((8:1~10:20)

㉜ 제사장직의 위임식(8:1~36)

㉝ 제사장직의 취임식(9:1~24)

㉞ 제사장직을 더럽힌 나답과 아비후(10:1~20)

II. 하나님과의 동행 : 성화(11:1~27:34)

① 정결에 관한 율법(11:1~15:33)

㉟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11:1~47)

㊱ 출산한 여인(12:1~8)

- ㉞ 문둥병자(13:1~14:57) : ㉠ 문둥병의 구별(13:1~59) ㉡ 문둥병을 정결케 함(14:1~57)
- ㉟ 부정한 몸(15:1~33)
- ㊱ 속죄일에 관한 율법(16:1~34)
- ㊲ 준비(16:1~4)
- ㊳ 제물(16:5~28)
- ㊴ 교훈(16:29~34)
- ㊵ 희생 제사의 율법(17:1~16)
- ㊶ 백성들의 생활 규범(18:1~20:27)
- ㊷ 성생활(18:1~30)
- ㊸ 사회윤리(19:1~37)
- ㊹ 가증스런 범죄들(20:1~27)
- ㊺ 제사장들의 바른 행실(21:1~22:16)
- ㊻ 성물에 관한 율법(22:17~33)
- ㊼ 절기에 관한 율법(23:1~44)
- ㊽ 안식일(23:1~3)
- ㊾ 유월절과 무교절(23:4~8)
- ㊿ 초실절(23:9~14)
- ㄱ 오순절(23:15~22)
- ㄴ 나팔절(23:23~25)
- ㄷ 속죄일(23:26~32)
- ㄹ 초막절(23:33~44)
- ㄴ 정결한 기름, 진설병, 여호와와 이름의 모독하는 것에 대한 율법(24:1~23)
- ㄷ 안식년에 관한 율법(25:1~7)
- ㄹ 희년에 관한 율법(25:8~55)
- ㄴ 순종에 관한 율법(26:1~46)
- ㄷ 맹세와 십일조에 관한 율법(27:1~34)

5. 민수기(民數記,Liber Numeri,Book of Numbers)

(1) 명칭

히브리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의 "베미드바르"(Bemidebbar)를 책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서가 가지는 광야라는 지리적 배경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명은 70인역성경의 "숫자들"이라는 의미의 "아리트모이"(arithmoi)를 사용함으로써 본서의 주제인 인구조사를 책명에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2) 저자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흔히 이 다섯권의 책을 모세오경(펜타추크,Pentateuch)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만 모세의 언급이 없을 뿐 거의 모든 본문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가 그들이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는 기록이 80여회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행적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BC. 1446~1406년, 모세는 모압광야 생활속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어 민수기를 기록하며 후대에 남겨질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광야여정의 지리한 세월은 하나님의 시험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불순종의 습관에 대한 징계적 의미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선민으로서 삶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연단의 의미가 그 속에는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지난 과거의 불순종과의 단절을 결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2차에 걸친 인구조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1~4, 26장)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규례와 규범들을 상기시킴으로서, 신앙공동체로서의 거대한 이스라엘조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지인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이르기 까지 일어난 역사상 최대의 사건들을 집대성한 것이 출애굽기라면, 레위기는 출애굽 후 완성한 성막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와 생활규범, 그리고 법률의 집행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동하여 모압광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중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굽 이후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왜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백년의 노예생활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안은 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은 오랜 노예생활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어쩌면 이러한 모든 상처속에서 터져나온 울분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상태를 점검해 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는 과정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중요한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아직도 원망과 불평속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로 있다면 그는 불쌍하게도 가나안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거나 곡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생활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왜 수많은 제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제사의 경배 대상자가 누구인지? 점점 깨달아 가는 과정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속에서 겪게되는 일련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 뉘뻐(21:1~9) : 구속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 : 믿음으로 구원
- ㉮ 도피성(35:13~14) : 그리스도안에 있는 죄인의 안식처
- ㉮ 붉은 송아지(19장) : 그리스도의 희생
- ㉮ 발람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미리 봄(24:17)

(4) 주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9:17)을 중심으로 민수기의 실제 내용들은 인구조사보다 레위기서의 제사와 규례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1445년 당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인구를 1차 조사에서는 603,550명으로, 2차 조사에서는 601,730명으로 조사함으로써 고대근동지역의 국력과 위상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러 인

구조사를 실시하고(1~14장),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짐을 챙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지역인 모압평지에 도착하여 다시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였습니다(21~36장)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확고하였습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목도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그들 스스로에게 족쇄가 되어 가나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악을 행한 자들도 가나안의 문앞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28:20~45)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불평자들과 그를 동조하였던 지지자들에게겐 정탐 일수 40일에서 1일을 1년으로 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가나안을 악평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상황은 그들이 뱉어낸 말의 몇배로 보응을 받는 진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은혜로운 행위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이들은 분명 끊임없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일반백성(11:1)과 미리암과 아론(12:1)이 보여 준 불신과 불평,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백성들(14:2), 모세 자신의 실패(20:12), 우상 숭배(25:3)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역과 방황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5) 내용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아론과 미리암의 실수와 모세의 과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함으로써 인간의 한계성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드러내었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국가적, 조직적 질서를 강조하였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과 규례와 규범들을 다시 열거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선민 사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복적 요구는 가나안 거류민들의 이방풍습을 경계하고, 지난 과거의 인간생활을 통하여 인간은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진일보된 신앙관을 갖는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I. 구세대(1:1~10:10)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택한 백성을 향한 자비로움을 직접 경험한 출애굽 세대(구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인구조사실시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긴 여정속에서 질서를 유지하시려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전투수행능력자를 대상으로 각 지파별로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이들로 각각의 질서있는 진영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통일되고 일치되어 있었으며, 인구조사의 결과는 603,550명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세지파를 형성하여 성막을 지키고 수호하는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각 12지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을 중심으로 행진과 대열을 유지하며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1~4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강조한 것은 외적인 일체감과 대열의 일치성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개별적, 공동체적 성결성이었습니다(5~10장).

II. 과도기(10:11~25:18)

광야 40년,하나님의 축복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예신분으로 부터 찾은 평화가 그들을 인권중심의 사고로 몰아간 것일까요? 그들의 불평은 이제 습관처럼 일어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군과 관련된 반역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불신앙은 결국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지연하시거나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출애굽 세대가 광야 40년생활속에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신세대가 가나안 정복의 역사적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III. 신세대(26~36장)

광야 40년의 역사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출애굽 세대들은 갓은 노예생활과 수많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를 남겨 두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이면서 구세대의 절실한 꿈이었던 가나안 정복의 비전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신세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모압광야에 도착한 신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구조사와 더불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신세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주역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① 민수기의 연대추정(광야시대,BC)

㉞ 1445년 : ㉞ 1차 인구조사(1:2) ㉞ 시내광야 출발(10:12) ㉞ 가나안 정탐,보고(13장)

㉞ 1407년 : ㉞ 아론의 죽음(20:28) ㉞ 2차 인구조사(26:1~4) ㉞ 여호수아 후계지명(27:12~28)

㉞ 미디안 정복과 요단 동편 땅 분배(31:1~32:42)

(6) 개요

민수기는 36장, 1288절로 신약성경에 100회 인용되었으며 BC. 1445~1407년의 기록입니다

I. 시내 광야에서(1:1~10:10)

- ① 인구조사(1:1~4:49)
 - ㉞ 각 지파의 인구(1:1~54)
 - ㉞ 각 지파의 진과 행진의 순서(2:1~34)
 - ㉞ 레위지파의 위치(3:1~4:49)
- ② 이스라엘 민족의 성결(5:1~10:10)
 - ㉞ 부정케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5:1~31)
 - ㉞ 나실인의 서원을 함으로써(6:1~27)
 - ㉞ 족장의 재물을 통하여(7:1~89)
 - ㉞ 레위인을 성별함으로서(8:1~26)
 - ㉞ 유월절을 지킴으로서(9:1~14)
 - ㉞ 여호와와의 인도를 믿음으로서(9:15~10:10)

II. 가데스 바네아로의 행진(10:11~12:16)

- ① 출발(10:11~36)
- ② 불평의 시작(11:1~12:26)
 - ㉞ 백성의 불평 : 70인의 장로와 메추라기(11:1~35)
 - ㉞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 미리암의 문둥병(12:1~16)

III.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유숙(13:1~20:13)

- ① 여호와께 대한 거역(13:1~14:45)

- ㉓ 정탐군들의 탐지와 보고(13:1~33)
- ㉔ 백성의 소동과 심판(14:1~45)
- ② 여호와와의 지시(15:1~20:13)
- ㉓ 제물, 안식일 위반, 옷술에 관한 여러가지 법(15:1~41)
- ㉔ 반역한 고라의 멸망(16:1~50)
- 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 아론의 싹 난 지팡이(17:1~13)
- ㉔ 레위인의 직무와 봉사(18:1~32)
- ㉔ 붉은 암송아지 제사(19:1~22)
- ㉔ 모세의 죄(20:1~13)

IV. 모압으로의 행진(20:14~21:35)

- ① 에돔의 전도(20:14~22), ② 아론의 죽음(20:23~29)
- ③ 아랏의 정복(21:1~3)
- ④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 뇧뱌(21:4~9)
- ⑤ 시혼과 옥의 정복(21:10~35)

V. 모압 광야에서(22:1~36:13)

- 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청함(22:1~41)
- ②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23:1~24:25)
- ③ 바알 브올을 섬기는 이스라엘(25:1~18)
- ④ 새 세대의 인구조사(26:1~65)
- ⑤ 백성을 향한 지시(27:1~30:16)
- ㉓ 상속법(27:1~11)
- ㉔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27:12~23)
- ㉔ 제사와 절기의 규칙(28:1~29:40)
- ㉔ 서원의 법(30:1~16)
- ⑥ 미디안을 쳐 부숨(31:3~54)
- ⑦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정착함(32:1~42)
- ⑧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행을 회상함(33:1~49)
- ⑨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시(33:50~56)
- ⑩ 가나안 땅의 분할(34:1~36:13)
- ㉓ 경계(34:1~12) ㉔ 땅의 분배(34:13~29)
- ㉔ 레위인의 성읍(35:1~8) ㉔ 도피성들(35:9~34)
- ㉔ 여자의 유업(36:1~13)

6. 신명기(申命記,Liber Deuteronomii,Book of Deuteronomy)

(1) 명칭

히브리성경에서는 "말씀들"이라는 의미의 "데바림"으로 본문 첫구절을 제목으로 하는 히브리인들의 관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70인역(LXX)은 17장18절의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라는 구절을 잘못 이해하여 "두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의 "듀테로노미온"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개역성경의 "신명기"는 70인역의 제목을 의역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서론은 "이는 모세가~선포한 말씀이니라"(1:1)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은 한결같이 문헌의 저자와 주제를 밝히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관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 저자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함께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으로 우리는 흔히 이 다섯권의 책을 모세오경(펜타츠크,Pentateuch)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기록연대와 저자에 관한 논쟁은 모세오경의 연구 뿐만 아니라 구약의 문학 비평 자체와 구약신학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마지막 메세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31장9절과 24절에는 모세가 율법을 직접 말하고 직접 기록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서 신명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문학의 전통적인 작품들에는 주제를 구성하는 한 인물의 사망을 기록하는 것을 관례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호수아 또는 그와 버금가는 최측근 가운데 누군가가 모세의 글에 그의 죽음을 첨가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그 시기는 BC. 1406년경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3) 기록목적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하는 신세대는 출애굽 세대인 구세대와 달리 율법을 주도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배우고 몸과 마음에 익혀야 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들이 정복하는 가나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존재하여 있고 확고한 신앙이 없이는 이방인들과 구별없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세

대와 마찬가지로 죄악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 낸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역으로만 남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세대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율법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생활의 여정과 모세의 생애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이 망라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함으로서 출애굽에서 모압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십계명(5:6~21)과 쉼(6:4~9), 그리고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계심(13:1~5:18)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신학적 체계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 외에 팔레스타인 언약(29~30장) 등 고대근동 사회의 중요한 자료들을 함께 수록함으로서 신명기는 역사적, 고고학적, 고문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책이었으며, 초대교회 사도들이 80여회를 언급하는 등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기도 하였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㉞ 모세(18:15~19) : 모세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를 바라 봅니다

㉟ 여호수아(34:9~11)

(4) 주제

"언약갱신", "하나님의 신실하심"(6:4~5)을 주제로 하는 신명기는,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광야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라"와 "하지말라"는 두가지 율법에 의한 경건생활의 유지였습니다(1~11장). 이러한 경건성의 유지는 가나안이라는 비전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거류민들의 땅인 가나안 정복 이후 그들과 구별된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앙을 반석위에 올려 놓고 확고한 믿음으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5) 내용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송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광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3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후 2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들이 40년을 회고하며 모세가 다시한번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설교는 애굽의 노예생활과 출애굽의 과정과 현재에 이르

기 까지 일어난 여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광야세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세대는 그들이 살았던 고통의 날들에 비교하여 하나님앞에서도 죄악된 불순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음으로서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중차대한 과제는 이제 신세대들에게 남겨졌습니다. 모세는 신세대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첫번째 설교가 과거를 회상한 것이라면, 두번째 설교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고, 세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지하고 교훈하였습니다.

모세의 첫번째 설교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1:1~4:43). 요셉에 의하여 애굽으로 집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랜 노예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의식과 상처로 얼룩진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그대로 보여 주시고,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함으로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거침없는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즉, 불신앙에 대한 도덕적 심판과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면서,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돌이킬 수 없는 채찍과 재앙이 있음을 교훈하였습니다.

모세의 두번째 설교는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4:44~26:19).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율법과 규례들을 종류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러한 법전의 양식들이 신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계승된다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이 지녀야 할 순수성의 척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선을 그어 명확히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의무(5~11장)를 시작으로 희생제사, 십일조, 절기에 관한 이스라엘의 의식적 의무(12:1~16:17), 그리고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지도자의 규례(16:18~18:22), 종교법, 재산법, 형법, 전쟁법, 도덕법 등 인간상호간의 의무와 책임(19:1~26:19)이 차례로 나열됨으로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앞에서 지켜야 할 대원칙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세번째 설교는 죽음을 목전에 둔 자신이 자신의 생을 마감한 후에 전개될 역사적 예언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27~34장).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래에 경험할 축복과 저주, 그리고 포로생활과 귀환을 예언하며 하나님앞에서 언제나 온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세의 세번째 설교에는 모세의 기록이 아닌 내용들도 일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 임명과 모세의 고별사, 그리고 모세의 장사 등의 역사적 사실이 후반부에 함께 기록됨으로서, 많은 신학자들은 훗날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① 신명기에 기록된 8개의 산과 역사적 사건들

해발 845m의 그리심산(11:29,27:12)은 세겜골짜기 남쪽으로 사마리아성 동남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모세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산입니다

해발 802m의 느보산(32:49,34:1)은 사해 북동쪽 모압고원에 위치하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 보기위해 올라간 산이었습니다 느보산 동쪽에 있는 해발 700m의 비스가 산(3:27,34:1~5)은 사해 동쪽 모압고원에 위치하며 요단강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죽음을 맞이한 산이었습니다 사해 남쪽 아라바 평지 동편에 위치한 세일산(1:2,2:1~5)은 험준한 지형으로 에돔 국가의 서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족속들이 그곳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거주하고 있던 산이었습니다 해발 940m의 에발산(11:29,27:4)은 세겜 골짜기 북방향, 그리심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세가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산이었습니다 해발 2815m의 헤르몬산(3:8)은 팔레스타인 북방에 위치하며 산꼭대기의 눈이 녹아내려 요단강의 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경계선을 이루는 주요 경계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불리우는 해발 2291m의 호렙산(4:10~15:5)은 시내반도 남서쪽에 위치하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었습니다 해발 717m의 호르산(32:50)은 가데스 바네아 북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모세의 형 아론이 장사를 지낸 곳이었습니다

(6) 개요

신명기는 34장, 959절로 신약성경에 208회 인용되었으며 BC. 1407?년의 기록입니다

I. 서론(1:1~5)

II. 광야 생활 40년 역사의 요약(1:6~4:43)

- ① 시내 광야에서(1:6~18)
- ② 가데스 바네아에서(1:19~46)
- ③ 가데스에서 모압으로(2:1~3:29)
- ㉠ 요단 동편으로의 행진(2:1~23)
- ㉡ 요단 동편의 정복(2:24~3:11)
- ㉢ 요단 동편땅의 분할(3:12~29)

- ④ 모압에서의 이스라엘(4:1~43)
- ㉓ 여호와 경배의 지시(4:1~40)
- ㉔ 도피성들(4:41~43)

Ⅲ.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에 대략(4:44~26:19)

- ① 여호와를 섬기는 법(4:44~12:32)
 - ㉓ 십계명(4:44~5:33)
 - ㉔ 여호와 경외(6:1~25)
 - ㉕ 가나안 정복 명령(7:1~26)
 - ㉖ 여호와의 축복을 기억할 것(8:1~10:11)
 - ㉗ 여호와를 의뢰함(10:12~11:32)
 - ㉘ 유일한 중앙 성소(12:1~32)
- ② 거짓 선지자에 관한 법(13:1~18)
- ③ 음식에 관한 법(14:1~21)
- ④ 십일조에 관한 법(14:22~29)
- ⑤ 안식년에 관한 법(15:1~23)
- ⑥ 절기에 관한 법(16:1~17)
- ⑦ 지도자들에 관한 법(16:18~18:22)
 - ㉓ 사사들(16:18~17:13)
 - ㉔ 왕들(17:14~20)
 - ㉕ 레위인들(18:1~8)
 - ㉖ 거짓 종교인들(18:9~14)
 - ㉗ 메시아(18:15~19)
 - ㉘ 선지자들(18:20~22)
- ⑧ 사회 생활에 관한 법(19:1~26:19)
 - ㉓ 살인자의 도피성들(19:1~13)
 - ㉔ 경계표(19:14)
 - ㉕ 증인(19:15~21)
 - ㉖ 전투(20:1~20)
 - ㉗ 살인자(21:1~9)
 - ㉘ 결혼과 가족생활(21:10~22:30)
 - ㉙ 총회(23:1~18)
 - ㉚ 약자의 보호(23:19~25:19)
 - ㉛ 첫 열매의 봉헌(26:1~19)

Ⅳ.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27:1~30:20)

- ① 준비 예식(27:1~26)
- ② 축복의 약속(28:1~14)
- ③ 저주의 경고(28:15~68)
- ④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29:1~30:20)

V. 결론(31:1~34:12)

- ① 모세가 받은 지시(31:1~29)
- ② 모세의 노래(31:30~32:47)
- ③ 모세의 축복(32:48~33:29)
- ④ 모세의 죽음(34:1~12)

7. 여호수아(Liber Josuae, Book of Joshua)

(1) 명칭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어떤 학자는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여호수아서를 포함하여 모세육경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서"를 공식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성경과 그리스성경에서도 책명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예언서적 성격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첫번째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저자

사사 옷니엘(BC. 1374~1334)로 부터 두로가 시돈을 지배하던 기원전 12세기 이전에 이 책의 대부분을 여호수아가 기록하였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헤브론 정복(15:13~14), 옷니엘의 드빌 정복(15:15~19), 단 지파의 레센 정복(19:17) 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부분은 다른 기자가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구산으로 부터 압박을 받기 전, 또는 옷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사사기3:3~11).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의 목격자였습니다(5:16). 라합은 여호수아의 동시대 여성으로 기생이었습니다(6:25). 베니게(페니키아)사람들을 고대 명칭인 "시돈사람"으로 칭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여호수아서의 기록연대가 BC.12세기 이전인 것 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13:46).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생하여 바로왕의 군대에서 군복무를 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비딴에서 일어난 아말렉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였던 역량있는 지도자였습니다(출애굽기17:8~16).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해에 모세의 시종으로 그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습니다(출애굽기24:13).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다른 11명과 함께 가나안 정탐군으로 활동하였으며 정복을 의심하는 열명의 보고를 반대하며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였습니다(민수기14:6~9). 모세가 죽기전에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었으며(민수기27:18~23)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음과 용기와 순종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소유 하였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작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3) 기록목적

여호수아서에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죄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언약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된 땅으로 인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가나안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으로 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는 성도들의 영적투쟁과 승리와 축복의 체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에베소서1:3). 히브리서 4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취하였던 안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전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㉓ 여호수아 :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로마서8:2~4)
- ㉔ 여호와와 군대장관(5:13~15) :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고린도후서2:14)
- ㉕ 라합의 창에 드리운 붉은 줄(2:18) : 보혈의 구원(히브리서9:19~22)
- ㉖ 그리심산, 에발산(8:30) : 저주와 축복을 한 산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요한복음3:17~18)

(4) 주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의 승리"(21:43~45)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각 지파에 따른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의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신세대들에 대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에 대한 반복은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우상으로 부터 단절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가나안에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은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도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암으로 성장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언약과 함께 이어져 오는 규례의 절대성이었습니다.

(5) 내용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와 그 문맥을 함께하며 연결되는 뒷페이지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과 거류민들을 정복하기까지의 치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2장에서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리고 있으며(1:1~12:24), 13~2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13:1~24:33)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선 여리고성은 거대한 공격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늘 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군은 가나안 정복작전의 정찰임무를 띠고 적진 깊숙히 들어갔습니다. 정탐군 정보의 기밀은 누군가의 첩보에 의해 유출되었고, 이들은 적진 기생 라합의 집에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BC. 1400년경, 여리고성 안에서 거주하였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은닉한 댓가로 여리고성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훗날, 유다지파의 살몬과 혼인하여 보아스를 낳음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1~24)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겨우 돌아온 12명의 보고서는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보고에 10명이 적극 서명하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사람 뿐이었습니다. 양극단을 이루는 두 개의 보고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머지 10명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죽음의 땅으로 이어지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러한 정탐행위 그 자체도 불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민수기14장).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불신앙의 요소가 암덩어리처럼 숨어서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정탐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정복전쟁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전열을 정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도덕적 탁월함도 함께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요단강 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광야와 가나안을 단절시켰던 요단의 물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회복의 길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상실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 되었다는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3:1~17)

여리고성 정복작전은 하나님의 작전계획으로 여호수아가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서쪽 8km 지점으로 둘레가 0.6km, 넓이가 2만km² 정도 되는 소읍(小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대평원 서부의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서 이중 성벽을 두른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선택은 참으로 유치한 방법이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바퀴씩 6일동안 침묵속

에 돈 뒤 7일째에는 일곱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 여리고성 함락의 전부였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때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하던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대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거듭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잃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역사에 참여시킨 것이었으며, 이들의 믿음에 의해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6:1~27)

그러나 이어진 아이성전투의 패배는 탐욕에 눈이 먼 아간의 범죄와 함께 이스라엘의 교만이 빚은 실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고발하고 그에 관한 처벌을 엄중하게 다스렸으며, 이로서 아이성전투는 승리로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7:1~8:29). 그 후, 기브온 막게다(10:1~28), 림나(10:29~30), 라기스(10:31~33), 에글론(10:34~35), 헤브론(10:36~37), 드빌(10:38~39), 메롬(11:1~15) 등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사무엘상17:47)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피하게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실책과 오류를통하여 마귀로 하여금 그 어떤 달콤한 유혹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에게 남은 미정복 대상자들에 대한 정복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공정한 땅의 분배라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다지파의 땅(14:6~15:63)을 필두로 하여 에브라임 지파(16:1~10), 므낫세 반 지파(17:1~18), 베냐민 지파(18:11~28), 시므온 지파(19:1~9), 스불론 지파(19:10~16), 잇사갈 지파(19:17~23), 아셀 지파(19:24~31), 납달리 지파(19:32~39), 단 지파의 땅(19:32~39)이 차례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기업(19:49~51)과 범죄자들의 도피성들(20:1~9)과 레위 지파의 성읍들(21:1~45)이 정해지는 은혜로운 분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열의 선민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토양을 쌓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 땅 거류민들과의 구별된 삶이 될 것이었습니다.

① 여호수아서의 연대추정(BC)

- ㉓ 1406년 :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함(신명기3:28)
- ㉔ 1405년 : 요단강 도하(4:1), 여리고성 정복(6:1~21), 가나안 동맹군 격파(10:1~27)
- ㉕ 1400년 : 가나안 정복완료와 땅 분배(11:23~21:45)

㉠ 1390년 : 여호수아의 죽음(24:29)

(6) 개요

여호수아서는 24장, 685절로 신약성경에 22회 인용되었으며 BC. 1406~1390년의 기록입니다

I.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1:1~5:15)

- ①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1:1~9)
- ② 여호수아가 백성을 예비시킴(1:10~18)
- ③ 여리고 정탐 : 라합과 두 정탐군(2:1~24)
- ④ 요단강을 건넌(3:1~17)
- ⑤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돌무덤(4:1~24)
- ⑥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5:1~12)
- ⑦ 여호와와 군대 장관(5:13~15)

II. 가나안 정복(6:1~12:24)

- ① 중부지대(6:1~8:35)
 - ㉠ 여리고 함락(6:1~27)
 - ㉡ 인간의 죄로 인한 아이성 싸움의 패배(7:1~26)
 - ㉢ 아이성 함락(8:1~29)
 - ㉣ 에발산에 단을 쌓음(8:30~35)
- ② 남부지방(9:1~10:43)
 - ㉤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9:1~27)
 - ㉥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함(10:1~43)
- ③ 북부지방(11:1~15)
- ④ 정복사업의 요약(11:16~12:24)

III. 가나안 땅의 지역 분할(13:1~24:33)

- ① 여호수아가 받은 지시(13:1~7)
- ② 요단 동편 땅의 분할(13:8~33)
- ③ 가나안 땅의 분할(14:1~19:51)
 - ㉦ 머리말(14:1~5)
 - ㉧ 유다지파의 땅(14:6~15:63)

- ㉔ 에브라임 지파의 땅(16:1~10)
- ㉕ 므낫세 반 지파의 땅(17:1~18)
- ㉖ 남은 땅의 지도 작성(18:1~10)
- ㉗ 베냐민 지파의 땅(18:11~28)
- ㉘ 시므온 지파의 땅(19:1~9)
- ㉙ 스불론 지파의 땅(19:10~16)
- ㉚ 잇사갈 지파의 땅(19:17~23)
- ㉛ 아셀 지파의 땅(19:24~31)
- ㉜ 납달리 지파의 땅(19:32~39)
- ㉝ 단 지파의 땅(19:32~39)
- ㉞ 여호수아의 기업(19:49~51)
- ④ 도피성들(20:1~9)
- ⑤ 레위 지파의 성읍들(21:1~45)
- ⑥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22:1~24:28)
- ㉟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22:1~34)
- ㊱ 지도자들에게(23:1~16)
- ㊲ 백성들에게(24:1~28)
- ⑦ 여호수아의 죽음(24:29~33)

8. 사사기(士師記,Liber Judicum,Book of Judges)

(1) 명칭

사사기는 여호수아로 부터 사무엘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로마카톨릭에서는 "판관기"(判官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쇼페트"의 복수형인 "쇼페팀"(Shofetim)으로 사사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사후로 부터 왕정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과도기 체제속에서 이방민족의 압제로 부터 민족을 구원하였던 지도자들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쇼페트"은 영어의 "Judge"(심판자)와 비교하였을때 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카르타즈(Charthage)와 우가릿(Ugarit)문서에는 "쇼페트"이 지방판사 또는 국가의 수뇌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나안 문헌에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재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정시대와 구별되는 특징과 백성들의 반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는 선민사상의 고착화와 동시에 왕에 대한 반감도 있었습니다(사무엘상8장)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따라 권능을 행하며 군사와 정치에 관여하였습니다 사사기11장27절에는 하나님을 "하스쇼페트"이라고 소개하고 있듯이 "심판의 여호와"는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 저자

탈무드와 초대교회의 전승에 기초한 일부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를 기록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구약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저자 또한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사기의 기록연대는 실로의 멸망이 전제되어 있으며(18:31),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17:6)는 기록으로 보아 사사시대 이후인 사울과 다윗왕이 있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부스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1:21) 다윗이 여부스족을 축출하기 이전의 시기로 보는 정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사기의 기록연대는 BC. 1050~1000년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회개를 위하여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죄와 그로 인한 징계적 고통, 간구와 용서, 구원의 역사가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란 "쇼페팀"(Shofetim)으로 재판자라는 의미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요소가 더 많이 함축되어 있는 단

어입니다 사사들은 전쟁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여 로마카톨릭에서는 "판관기"(判官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리로 수행할 통로자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사사가 담당하였으나 사사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서 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라는 쳇바퀴를 반복적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㉔ 사사(2:18) : 통치자, 구원자, 재판관 : 그리스도의 신분예표, 왕정준비단계로 영원하신 왕의 필요성
- ㉕ 여호와 샬롬(6:24) : 주는 우리의 평안,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 ㉖ 감람나무(9:7) :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자(로마서11:24,요한계시록11:4)
- ㉗ 여호와와 사사(2:1)

(4) 주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후에 등장한 350년간의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알려질 만큼 죄악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21:25)**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여호와를 부인하며, 하나님은 이들의 패악을 징계하거나 주변국의 손에 넘겨주어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이르기 까지 마치 두개의 바톤을 이어가듯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사사시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사이며 갈렙의 조카인 웃니엘(3:5~8), 왼손잡이 사사로서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친 에훗(3:12~14), 여자 사사로서 바락과 협력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드보라(4:1~3), 300명의 용사로 135,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파한 기드온(6:1~10), 기생의 아들로써 암몬족속을 물리친 입다(10:6~18), 나실인으로서 초인적인 힘을 소유하며 블레셋 족속을 물리친 삼손(13:1)에 이르기 까지 12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패역함을 반복하였습니다(21:5)

(5) 내용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전에 없던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 기쁨, 믿음, 자유, 승리와 성장이라는 진보적 태도라면, 사사기를 덮고 있는 이슈들은 눈물, 현실주의, 부린, 패배, 타락의 불신앙적 태도

였습니다 350년에 걸쳐서 일어난 반복적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에 악함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그에 버금가는 지도자나 영적 지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아니며,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도 아닌 사사들이 나타나 빈번한 전쟁의 최고 사령관과 일상생활속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재판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뒤덮고 있는 죄악의 습관은 이제 그 누구도 멈출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사이며 갈렙의 조카인 웃니엘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요새지를 정복하며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으로 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3:7~11) 위대한 베냐민의 후손으로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3:12~30) 작은 사사인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지배에서 구원하였습니다(3:31~5:6) 여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는 그녀의 군대장관인 바락과 협력하여 기손강 전투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격퇴하고 승리로 이끌어 냈습니다(4:1~24) 용사이며 사사인 기드온은 300명의 정예용사들과 함께 135,000명에 이르는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격퇴시키며 대승을 이끌어 냈습니다(6~8장) 도도의 손자이며 부아의 아들 돌라 사사가 23년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뒤를 이어 길르앗 사람 야일이 30명의 아들을 낳고, 30개의 성읍을 소유하였습니다(10:1~5) 기생의 아들 입다가 사사가 되어 암몬 족속을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나 경솔한 서원으로 외통 딸을 제물로 바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10:6~12:7)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되어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을 두었습니다(12:8~10) 스불론 지파의 엘론과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둔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12:11~15) 나실인으로서 사사였던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소유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덕성과 정욕에 약하였던 삼손은 블레셋 족속의 이방신전을 무너뜨리며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13~16장)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행위는 350년간 반복되는 일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의 패역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은 그 때 뿐, 그들의 죄악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였고, 완전히 소멸시키는데는 주저함과 망설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패역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속으로 끊임없이 빨려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속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는 350년의 사사시대를 끝낸 시점에서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에는 왕의 제도가 탄생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① 연대추정(BC)

1237년 : 드보라와 바락(5~6장)

1191년 : 기드온(6~8장)

1150년 : 룯(룯기)

1107년 : 엘리의 사역(사무엘상1~4장)

1087년 : 입다(11~12장)

1069년 : 삼손(13~16장)

1067년 : 사무엘의 사역(사무엘상1~8장)

1060년 :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 찾음(사무엘상4:1~7:2)

(6) 개요

사사기는 21장, 618절로 신약성경에 14회 인용되었으며 BC. 1390~1055년의 기록입니다

I. 사사시대의 배경(1:1~3:6)

① 정치적 배경(1:1~3:6)

② 영적 배경(2:1~3:6)

II. 사사시대의 역사(3:7~16:31)

① 메소보다미아의 압제와 웃니엘의 구원(3:7~11)

② 모압의 압제와 에훗의 구원(3:12~30)

③ 블레셋을 이긴 삼갈(3:31)

④ 가나안 족속의 압제 및 드보라와 바락의 구원(4:1~5:31)

㉠ 드보라와 바락의 행적(4:1~24)

㉡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5:1~31)

⑤ 미디안의 압제와 기드온의 구원(6:1~8:35)

㉢ 기드온의 소명(6:1~40)

㉣ 기드온의 승리(7:1~8:35)

⑥ 폭군 아비멜렉(9:1~57)

⑦ 도라의 사사직(10:1~2)

⑧ 야일의 사사직(10:3~5)

⑨ 암몬의 압제와 입다의 구원(10:6~12:7)

⑩ 입산의 사사직(12:8~10)

- ⑪ 엘론의 사사직(12:11~12)
- ⑫ 압돈의 사사직(12:13~15)
- ⑬ 블레셋의 압제와 삼손의 행적(13:1~16:31)
- ㉮ 삼손의 수태 예언과 그 출생(13:1~25)
- ㉮ 삼손의 결혼(14:1~20)
- ㉮ 삼손의 무공(15:1~20)
- ㉮ 삼손의 최후(16:1~31)

Ⅲ. 사사시대의 혼란(17:1~21:25)

- ① 미가의 단 지파의 이동(17:1~18:31)
- ㉮ 미가와 그의 제사장(17:1~13)
- ㉮ 단 지파의 이동(18:1~31)
- ② 베냐민 지파의 변란(19:1~21:25)
- ㉮ 동족 상잔의 원인(19:1~20:14)
- ㉮ 전쟁의 과정(20:15~48)
- ㉮ 전쟁의 결과(21:1~25)

9. 룯기(Liber Ruth)

(1) 명칭

룯기의 제목은 이 책의 주인공인 룯(여자친구)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성경의 원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모압여인이었던 룯이 히브리인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타국땅인 베들레헴까지 믿고 따라갔습니다. 축복을 받은 룯은 보아스의 아내로서 다윗의 조모가 되는 등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2) 저자

탈무드와 유대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권과 사사기, 그리고 룯기를 기록하였다고 전하고 있지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나 문헌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연대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파이퍼(R.Pfeiffer)는 BC. 4세기경을 주장하고 일부는 바벨론 포로생활 직전으로 추측하지만, 다윗 시대로 보는 영(E.Young)의 견해가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들은 BC. 12세기 말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오랜 세월동안 룯기의 기록은 전해지거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룯의 족보의 내용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룯기가 다윗시대에 기록되어졌다는 설이 더욱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3) 기록목적

모압사람으로서 이방여인인 룯이 언약백성이 됨과 동시에 메시아 혈통의 일원이 되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룯기서에는 사사기에서 보여주었던 불신앙의 반복적 학습과 전투적 생애와는 전혀 다른 남편을 잃은 두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선한 마음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이고 순결한 사랑이 결국 믿음의 승리를 성취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룯기 전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룯기에서는 추수의 내용과 친족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결혼 풍습 등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㉞ 보아스의 혈연관계(3:9) :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녀

- ㉠ 보아스의 자원(3:12) :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원
- ㉡ 보아스와 룯의 혼인(4장) :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린도전서11:2)
- ㉢ 나오미와 룯은 성도의 옛 모습

(4) 주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룯에게 이룬 축복"(4:14)

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작은 스토리였습니다. 나오미의 슬픔과 함께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던 룯이 이삭줍기를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하여 새로운 사랑의 첫걸음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하나의 소설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 내용

룯기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불신앙과 퇴폐풍조가 만연한 영적 암흑기에서 발견한 룯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소설같은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동방박사와 같이 암흑속에서 빛나는 비전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여인으로서 모압사람이었던 룯이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순결한 사랑을 나타냄으로서 "헌숙한 여인"의 표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역함과 배교행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오랜 기근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엘리멜렉 일가는 일시적인 피난책으로 모압으로 이주하였지만 그곳에서의 환경은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중에 룯의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들에 의해 이루어진 족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망이었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옆친데 뉘친격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오미와 두 자부는 이제 각자의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귀환을 결심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각자의 삶과 인생을 찾아 떠날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지만 오르바와 달리 룯은 자신의 고향인 모압과 사상과 종교와 관습을 모두 버리고 시모인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압에서 사해를 우회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룯을 기다리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룯은 생계를 위해 들에서 이삭줍기를 하였고, 사랑과 정성과 존경심으로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이삭줍기를 하던 중, 하루는 룯의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의 특별한 호의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1~2장). 운명적 사랑은 이렇게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오는 것일까요? 룯의 순

종심과 보아스의 신앙인격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동시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삶을 통하여 그속에 늘 묻어나 있었습니다. 룯과의 혼인에 있어서도 보아스가 가장 중심적으로 보았던 것이 룯의 신앙이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룯은 궁핍함에서 부요함으로, 암흑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변화된 삶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룯은 보아스와 함께 다윗의 조모가 되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스라엘 또한 다윗의 절대적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태평한 강국으로 건설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과 불변의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룯기는 에스더와 함께 여성의 이름을 책 이름으로 하는 두 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살았고, 룯은 모압사람으로 이방여인이었지만 유대인들속에서 살았습니다. 룯은 유대인과 결혼하였고,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룯은 다른 세명의 특이한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6) 개요

룯기는 4장, 84절로 신약성경에 6회 인용되었으며 BC. 1300?년의 기록입니다.

I. 룯의 결심(1:1~22)

- ① 룯의 배경(1:1~5)
- ② 룯의 선택(1:6~18)
- ③ 베들레헴에 돌아온 룯(1:19~22)

II. 룯의 경험(2:1~23)

- ① 이삭을 주움(2:1~3)
- ② 이삭 줍기의 결과(2:4~17)
- ㉞ 보아스가 룯을 만남(2:4~7)
- ㉞ 보아스가 룯을 보호함(2:8~13)
- ㉞ 보아스가 룯에게 공급함(2:14~17)
- ③ 이삭 줍기의 보고(2:18~23)

Ⅲ. 룻의 호소(3:1~18)

- ① 나오미의 권고(3:1~5)
- ② 룻의 실행(3:6~9)
- ③ 보아스의 동의(3:10~18)

Ⅳ. 룻의 상급(4:1~22)

- ① 선한 남편(4:1~12)
- ② 한 아들(4:13~17)
- ③ 예수의 조상(4:18~22)

10. 사무엘 상서(Samuel, The First Book of)

(1) 명칭

사무엘 상,하권은 열왕기 상,하권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70인역성경(LXX)에서 사무엘서를 두권의 책으로 분리하였으며 왕국기 I과 II(Books of the Kingdoms)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에서 시작된 역사가 열왕기에서도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열왕기서를 왕국기 III,IV권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 제롬이 왕국기 I~IV권을 열왕기 I~IV권으로 개칭하였고, 별게이트 성경에서는 다시 I~II를 사무엘서로, III~IV를 열왕기서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517년, 다니엘 봄버그가 히브리성경을 개정 두권으로 인쇄하면서 부터 정착되었습니다 책명을 사무엘서라고 한 것은 본서의 중심인물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 저자

사무엘 상,하권의 기록연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BC. 1000년경에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950~9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다른 일설에서는 솔로몬 사후 분열왕국 초기(11:8,17:52,18:16)인 BC. 930년 이후로 보는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 또는 선지자로 재직하였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궁중생활 등 사무엘 상권 후반부와 하권은 아비아달이 기록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출신으로 문자를 잘 이해하였던 아비아달은 다윗의 망명생활을 동행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3) 기록목적

언약의 백성이 단일한 정체성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록된 사무엘 상권은 개개인의 인격보다는 민족적 인격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12:13~14) 사무엘 상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과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된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선민적 사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을 그대로 성취시킨다는 신적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㉓ 사무엘 : 사사, 제사장, 선지자

㉔ 다윗(13:14) : 영원한 왕, 선한 목자, 만왕의 왕

(4) 주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18:7)은 신정체제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이어지는 전환기의 출발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이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으로 탄생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1~2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초대왕으로 임명한 이스라엘은 다윗의 출생과 더불어 이미 기울어져 가는 심판대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은 권력의 탐욕에 이미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영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보는 세상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하여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은 모든 중심을 잃은채 실수와 범주를 반복하고 있었으며(12~15장), 마지막에는 엔돌의 무녀를 통해 사무엘의 혼령을 부르는 패악을 서슴치 않았습니다(28:3~25).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기름부음은 다윗에게로 넘어간 이후였습니다(16:1~13).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다 하였지만, 다윗은 두번의 완벽한 기회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왕을 해하는 우를 결코 범하지 않았습니다(24:1~22, 26:1~25). 사울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수도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과의 변함없는 우정을 통하여 그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신앙의 동반자상의 모델을 보여 주었습니다.

(5) 내용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사사로 소명을 받은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통치시대를 마감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Monarchy)로의 급격한 변화를 중심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정치는 이방국가들의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신정적 군주제로서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한 첫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로 끝난 사울왕의 왕정제도를 다시 신정제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함께 등장시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 조명함으로써 독자가 그것을 교훈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가 사사와 제사장을 겸직하고 있었던 사사시대의 말기는 사회적 혼란과 부패가 만연한 시기였습니다. 한나의 서원기도로 탄생한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3:1), 선지자로서의 신분을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3:19~21). 이 시기에 엘

리 제사장 두 아들들의 사악한 패역함으로 실로(Shiloh)의 성소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4:1~11).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아들의 목숨도 잃고 제사장제도도 사멸하는 듯 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으로 부터 떠나버렸습니다(이가봇(영광이 없다), 4:21).

이러한 참담한 상황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 선지자로서 사역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도행전4:24).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적 사역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 종교적으로 회복되어 갔으며, 법궤의 귀환과 함께 블레셋 군대도 축출되었습니다(7:3~17). 세월이 흐른 후 사무엘이 노쇠하여 기력을 소진하자 그를 대신하던 아들들이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부국강병으로 키워낼 육적 리더자로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8:5~20).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기대하였던 이스라엘의 영적무지는 사울왕이라는 인간적, 인위적, 비신앙적, 탐욕적 도구를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왕을 요구하던 백성들의 동기도 순수하지 않았습니다(8:5). 순진하고 준수하였던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볼때 좋은 출발이 되었습니다(9~11장). 그 만큼 백성들의 기대와 꿈도 컸습니다. 그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 얼마가지 않아 바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 타락한 길로 선회하였습니다(12장). 사울은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며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무까지 수행한 일탈행위를 가속화 하였습니다(13장). 물론 사무엘 선지자는 늦어지고 백성들의 원성은 극에 달하여 사울에게 조바심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제물의 제사를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 일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맹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으나 모두 죽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불복종함으로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15:22~29).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것을 선언까지 함으로서 사울왕의 실질적 권한은 이미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왕권제도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대왕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지목하였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그를 찾아 기름을 붓고 다윗을 2대왕으로 축복할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려온 다윗이 사무엘로 부터 기름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후, 목동일을 그만 두고 사울왕궁의 하급관료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16:14~23).

다윗에게 첫번째 과제가 주어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양제국으로서 나름대로 힘과 권력을 가진 블레셋 나라와 접경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 접경지역에서 대전쟁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자원하고 나선 이스라엘 군대의 복병은 그 누구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은 칼과 창과 방패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목장에서 늑대와 짐승들로 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돌 다섯개로 나아 간 것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의 절대적인 패배로 끝날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전쟁에서 승리자는 어이없게도 다윗이 되었습니다(17장). 이 전쟁에서 우월적 지배력을 갖고 나섰던 블레셋 군대는 한순간에 궤멸하고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말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암시하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하여 패배자가 된 것은 블레셋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의 충신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은 오히려 사울로 부터 견제를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18장). 사울의 질투는 다윗의 심장부로 칼끝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의 노래는 사울의 질투를 더욱 더 부채질하는 도화선이 되었고, 다윗은 그때마다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을 경험하였습니다(19장). 사울의 왕권에 대한 집착과 다윗에 대한 질투는 극에 달하였고 영성이 무너진 곳에서는 이성의 파괴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의 패악을 통하여 여실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독살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결국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땅으로 망명길에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20장).

블레셋땅 가드에서 미치광이 광대짓을 하며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거기서 다시 유다 아들람 굴로 도망하여 자신의 추종세력을 규합해야 했습니다(22장). 유다광야에서 400명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4차례에 걸쳐서 사울의 추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의 목숨을 지켜 주었으며(24:1~22), 십 황무지에서 다시 사울을 살려 줌(26:1~25)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절대로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정착생활을 하며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지만 다윗을 찾기위한 무모한 국력소비로 이미 국가는 황폐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사울은 엔돌의 무녀

를 통해 사무엘의 혼령을 부르려 하였지만(28:3~25) 그의 문제는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하였고, 이로써 죽기까지 반역에 불순종으로 일관하였던 그의 삶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위대한 친구로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다윗사이에서 언제나 공의를 선택하였던 요나단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친구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① 연대추정(BC)

1091년 :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임명됨(3:12~4:1)
1060년 :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되찾음(4:1~7:2)
1050년 : 사울왕의 기름부음과 왕정시대의 개막(10:1~27)
1040년 : 다윗의 출생
1025년 : 다윗의 기름부음(16:1~13)
1020년 :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17:1~52)
1017년 : 사무엘의 죽음(25:1)
1010년 : 사울의 죽음(31:1~6)

(6) 개요

사무엘상은 31장, 810절로 신약성경에 35회 인용되었으며 BC. 1091~1010년의 기록입니다

I. 최후의 사사 사무엘(1:1~8:22)

- ① 사무엘의 유년기와 그의 소명(1:1~3:21)
 - ㉞ 어머니 한나(1:1~2:10) : 슬픔(1:1~8), 간구(1:9~18), 아들(1:19~23), 서원(1:24~28), 노래(2:1~10)
 - ㉞ 사역(2:11~3:21) :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2:11~36), 소년 사무엘이 받은 소명(3:1~21)
- ② 블레셋의 침입(4:1~7:2)
 - ㉞ 법궤를 빼앗김(4:1~22)
 - ㉞ 이스라엘의 패배(4:1~11)
 - ㉞ 엘리의 죽음(4:12~18)
 - ㉞ 주의 영광이 떠남, 이가봇(4:19~22)
 - ㉞ 블레셋에 내린 재앙(5:1~12)

- ㉔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6:1~7:2)
- ③ 이스라엘 부흥의 역사(7:3~17)
- ④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 대한 경고(8:1~22)

II. 최초의 왕, 사울(9:1~31:13)

- ① 사울의 등장(9:1~11:15)
- ㉔ 선택받은 사울(9:1~27)
- ㉔ 사울의 즉위(10:1~27)
- ㉔ 암몬을 정벌함(11:1~15)
- ② 백성을 각성시킨 사무엘(12:1~25)
- ③ 버림받은 사울(13:1~15:35)
- ㉔ 사울의 망령된 제사(13:1~23)
- ㉔ 사울의 경솔한 맹세(14:1~52)
- ㉔ 사울의 불완전한 순종(15:1~35)
- ④ 사울과 다윗의 교체(16:1~23)
- ㉔ 선택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16:1~13)
- ㉔ 사울의 궁정에 뽑힌 다윗(16:14~23)
- ⑤ 사울을 능가하는 다윗의 명성(17:1~18:30)
- ㉔ 골리앗을 제거한 다윗(17:1~58)
- 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18:1~4)
- ㉔ 다윗과 사울의 관계(18:5~16)
- ㉔ 다윗의 결혼(18:17~30)
- ⑥ 다윗의 죽이려는 사울(19:1~26:25)
- ㉔ 요나단의 보호(19:1~10)
- ㉔ 미갈의 보호(19:11~17)
- ㉔ 사무엘의 보호(19:18~24)
- ㉔ 요나단의 보호(20:1~42)
- ㉔ 아히멜렉의 보호(21:1~9)
- ㉔ 아기스의 보호(21:10~15)
- 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22:1~26:25)
- ㉔ 아둘람굴과 미스베에서(22:1~5)
- ㉔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임(22:6~13)
- ㉔ 그일라에서(23:1~12)
- ㉔ 십 황무지에서(23:13~29)
- ㉔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지킴(24:1~22)
- ㉔ 다윗과 아비가일(25:1~44)

- ㉔ 십 황무지에서 다윗이 다시 사울을 살려 줌(26:1~25)
- ㉕ 블레셋 땅으로 피난한 다윗(27:1~31:13)
- ㉖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음(27:1~28:2)
- ㉗ 엔돌의 무녀를 통해 사무엘의 혼령을 부른 사울(28:3~25)
- ㉘ 다윗을 시기하는 블레셋 방백들(29:1~11)
- ㉙ 아말렉을 친 다윗(30:1~31)
- ㉚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31:1~13)

11. 사무엘 하서(Samuel, The Second Book of)

(1) 명칭

사무엘 상,하권은 열왕기 상,하권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70인역성경(LXX)에서 사무엘서를 두권의 책으로 분리하였으며 왕국기 I과 II(Books of the Kingdoms)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에서 시작된 역사가 열왕기에서도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열왕기서를 왕국기 III,IV권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 제롬이 왕국기 I~IV권을 열왕기 I~IV권으로 개칭하였고, 별게이트 성경에서는 다시 I~II를 사무엘서로, III~IV를 열왕기서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517년, 다니엘 봄버그가 히브리성경을 개정 두권으로 인쇄하면서 부터 정착되었습니다 책명을 사무엘서라고 한 것은 본서의 중심인물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 저자

사무엘 상,하권의 기록연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BC. 1000년경에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950~9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다른 일설에서는 솔로몬 사후 분열왕국 초기(11:8,17:52,18:16)인 BC. 930년 이후로 보는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 또는 선지자로 재직하였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궁중생활 등 사무엘 상권 후반부와 하권은 아비아달이 기록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출신으로 문자를 잘 이해하였던 아비아달은 다윗의 망명생활을 동행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3) 기록목적

다윗왕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은 이스라엘이 신정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속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함께 운동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였던 순결한 시절을 잊어버리고 타락하였던 인간 다윗의 한계성을 사무엘 하에서는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과 죄악으로 더 깊이 나아갔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의 침상을 적실 만큼 대각성과 대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권세와 평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에게 그가 소망하였던 성전 건축의 꿈은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돌아갔으며, 장자인 압살롬과는 권력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등 가슴아픈 상처속에 그의 임기도 끝을 향하여 갔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㉔ 다윗(7:4~17) : 영원한 왕위는 그리스도께서 성취(이사야9:7,누가복음1:32)
- ㉕ 솔로몬(7장) : 나단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말함(요한계시록11:15)
- ㉖ 내 구원의 바위(22:37), 새 풀(23:4)

(4) 주제

"다윗왕조 40년의 승리"(7:16)를 주제로 사무엘하서는 사울의 죽음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속에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을 예비시키는 사상이 사무엘 하권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정치종교의 민족적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 땅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며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사무엘하7:4~14)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즉각적인 회개는 앞서간 사람들의 불신앙에서 초래한 학습효과 외에도 그를 근본적으로 지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밋세바와의 부끄러운 불륜과 그녀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아장군을 죽게한 음모와 계략,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하여 교만한 왕권 확립 등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대통곡의 본질은 그를 영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승리의 왕이 되게 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5) 내용

사무엘 하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수치가 숨김없이 묘사되어 있는 인물 중심의 역사서입니다. 다윗은 7년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실권자로, 그후 33년은 예루살렘의 위대한 통치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재임기간 내내 불신앙과 죄악을 쫓았던 탐욕의 재능자 사울과는 달리, 2대왕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비록 밋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하여 총복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였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진실된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용기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정왕국 이스라엘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과 명령을 준행하였던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찬양을 여호와께 드릴 만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2:1~4, 사무엘상30:26~30).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정들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정지되거나 후퇴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전면적인 등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지지를 받기까지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놀라운 과업을 성취하였습니다(5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앙하는 다윗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언약과 축복을 베푸시고 다윗왕국의 영원성을 선포하셨습니다(7:8~16). 다윗은 주변의 크고 작은 적대세력들을 진압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등 군사적 지략을 갖추음으로서 다윗왕국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밝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등장하게 될 메시아왕국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력질주는 밋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게한 간접살인이라는 범죄를 통하여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다윗 또한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운명을 혼란과 범죄의 절망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밋세바와 부정한 관계속에서 출산한 아들이 죽고(12:15~19), 압살롬은 이복누나인 다말을 강간한 큰형, 암논을 죽였으며(13:1~20),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고(18:9~17), 아도니아는 브니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열왕기상2:25). 다말은 시련속에서 무너져 버렸고, 다윗의 아내들은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하는 패륜이 일어났습니다(12:11, 16:20~23). 압살롬은 더 나아가 반역을 주도하고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의 꾸짖음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회개와 침상을 적시는 대각성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고 왕권을 회복하였지만 그로 인한 댓가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범죄앞에서 죄를 꾸짖는 나단 선지자에게 대항하지 않은 다윗의 신앙은 사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눈물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은혜와 역사를 순리대로 진행함으로써 다윗 통치시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성전 건축은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 주어야 했지만 다윗왕은 이스라엘 역사전체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워 질 만큼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성전터로 결정된 아라우나 마당에서의 번제 (24:18~25)로 막을 내렸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다윗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묻은 수많은 피로 말미암아 성전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 기공되고 준공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존경받은 왕으로서 비록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는 용기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를 짓고 수금과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다윗왕의 치세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① 연대추정(BC)

1025년 : 다윗의 기름부음(사무엘상16:1~13)
 1010년 :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즉위(2:1~4)
 1003년 : 예루살렘 정복과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5:1~10)
 991년 : 다윗과 밋세바의 불륜(11:1~27)
 980년 : 솔로몬의 탄생
 979년 : 압살롬의 반란
 973년 :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형벌(24:1~25)
 970년 :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열왕기상1:32~53)

(6) 개요

사무엘하는 24장, 695절로 신약성경에 26회 인용되었으며 BC. 1025~970년의 기록입니다

I. 다윗의 즉위(1:1~5:6)

- ① 즉위한 때(사울의 죽음후)(1:1~27)
- ㉞ 사울의 죽음의 보고(1:1~10), ㉞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1:11~16), ㉞ 사울을 위한 조가(1:17~27)
- ② 다윗 왕국의 범위(유다까지)(2:1~7)
- ③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2:8~4:12)
- ㉞ 이스보셋의 대적(2:8~11)
- ㉞ 내전(2:12~4:12)
- ㉞ 아브넬 대 요압(2:12~32), ㉞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림(3:1~21)
- ㉞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3:22~39), ㉞ 이스보셋의 죽음(4:1~12)
- ④ 통일 민족의 왕이 된 다윗(5:1~6)

II. 다윗의 왕권 확립(5:7~6:23)

- ① 예루살렘에 세워진 정부(5:7~25)
- ② 예루살렘에 모신 하나님의 궤(6:1~23)

III. 성전을 위한 다윗의 간구(7:1~29)

- ① 다윗의 요청(7:1~3)
- ② 하나님의 응답(7:4~29) : 하나님의 약속(7:4~17), 다윗의 찬양(7:18~29)

IV. 다윗의 정벌사업(8:1~10:19)

- ① 블레셋, 모압, 소바, 수리아, 에돔을 물리침(8:1~18)
- ② 므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9:1~13)
- ③ 암몬을 물리침(10:1~19)

V. 다윗의 범죄(11:1~27)

- ① 간음(11:1~13) ② 살인(11:14~27)

VI. 다윗 왕국의 갈등(12:1~20:26)

- ① 다윗의 아이의 죽음과 권세의 회복(12:1~31)
- ② 암논의 근친상간(13:1~39)
- ③ 압살롬의 반란(14:1~18:33)
- ㉠ 압살롬이 돌아옴(14:1~33), ㉡ 압살롬의 반역(15:1~12)
- ㉢ 압살롬이 다윗을 패주시킴(15:13~16:14),
- ㉣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림(16:15~17:23)
- ㉤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17:24~18:33)
- ④ 나라의 혼란(19:1~39)
- ⑤ 왕국의 혁신(19:40~20:26)

VII. 다윗의 만년(21:1~24:25)

- ① 기근(21:1~14)
- ② 다윗의 전공(21:15~22)
- ③ 다윗의 노래(22:1~51)
- ④ 다윗의 마지막 말(23:1~7)
- ⑤ 다윗의 용사들의 행적(23:8~39)
- ⑥ 인구조사와 역병(24:1~25)

12. 열왕기 상(列王記, מְלָכִים, Kings, The First Book of)

(1) 명칭

본래 한권의 책이었던 히브리성경의 열왕기서는 사무엘상하서와 복잡한 관계를 이루며 모두 한권의 1~4권으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사무엘서와 열왕기로 나뉘어 지는 등 몇번의 작업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서와 연결된 문서로 열왕기서는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왕국들"이라는 의미의 "몰라킴"(מְלָכִים)으로 불리워 졌으며 70인역에서는 두권으로 나뉘어 I~II 또는 III~IV권으로 불리워 졌습니다.

(2) 저자

열왕기 하는 여호야킨이 포로에서 37년만에 풀려난 사실(BC.562~561)로 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C.536년의 바벨론포로 1차귀환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명의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BC. 562~536년경, 한사람에 의해서 한 권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야킨의 석방은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대인 포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전승에서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 행장(11:41)과 유대왕 역대지략(14:29)과 이스라엘왕 역대지략(14:19)의 문헌들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다왕조의 사료는 이스라엘 왕조의 사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문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열왕기서의 기자는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들의 문서는 역대기서에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 실로 사람 아히야와 잇도(역대하9:29),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잇도(역대하12:15) 등 선지자들의 예언문서들을 통하여 여러 왕들의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해져 오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엿볼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3) 기록목적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번영은 주변국가들의 환경과 종속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다윗왕의 신정정치와 솔로몬의 예루살렘성전 건

축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언약을 따라 선택된 민족의 역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로 단정하고, 신명기에서 언급하는 정죄들을 열왕기서에서도 동일한 문체로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상기시키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한 경고의 메시지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예레미야7:13,11:1~8). 열왕기서는 동시대 여러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속에 있는 율법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 성전(6:2) : 그리스도의 몸(요한복음2:21)
- ㉡ 솔로몬 : 지혜(3:4~13), 영광(10:14~39), 지위(1:39)
- ㉢ 엘리야(17~19장)

(4) 주제

"솔로몬의 평화 40년,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된 두 왕국의 80년"(11:35~36)을 주제로 열왕기 상은 솔로몬시대를 끝으로 두개의 나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개인주의와 탐욕에 빠져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정은 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본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개로 쪼개어 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한 722년과 586년에 각각 앗수르제국과 바벨론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5) 내용

열왕기 상서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두 명의 어머니와 한명의 아기"에 관한 진실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열왕기상3:16~28). 자신의 친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짜 어머니에게라도 아들을 내어 주고 싶어 했던 한 여인과 아기를 둘로 쪼개어 아기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던 또 다른 한여인의 재판 결과는 친어머니의 승리인 동시에 솔로몬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며 그의 지혜와 성전건축과 번영의 시대로 이스라엘을 절정기에 이르게 하였다는 찬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쏟아부었던 말년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곧바로 내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다윗이 힘겹게 이루었던 통일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열왕기서의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즉위과정과 지혜, 업적, 명예와 부귀영화에서 비극적 타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결한 마음과 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열정과 지혜로 인하여 위대한 평강의 왕으로써 위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이었지만, 말년에는 타락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패악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다윗의 아들이었을까요? 여색에 물든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들을 거느리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비롯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족속 여인들을 취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고령에 이르렀을 때에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허락하는 패악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의 가증한 몰록과, 이방족속의 후궁들이 각각 섬기는 자기의 신들의 산당을 짓고 그들의 패악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두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쫓지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였으나 솔로몬은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그들의 얼룩진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고 국방의 의무까지 하게 하여 왕국은 이미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솔로몬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신실함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솔로몬이 죽으면 나라는 나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11~13)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쪽의 열지파는 여로보암1세의 지도하에 분리작업을 마치고 북이스라엘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1:1~12:24)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습니다(12:25~16:34)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한편, 남유다왕국은 왕들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등 사사시대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북왕국 아합왕이 치리하는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바알신과 하나님의 공의를 테스트하는 놀라운 대결을 펼치고 그들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극도로 분노한 아합의 이교도 이사벨의 위협속에 시나이반도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나이반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세우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귀환하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사벨의 계략으로 아합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두고 다시한번 엘리야와 대결하지만 승리를 쟁취하지 못합니다(17:1~22:53)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시작된 남북왕국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배교의 경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건축이 솔로몬 시대에 준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서에 기록된 왕들 가운데 남유다의 아사와 여호사밧왕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보고될 만큼 나머지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15:9~24, 22:41~50). 그러나 그러한 패역함속에서도 한줄기 빛나는 작은 불꽃과 같은 사역이 있었으니 엘리야 선지자의 노력과 승리들이었습니다.

① 연대(BC)

970년 : 솔로몬 왕위계승(1:32~53)

966~959년 : 성전건축

931년 : 솔로몬의 죽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왕국의 분열

911년 : 유다의 첫번째 선한왕인 아사의 통치(역대하14~16장)

874년 : 아합의 통치(16~22장)

873년 : 여호사밧의 통치(역대하17~20장)

876~852년 : 엘리야의 사역(17~19, 21장, 열왕기하1~2장)

852~796년 : 엘리사의 사역(열왕기하2~9, 13장)

785년 : 요나의 사역

767년 : 아모스의 사역, 호세아의 사역

739년 : 이사야의 사역

733년 : 미가의 사역

729년 : 히스기야의 통치(역대하29~32장)

722년 :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열왕기하17장)

686~642년 : 므낫세의 통치(역대하33장)

650년 : 나훔의 사역

641년 : 요시아의 통치(역대하34~35장)
 636년 : 스바냐의 사역
 627년 : 예레미야의 사역
 626년 :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남
 621년 : 하박국의 사역
 612년 : 니느웨 함락(나훔)
 605년 : 갈그미스 전투(예레미야46:2)
 605년 : 예루살렘 포위공격 당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감(1차포로, 열왕기하24장)
 597년 : 시드기야의 통치(역대하36장), 예루살렘 2차 포위공격 당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감(25장)
 586년 :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소실됨,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왕국 멸망(열왕기하25장), 예레미야애가

(6) 개요

열왕기상은 22장, 816절로 신약성경에 53회 인용되었으며 BC. 971~853년의 기록입니다

I. 통일왕국시대(1:1~11:43)

- ① 솔로몬의 등극(1:1~3:1(역대하1:1~17))
 - ㉠ 왕위 계승을 위한 갈등(1:1~53), ㉡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2:1~12)
 - ㉢ 솔로몬의 왕권 확립(2:13~46), ㉣ 솔로몬의 결혼(3:1)
- ② 솔로몬의 지혜(3:2~4:34)
 - ㉠ 지혜를 구함(3:2~15), ㉡ 지혜를 펼침(3:16~28)
 - ㉢ 솔로몬의 치세(4:1~28), ㉣ 솔로몬의 명성(4:29~34)
- ③ 솔로몬 성전(5:1~8:66(역대하2:1~7:22))
 - ㉠ 성전을 위한 준비(5:1~18), ㉡ 성전 규모와 건축(6:1~38)
 - ㉢ 기타 건축사업(7:1~12), ㉣ 성전의 장식(7:13~51), ㉤ 성전의 봉헌(8:1~66)
- ④ 솔로몬의 명성(9:1~10:29(역대하8:1~9:28))
 - ㉠ 하나님의 언약(9:1~9), ㉡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선물(9:10~14)
 - ㉢ 솔로몬의 역군들(9:15~25), ㉣ 솔로몬의 해군(9:26~28)
 - ㉤ 스바여왕의 방문(10:1~13), ㉥ 솔로몬의 부귀(10:14~29)
- ⑤ 솔로몬의 타락(11:1~43)
 - ㉠ 원인(11:1~8), ㉡ 경고(11:9~13), ㉢ 대적들(11:14~28)
 - ㉣ 아히야의 예언(11:29~40), ㉤ 솔로몬의 죽음(11:41~43)

II. 분열왕국 시대(12:1~22:53)

- ① 왕국의 분열(12:1~24)
- ㉔ 북쪽지파들의 요구(12:1~4), ㉕ 르호보암의 대답(12:5~15), ㉖ 북쪽지파들의 반란(12:16~24)
- ② 여로보암1세의 이스라엘 통치(12:25~14:20)(BC.931~910년)
- ㉔ 예루살렘을 대신한 종교 중심지(12:25~33)
- ㉕ 하나님의 사람과 만남(13:1~32)
- ㉖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직에 세움(13:33~34)
- ㉗ 여로보암 아들의 병과 아히야의 예언(14:1~18)
- ㉘ 임종(14:19~20)
- ③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14:21~31)(BC.931~913년)(역대하10:1~12:16)
- ㉔ 유다의 타락(14:21~24), ㉕ 애굽왕 시삭의 침략(14:25~28), ㉖ 르호보암의 죽음(14:29~31)
- ④ 아비야(아비암)의 유다통치(15:1~8)(BC. 913~910년)(역대하13:1~22)
- ⑤ 아사의 유다통치(15:9~24)(BC. 910~869년)(역대하14:1~16:14)
- ㉔ 아사의 개혁(15:9~15), ㉕ 바아사와의 전쟁(15:16~24)
- ⑥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15:25~31)(BC. 910~909년)
- ⑦ 바아사의 이스라엘 통치(15:32~16:7)(BC. 909~886년)
- ⑧ 엘라의 이스라엘 통치(16:8~14)(BC. 886~885년)
- ⑨ 시므리의 이스라엘 통치(16:15~20)(BC. 885년)
- ⑩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16:21~28)(BC. 885~874년)
- ⑪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16:29~22:40)(BC. 874~853년)
- ㉔ 아합 통치의 시작(16:29~34)
- ㉕ 엘리야의 가뭄 예언(17:1)
- ㉖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심(17:2~24)
- ㉗ 바알 제사장들에 대한 엘리야의 도전(18:1~46)
- ㉘ 호렘산으로 피신한 엘리야(19:1~18)
- ㉙ 엘리사를 택한 엘리야(19:19~21)
- ㉚ 수리아 전쟁에서의 아합의 승리(20:1~43)
- ㉛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아합의 욕망(21:1~29)
- ㉜ 아합의 마지막 전투(22:1~40)
- ⑫ 여호사밋의 유다통치(22:41~50)(BC. 872~848년)(역대하17:1~20:37)
- ⑬ 아하시야의 이스라엘 통치(22:51~53)(BC. 841년)

13. 열왕기 하(列王記, מִלְכִּים רַבִּים, Kings, The Second Book of)

(1) 명칭

본래 한권의 책이었던 히브리성경의 열왕기서는 사무엘상하서와 복잡한 관계를 이루며 모두 한권의 1~4권으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사무엘서와 열왕기로 나뉘어 지는 등 몇번의 작업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서와 연결된 문서로 열왕기서는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왕국들"이라는 의미의 "몰라킴"(מְלָכִים)으로 불리워 졌으며 70인역에서는 두권으로 나뉘어 I~II 또는 III~IV권으로 불리워 졌습니다.

(2) 저자

열왕기 하의 여호야킨이 포로에서 37년만에 풀려난 사실(BC.562~561)로 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C.536년의 바벨론포로 1차귀환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명의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BC. 562~536년경, 한사람에 의해서 한 권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야킨의 석방은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왕기서의 저자는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대인 포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전승에서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 행장(11:41)과 유대왕 역대지략(14:29)과 이스라엘왕 역대지략(14:19)의 문헌들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다왕조의 사료는 이스라엘 왕조의 사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문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열왕기서의 기자는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들의 문서는 역대기서에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 실로 사람 아히야와 잇도(역대하9:29),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잇도(역대하12:15) 등 선지자들의 예언문서들을 통하여 여러 왕들의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해져 오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엿볼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3) 기록목적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거부하고 배교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운명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면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 열왕기하는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서가 성전건축을 그 출발점에 둔 희망이었다면, 열왕기 하서는 성

전파괴라는 절망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남북 왕국의 멸망원인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㉓ 엘리야(1~2장) : 그리스도의 승천(사도행전1:9)
- ㉔ 요단강물(5:14) : 보혈로 죄를 씻음(에베소서1:7)

(4) 주제

"분열, 그리고 죄악의 비극적 결과"(17:22~23)를 주제로 열왕기 하는 남북왕국이 서로 경쟁하듯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특징은 왕들의 악함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있는 우상숭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과 우상숭배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며 생활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가끔씩 선한 왕이 나와도 우상철폐를 온전하게 정리 못하거나 우유부단함으로 죄를 반복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환호성을 불렀던 그들의 입에서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5) 내용

남북왕국의 분열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극에서 부터 시작된 퇴락의 흔적은 분열왕국 역사의 전개와 그 참담한 내용과 더불어 더욱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야로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북왕국의 역사는 철흑같은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역사는 힘없는 과부의 삶에 활력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를 살려주는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하시아의 군사들이 불에 타 죽고,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를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모세와 버금가는 능력으로 북왕국의 패역을 경고하는 담대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보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산 채로 데려 가심으로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뒤이은 엘리사 역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극심한 암흑기에 두 명의 크고 위대한 선지자의 빛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은 그들의 패악이 극에 달하여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족으로 부터

끊임없는 살해 위협속에서도 신앙회복을 외쳤던 엘리사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 습니다 엘리사 또한 요단강의 물을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의 샘물을 정화하였습 니다 과부의 기름이 풍성하도록 기적을 베풀었으며, 수넬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어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고, 아람 군사들의 눈을 모두 어둡게 하여 전열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람왕 군대장 관 나아만의 문동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아람 나라에 선포하 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패역함은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 에 도달할 정도로 이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북왕국 19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통일된 악행을 경쟁하듯 이어 갔으며, 9왕조중 8왕 조는 유혈혁명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던 북왕국도 결국 BC. 722년에 앗수르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역사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 면, 다윗왕조의 계승자로 이어져 내려온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중 8명의 왕은 크고 작은 잘못은 있어도 나름대로 선왕으로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함락 6년전, 유다왕으로 즉위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주 도하면서 신앙의 모범된 생활규칙과 기도생활을 통하여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이 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임자인 므낫세의 심각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유다 멸망을 재촉하였고, 요시야의 개혁으로도 죄악과 파멸의 흐름을 막을수는 없 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수리중 발견된 율법책을 기초로 이교사상을 배척하고 유월 절을 회복하는 등 종교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 의 심판의 그림자는 바벨론 침공을 통하여 나타났으며, BC. 586년 예루살렘은 느부 갓네살왕의 식민통치시대를 맞이하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I. 남유다의 왕 연대기(BC,재임기간,선악분별,성경)

- ① 르호보암(931~913년)(17년,惡,열왕기상12:1~14:31,역대하10:1~12:16)
- ② 아비암(아비야)(913~910년)(3년,惡,열왕기상15:1~8,역대하13:1~22)
- ③ 아사(910~869년)(41년,善,열왕기상15:9~24,역대하14:1~16:14)
- ④ 여호사밧(872~848년)(25년,善,열왕기상22:41~50,역대하17:1~20:37)
- ⑤ 요람(848~841년)(8년,惡,열왕기하8:16~24,역대하21:1~20)
- ⑥ 아하시야(841년)(1년,惡,열왕기하8:25~29,9:27~29,역대하22:1~9)
- ⑦ 아달랴(841~835년)(6년,劇惡,열왕기하8:18,25~28,11:1~20,역대하22:1~23,24:7)
- ⑧ 요아스((835~879년)(40년,善,열왕기하11:1~12:21,역대하22:10~24:27)
- ⑨ 아마샤(796~767년)(29년,善,열왕기하14:1~14,역대하25:1~28)
- ⑩ 아사랴,웃시야(790~739년)(52년,善,열왕기상15:1~7,역대하26:1~23)
- ⑪ 요담(751~736년)(16년,善,열왕기하15:32~33)
- ⑫ 아하스(742~725년)(16년,惡,열왕기하16:1~20,역대하28:1~27)

- ⑬ 히스기야(728~697년)(29년, 善, 열왕기상18:1~20:21, 역대하29:1~32:33)
- ⑭ 므낫세(697~642년)(55년, 惡, 열왕기하21:1~18, 역대하33:1~20)
- ⑮ 아몬(642~640년)(2년, 惡, 열왕기하21:19~23, 역대하33:21~25)
- ⑯ 요시아(640~609년)(31년, 善, 열왕기하22:1~23:30, 역대하34:1~35:27)
- ⑰ 여호아하스(609~608년)(3개월, 惡, 열왕기하23:31~33, 역대하36:1~4)
- ⑱ 여호야김(608~597년)(11년, 惡, 열왕기하23:34~24:5, 역대하36:5~7)
- ⑲ 여호야긴(597년)(3개월, 惡, 열왕기하24:6~16, 역대하36:8~10)
- ⑳ 시드기야(597~586년)(11년, 惡, 열왕기하24:17~25:7, 역대하36:11~21)
- ㉑ 예루살렘 함락(586년)

II. 북 이스라엘의 왕 연대기(BC, 재임기간, 선악분별, 성경)

- ① 여로보암1세(931~910년)(22년, 惡, 열왕기상11:26~14:20, 역대하9:29~13:22)
- ② 나답(910~909년)(2년, 惡, 열왕기상15:25~28)
- ③ 바아사(909~886년)(24년, 惡, 열왕기상15:27~16:7, 역대하6:1~6)
- ④ 엘라(886~885년)(2년, 善, 열왕기상16:8~10)
- ⑤ 시므린(시므리)(885년)(7일, 살인자, 열왕기상16:10~20)
- ⑥ 오므리(885~874년)(12년, 劇惡, 열왕기상16:16~27)
- ⑦ 아합(874~853년)(22년, 劇惡, 열왕기상16:28~22:40, 역대하18:1~34)
- ⑧ 아하시야(853~852년)(2년, 惡, 열왕기상22:40, 51~53, 열왕기하1:1~17, 역대하20:35~37)
- ⑨ 요람(852~841년)(12년, 惡, 열왕기하3:1~3, 9:14~25)
- ⑩ 예후(841~814년)(28년, 惡, 열왕기하9:1~10:36, 역대하22:7~12)
- ⑪ 여호아하스(814~798년)(17년, 惡, 열왕기하13:1~9)
- ⑫ 요아스(798~782년)(16년, 善, 열왕기하13:10~25, 14:8~16, 역대하25:17~24)
- ⑬ 여로보암2세(793~753년)(41년, 惡, 열왕기하14:23~29)
- ⑭ 스가랴(753~752년)(6개월, 惡, 열왕기하15:8~12)
- ⑮ 살룸(752년)(1개월, 惡, 열왕기하15:13~15)
- ⑯ 므나헴(752~742년)(10년, 惡, 열왕기하15:16~22)
- ⑰ 브가히야(742~740년)(2년, 惡, 열왕기하15:23~26)
- ⑱ 베가(752~732년)(20년, 惡, 열왕기하15:27~31)
- ⑲ 호세아(732~722년)(9년, 惡, 열왕기하17:1~41)
- ⑳ 사마리아 함락(722~721년)

III. 앗수르제국의 왕들(BC)

- ① 살만에셀3세(858~824년)

- ② 아다드 니라리 3세(810~783년)
- ③ 디글랏 빌레셀 3세(744~727년)
- ④ 살만에셀5세(727~722년)
- ⑤ 사르곤2세(722~705년)
- ⑥ 산헤립(705~681년)
- ⑦ 에살하돈(680~669년)
- ⑧ 니느웨의 함락(612년)
- ⑨ 므깃도 전쟁(609년)
- ⑩ 갈그미스 전쟁(605년)
- ⑪ 느부갓네살2세(605~562년)(바벨론제국 왕)

(6) 개요

열왕기하는 25장, 719절로 신약성경에 26회 인용되었으며 BC. 853~560년의 기록입니다

I. 분열왕국시대(1:1~17:41)

- ① 아하시야의 이스라엘 통치(1:1~18)(BC. 853~852년)
- ② 여호람의 이스라엘 통치(2:1~8:15)
- ㉠ 엘리야의 승천(2:1~11)
- ㉡ 엘리사 사역의 시작(2:12~25)
- ㉢ 여호람의 모압정벌(3:1~27)
- ㉣ 엘리사의 사역(4:1~8:15)
- ㉤ 과부를 도와줌(4:1~7), ㉥ 엘리사와 수넬여인(4:8~37), ㉦ 길갈에서(4:38~44)
- ㉧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5:1~27), ㉨ 물에빠진 도끼를 찾음(6:1~7)
- ㉩ 수리아를 막아냄(6:8~8:6), ㉪ 다메섹에서(8:7~15)
- ③ 여호람(요람)의 유다 통치(8:16~24)(BC. 848~841년)(역대하21:1~20)
- ④ 아하시야의 유다 통치(8:25~29)(BC. 841년)(역대하22:1~9)
- ⑤ 예후의 이스라엘 통치(9:1~10:36)(BC. 841~814년)
- ㉠ 엘리사에게 기름부음 받은 예후(9:1~10)
- ㉡ 예후가 이스라엘의 여호람을 패망시킴(9:11~10:17)
- ㉢ 예후가 바알숭배자들을 죽임(10:18~36)
- ⑥ 아달라의 유다 통치(11:1~16)(BC. 841~835년)(역대하22:10~23:15)
- ⑦ 여호아스(요아스)의 유다 통치(11:17~12:21)(BC. 835~796년)(역대하23:16~24:27)
- ⑧ 여호아하스의 이스라엘 통치(13:1~9)(BC. 814~798년)
- ⑨ 여호아스(요아스)의 이스라엘 통치(13:10~25)(BC. 798~782년)(역대하22:10~23:15)

- ⑩ 아마샤의 유다 통치(14:1~22)(BC. 796~767년)(역대하25:1~28)
- ⑪ 여로보암2세의 이스라엘 통치(14:23~29)(BC. 793~753년)
- ⑫ 아사랴(웃시아)의 유다 통치(15:1~7)(BC. 790~739년)(역대하26:1~23)
- ⑬ 스가라의 이스라엘 통치(15:8~12)(BC. 753~752년)
- ⑭ 살룸의 이스라엘 통치(15:13~15)(BC. 752년)
- ⑮ 므나헴의 이스라엘 통치(15:16~22)(BC. 752~742년)
- ⑯ 브가히야의 이스라엘 통치(15:23~26)(BC. 742~740년)
- ⑰ 베가의 이스라엘 통치(15:27~31)(BC. 752~732년)
- ⑱ 요담의 유다 통치(15:32~38)(BC. 751~736년)(역대하27:1~9)
- ⑲ 아하스의 유다 통치(16:1~20)(BC. 742~725년)(역대하28:1~27)
- ㉔ 호세아의 이스라엘 통치(17:1~41)(BC. 732~723년)
- ㉕ 이스라엘의 패배(17:1~6)
- ㉖ 이스라엘의 죄악(17:7~23)
- ㉗ 이방인의 땅이 된 이스라엘(17:24~41)

II.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18:1~25:30)

- ① 히스기야의 통치(18:1~20:21)(BC. 728~697년)(역대하29:1~32:33)
- ㉕ 히스기야의 개혁(18:1~12)
- ㉖ 산헤림의 침략으로부터의 구원(18:13~19:37)
- ㉗ 연장된 수명(20:1~11)
- ㉘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20:12~21)
- ② 므낫세의 통치(21:1~18)(BC. 697~642년)(역대하33:1~20)
- ③ 아몬의 통치(21:19~26)(BC. 642~640년)(역대하33:21~25)
- ④ 요시아의 통치(22:1~23:30)(BC. 640~609년)(역대하34:1~35:27)
- ㉕ 성전수리(22:1~7)
- ㉖ 율법의 회복(22:8~20)
- ㉗ 언약의 갱신(23:1~3)
- ㉘ 국가 개혁(23:4~30)
- ⑤ 여호아하스의 통치(23:31~33)(BC. 609~608년)(역대하36:1~4)
- ⑥ 여호야김(엘리아김)의 통치(23:34~24:7)(BC. 608~597년)(역대하36:5~8)
- ⑦ 여호야긴의 통치(24:8~16)(BC. 597년)(역대하36:9~10)
- ⑧ 시드기야(맛다니아)의 통치(24:17~25:21)(BC. 597~587년)(역대하36:11~21)
- ㉕ 바벨론에 대한 반역과 성전의 파괴(24:17~25:10)
- ㉖ 3차 바벨론 포로(25:11~21)
- ⑨ 바벨론의 앞잡이 그달리야(25:22~26)(BC. 587년)
- ⑩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석방됨(25:27~30)

14. 역대 상(歷代記 上, Divrei Hayyamim)

(1) 명칭

역대 상하의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각 시대의 말씀"의 의미를 가진 "디브레하야뎀"이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빠뜨린 기록"이라는 의미의 "파랄레이포메나"(Paraleipomena)를 사용함으로써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미완성을 담보로 제공하는 책이라는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라틴역의 별게이트는 "성스러운 역사의 연대기"(Libri Paralipomenon)로 명명하였습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가 기록된 후 100년이 시차를 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두권으로 분리된 것은 BC. 150년경, 헬라어 역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11장51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창세기4장) "시가라의 피까지"(역대하24장)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 저자

역대기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역대상,하(上,下)와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로서 에스라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에스라 1:1~3과 역대 하36:22은 동일한 문구로서 두 책의 저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족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율법에 능통하였으며, 예배의식과 절차에 박식한 것으로 보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동시에 제사장이며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저자로서 유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느헤미야12:26). 역대 상서에는 BC. 537~500년경 인물인 스룹바벨의 두 손자 블라다, 여사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3:21). 또한 스가냐는 그의 4대손자 7명의 이름이 기록됨으로서(역대 상3:24), 그후 4세대가 지난 연대는 BC. 500년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의 기록연대인 BC. 450년경과 유사한 시기로 추측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대 하가 고레스의 조서내용중간에서 중단한채 종결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하여금 에스라서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가 정경에 포함된 것은 열왕기 이후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의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성경에서 서로 병합되어 있던 에스라서와 역대기서의 위치가 BC. 423년,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2세를 언급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의해 분리되었습니다(느헤미야12:22).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가 구약정경의 마지막책으로 통합된것이 BC. 420년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라는 신뢰성은 사무엘, 나단, 갓(역대상29:29), 아히야, 잇도, 스마야(역대하9:29), 이사야(역대하32:32)와 호세아 선지자들의 인용에서 알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역대하16:11), 히브리어 "미드라쉬"로 알려진 "열왕기 주석"(역대하24:27) 등을 역대기 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함으로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유사성과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기록목적

사무엘과 열왕기서가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주관된다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면 역대기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남북왕국의 역사를 모두 기술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 유다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사건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역대기는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중심으로 레위인과 다윗시대의 신앙적 공로와 함께 성전건축에 관한 메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확립하기 위해 BC. 457년, 바벨론을 떠나 팔레스타인의 유대백성들에게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에스라7:19~23),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에스라9~10장) 페르시아왕으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재건을 시작하였지만(에스라4:8~16) BC. 444년,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기까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역대기는 창세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역사와 평행을 이루며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역대상1~9장) 이로써 제사장직과 희생제사의 복원을 위해 모세의 율법, 성전재건(역대상22장), 법궤, 레위지파의 찬양대(역대상13,15~16장)의 복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여러왕들과 선지자들의 역사를 생략하는 대신 제사장직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고 장차오실 메시아를 대망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는 제사장들의 염원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㉞ 왕적계보(1~9장) : 만왕의 왕을 맞이하기 위한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상기 시켜줌

㉟ 다윗의 왕권(11~12장) : 그리스도의 왕권

(4) 주제

"하나님 나라의 정통계열로서 다윗의 혈통과 모세의 율법정신"(28:4)을 주제로 역대상은 다윗왕조의 정통성고 함께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야곱까지(1장), 갈렙계통을 포함하는 야곱에서 다윗까지(2장), 그리고 포로후기들의 족보를 포함하는 다윗에서 시드기야까지(3장)의 혈통을 정리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계파들의 족보와(4~8장), 포로에서 돌아 온 자들의 족보까지(9장) 정통성을 알려주는 인적계통도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에서 시작한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하나님앞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잠시나마 그들의 이름속에서 되뇌이여 보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속에서 찾은 단 한 사람의 이름, 그것은 다윗왕이었습니다(10~24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명하였다는 것은 첫번째 사람의 요구에 의해 탄생된 초대왕 사울왕과는 전혀 다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10~12장) 하나님의 언약궤와(13~16장), 하나님의 언약과(17~21장), 하나님의 성전과(22~24장) 다윗왕의 죽음에 이르기 까지(29:26~30)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 강력한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통일왕국은 영원토록 번영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는 분열되고 그 나라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하여 백성들은 회개하며 울부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의 경고에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회개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백성들은 강박하고 돌아서기를 더디하며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시대를 상기시키며 다윗이 천지창조의 주인이며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통속에 거하는 일원이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지시켜 줌으로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5) 내용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족보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부터 출발하여 다윗왕조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왕에 이르기 까지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가운데 족보가 차지하는부분을 9장까지 할애함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정통성을 상기시키려 하였습니다

죽보가 향하는 정통성의 목표지점에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죽보로서 설명하면서 왕국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중심인물들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며, 레위지파를 통한 성전과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소개는 통일왕국의 성취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왕의 등장으로 통일왕국의 과정과 백성들과의 융합관계, 주변 민족의 정벌 기사를 다루어 통일왕국 성립의 기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국건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다윗의 신앙적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기초한 다윗의 통치는 왕의 위치에서도 겸손함을 드러내는 신앙적 소산물이었습니다 밋세바와의 불륜과 인구조사등에서 드러난 죄악에서 다윗은 주저함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있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앞에서 다시 세워질 때 까지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으나 성전부지의 마련, 성전 건축계획, 건축자재 수집 등과 성전봉사를 위해 선별된 제사장, 성가대, 레위인들의 반열을 준비하며 솔로몬의 즉위를 준비하는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 이스라엘 모든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상의 저자가 왜 죽보를 기록하고 다윗의 치세를 과다하다 할 만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가? 그것은 죄와 패악으로 얼룩진 북이스라엘을 부인하고 남유다를 정통성으로 인정하며, 아울러 성전건축을 위한 다윗의 열정과 순수성, 투철한 신앙심을 통하여 참된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갖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흔적이 되어버린 다윗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죄로부터 단절하는 통일왕국의 재건을 이루려는 간절한 소망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① 연대기(BC)

1010년 : 사울왕의 죽음(10:1~6)(사무엘상31:1~6)

1010년 : 다윗왕의 즉위(11:1~3)(사무엘하2:1~4)

1003년 :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15:1~16:43)

990년 : 솔로몬 출생

979년 : 압살롬의 반란(사무엘하15:7~12)

973년 :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진노(21:1~25)

970년 :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계승(29:30)(열왕기상1:32~53)

(6) 개요

역대상은 29장, 942절로 신약성경에 23회 인용되었으며 BC. 1010~970년의 기록입니다

I. 아담으로 부터 다윗까지의 족보(1:1~9:44)

- ①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1:1~27)
- ②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1:28~54)
- ③ 야곱에서 다윗까지(2:1~55)
- ④ 다윗에서 포로 시기까지(2:1~55)
- ⑤ 열두 족장들의 족보(4:1~8:40)
 - ㉮ 유다(4:1~23), ㉮ 시므온(4:24~43), ㉮ 르우벤(5:1~10), ㉮ 갓(5:11~22), ㉮ 므낫세(5:23~26), ㉮ 레위(6:1~81), ㉮ 잇사갈(7:1~5), ㉮ 베냐민(7:6~12), ㉮ 납달리(7:13), ㉮ 므낫세(7:14~19),
 - ㉮ 에브라임(7:20~29), ㉮ 아셀(7:30~40), ㉮ 베냐민(8:1~40)
- ⑥ 예루살렘의 거민들(9:1~34)
- ⑦ 사울의 가계도(9:35~44)

II. 기름부음 받은 다윗(10:1~12:40)

- ① 사울의 죽음(10:1~14)
- ② 다윗의 등극(11:1~3)
- ③ 예루살렘 정복(11:4~9)
- ④ 다윗의 용사(11:10~12:40)

III. 다윗의 통치(13:1~29:21)

- ① 다윗과 법궤(13:1~17:27)
 - ㉮ 법궤를 기둥으로 옮긴 다윗 : 웃사의 죽음(13:1~14)
 - ㉮ 다윗의 명성과 블레셋 정벌(14:1~17)
 - ㉮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법궤(15:1~29)
 - ㉮ 다윗과 백성들의 감사 제사(16:1~43)
 - ㉮ 성전을 세우려는 다윗의 소망 : 다윗의 언약(17:1~27)
- ② 다윗의 정복사업(18:1~20:8)
- ③ 인구 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21:1~30)
- ④ 성전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22:1~23:1)

- ㉑ 레위인의 직무 위임(23:2~26:32)
- ㉒ 레위인들의 수효와 직무들(23:2~32)
- ㉓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나눔(24:1~31)
- ㉔ 찬양대를 세움(25:1~31)
- ㉕ 문지기들을 임명함(26:1~19)
- ㉖ 창고지기들을 임명함(26:20~28)
- ㉗ 유사들을 파견함(26:29~32)
- ㉘ 다윗이 거느린 시민 지도자들(27:1~34)
- ㉙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28:1~21)
- ㉚ 다윗의 제물들과 예배(29:1~21)

IV. 솔로몬의 등극과 다윗의 임종(29:22~30)

15. 역대 하(歷代記 下, Divrei Hayyamim)

(1) 명칭

역대 상하의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각 시대의 말씀"의 의미를 가진 "디브레하야뎀"이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빠뜨린 기록"이라는 의미의 "파랄레이포메나"(Paraleipomena)를 사용함으로써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미완성을 담보로 제공하는 책이라는 뜻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라틴역의 벌게이트는 "성스러운 역사의 연대기"(Libri Paralipomenon)로 명명하였습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가 기록된 후 100년이 시차를 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두권으로 분리된 것은 BC. 150년경, 헬라어 역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역대기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11장51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창세기4장) "시가랴의 피까지"(역대하24장)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 저자

역대기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역대상,하(上,下)와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로서 에스라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에스라 1:1~3과 역대 하36:22은 동일한 문구로서 두 책의 저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족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율법에 능통하였으며, 예배의식과 절차에 박식한 것으로 보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동시에 제사장이며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저자로서 유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느헤미야12:26). 역대 상서에는 BC. 537~500년경 인물인 스룹바벨의 두 손자 블라다, 여사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3:21). 또한 스가냐는 그의 4대손자 7명의 이름이 기록됨으로서(역대상3:24), 그후 4세대가 지난 연대는 BC. 500년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의 기록연대인 BC. 450년경과 유사한 시기로 추측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역대 하가 고레스의 조서내용중간에서 중단한채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하여금 에스라서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가 정경에 포함된 것은 열왕기 이후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의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성경에서 서로 병합되어 있던 에스라서와 역대기서의 위치가 BC. 423년,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2세를 언급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의해 분리되었습니다(느헤미야12:22).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가 구약정경의 마지막책으로 통합된것이 BC. 420년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라는 신뢰성은 사무엘, 나단, 갓(역대상29:29), 아히야, 잇도, 스마야(역대하9:29), 이사야(역대하32:32)와 호세아 선지자들의 인용에서 알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역대하16:11), 히브리어 "미드라쉬"로 알려진 "열왕기 주석"(역대하24:27) 등을 역대기 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함으로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유사성과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기록목적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준수와 이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류적 관심을 드러낸 것이라면 역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계보와 전통을 기록하였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 그로부터 400년 후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비신앙적인 부분들을 거의 생략하였습니다 대신 다윗왕의 신앙적 경건성을 본받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아와 같은 왕들과 그들의 동역자들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㉞ 모리아산과 성전(3:1~7) : 이삭이 순종한 산으로 훗날 성전이 세워짐
- ㉟ 메시아 계보의 승계(10~36장)

(4) 주제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남유다의 20왕들"(7:1)을 주제로 솔로몬의 전기적 사역과 생애를 중심으로 역대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말년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말년의 기록은 생략된 채, 초기정치와 성전건축(2~7장),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왕국의 분열(10장)과 유다왕국의 20왕들을 나열하며 그들의 선악을 기자의 심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함께 고레스 원년에 성전재건에 관한 칙령을 발표하면서 역대기하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새성전과 성전재건의 그림자속에 이어진 왕국의 분열과

남유다의 고군분투는 모두 하나의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끝을 맺음으로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5) 내용

통일왕국 말기 솔로몬왕정으로 부터 남유다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하는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동일한 시대를 남북왕국을 상호비교하는 객관적인 기술의 내용이라면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남유다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꽃피웠던 작은 불씨의 희망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계시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왕이 즉위하고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맞이하며 내적으로는 성전건축과 예배를 확립하고, 외적으로는 영토확장과 해외무역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건축은 그 동안 지파별로 분리되어 있던 영적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집결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치적 쾌거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의 생애 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1000명의 후궁들과 유희를 즐겼던 댓가는 왕국의 분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솔로몬 사후,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회전하며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지파별로 분열되며 북이스라엘왕국과 남유다왕국으로 양분된 나라는 다윗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신앙까지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직 일관성있는 범죄와 타락의 북이스라엘왕국과 달리 남유다는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같이 다윗왕과 죄악의 본을 왕래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종교개혁과 우상숭배의 철폐속에서 백성들의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왕래하던 왕들을 중심으로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의 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신명기28장) 악한왕보다 선한왕을 중심으로 역대기를 기록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중심의 신앙과 사상이 신정왕국 유다의 영적, 물질적 부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0:1~36:21)

8명의 선한왕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멸망은 시간을 다투며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심각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여호야김 이후 바벨론으로 부터 3차의 공격을 받고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까지 중단되거나 정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귀환과 성전재건을 선포하는 고레스왕의 기록으로 역대기의 끝은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① 유다왕의 종교개혁(BC)

- ㉓ 아사왕(910~872년)(14:2~15:19) : 오렛의 예언이 동기가 되어 유상을 제거하고 성전 단을 중수함
- ㉔ 여호사밧(872~848년)(17:6~19:11) : 우상제거와 교육정책, 선지자 예후의 책망으로 민간 순행, 재판제도 개혁
- ㉕ 요아스(835~796년)(23:16~24:14) :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언약갱신, 우상 제거, 제사제도 정비, 성전중수와 함께 헌금궤 설치
- ㉖ 히스기야(728~697)(29:3~31:19) :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참여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개혁, 제사회복, 성전복구, 우상제거, 유월절 준수, 십일조 예물의 관리자 임명과 분배
- ㉗ 므낫세(697~642년)(33:15~17) :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개혁으로 우상제거와 성전 중수
- ㉘ 요시아(640~609년)(34:3~35:19) : 전국적 철저한 개혁을 모토로 하여 우상제거, 거짓제사장 제거, 성전복구, 율법책 발견으로 언약갱신, 유월절 준수

② 연대기(BC)

- 970년 : 솔로몬 왕위계승(역대상9:22)
- 966~959년 : 성전건축(3:1~7:10)
- 931년 : 솔로몬의 죽음과 남북분열(10:16~19)
- 728년 : 남왕국 히스기야왕의 종교개혁(29:1~9)
- 722년 : 북왕국 앗수르제국에 의해 멸망
- 622년 : 요시아왕 성전수리 및 율법책 발견(34:1~33)
- 586년 :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36:11~21)
- 538년 :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귀환 칙령(36:22~23)

(6) 개요

역대하는 36장, 822절로 신약성경에 45회 인용되었으며 BC. 970~538년의 기록입니다

I. 솔로몬의 통치(1:1~9:31)

- ① 솔로몬의 등극(1:1~17) : 지혜를 구한 기도(1:1~13), 그의 부귀(1:14~17)
- ② 솔로몬의 성전(2:1~7:22)
- ㉓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2:1~18)

- ㉔ 성전 건축(3:1~4:22)
- ㉕ 성전 봉헌(5:1~7:22) : ㉑ 법궤의 안치(5:1~14), ㉒ 백성들을 향한 선포(6:1~11), ㉓ 하나님께 기도(6:12~42), ㉔ 하나님의 영광(7:1~3), ㉕ 제물을 바침(7:4~11), ㉖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심(7:12~22)
- ③ 솔로몬의 명성(8:1~9:28)
- ㉗ 성읍들(8:1~6), ㉘ 신하들(8:7~11), ㉙ 제물들(8:12~13), ㉚ 레위인들의 재조직(8:14~16)
- ㉛ 해군(8:17~18), ㉜ 스바여왕의 방문(9:1~12), ㉝ 부귀(9:13~28)
- ④ 솔로몬의 죽음(9:29~31)

II. 유다의 왕들(10:1~36:21)

- ① 르호보암(931~913년)(17년,惡,열왕기상12:1~14:31,역대하10:1~12:16)
- ㉗ 르호보암으로 인한 분열(10:1~19)
- 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좇음(11:1~23)
- ㉕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남(12:1~16)
- ② 아비암(아비아)(913~910년)(3년,惡,열왕기상15:1~8,역대하13:1~22)
- ③ 아사(910~869년)(41년,善,열왕기상15:9~24,역대하14:1~16:14)
- ㉗ 초기개혁들(14:1~8)
- ㉔ 에디오피아와의 전쟁(14:9~15)
- ㉕ 여호와를 의지함(15:1~19)
- ㉖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의 전쟁(16:1~10)
- ㉗ 아사의 죽음(16:11~14)
- ④ 여호사밧(872~848년)(25년,善,열왕기상22:41~50,역대하17:1~20:37)
- ㉗ 부흥운동(17:1~19)
- ㉔ 아합과의 동맹(18:1~19:3)
- ㉕ 개혁들(19:4~11)
- ㉖ 모압과 암몬의 정벌(20:1~30)
- ㉗ 최후(20:31~37)
- ⑤ 요람(848~841년)(8년,惡,열왕기하8:16~24,역대하21:1~20)
- ⑥ 아하시야(841년)(1년,惡,열왕기하8:25~29,9:27~29,역대하22:1~9)
- ⑦ 아달랴(841~835년)(6년,劇惡,열왕기하8:18,25~28,11:1~20,역대하22:1~23,24:7)
- ⑧ 요아스((835~879년)(40년,善,열왕기하11:1~12:21,역대하22:10~24:27)
- ㉗ 여호와를 좇음(23:16~24:16), ㉔ 여호와를 떠남(24:17~27)
- ⑨ 아마샤(796~767년)(29년,善,열왕기하14:1~14,역대하25:1~28)
- ㉗ 여호와를 좇음(25:1~13), ㉔ 여호와를 떠남(25:14~28)
- ⑩ 아사랴,웃시아(790~739년)(52년,善,열왕기상15:1~7,역대하26:1~23)

- ㉓ 여호와를 쫓음(26:1~15), ㉔ 여호와를 떠남(216~23)
- ⑪ 요담(751~736년)(16년, 善, 열왕기하15:32~33)
- ⑫ 아하스(742~725년)(16년, 惡, 열왕기하16:1~20, 역대하28:1~27)
- ⑬ 히스기야(728~697년)(29년, 善, 열왕기상18:1~20:21, 역대하29:1~32:33)
- ㉕ 부흥운동(29:1~31:21), ㉖ 앗수르에 대한 승리(32:1~23), ㉗ 최후(32:24~33)
- ⑭ 므낫세(697~642년)(55년, 惡, 열왕기하21:1~18, 역대하33:1~20)
- ⑮ 아몬(642~640년)(2년, 惡, 열왕기하21:19~23, 역대하33:21~25)
- ⑯ 요시야(640~609년)(31년, 善, 열왕기하22:1~23:30, 역대하34:1~35:27)
- ㉘ 개혁들(34:1~13), ㉙ 율법을 발견(34:14~33), ㉚ 유월절을 지킴(35:1~19), ㉛ 죽음(35:20~27)
- ⑰ 여호아하스(609~608년)(3개월, 惡, 열왕기하23:31~33, 역대하36:1~4)
- ⑱ 여호야김(608~597년)(11년, 惡, 열왕기하23:34~24:5, 역대하36:5~7)
- ⑲ 여호야긴(597년)(3개월, 惡, 열왕기하24:6~16, 역대하36:8~10)
- ⑳ 시드기야(597~586년)(11년, 惡, 열왕기하24:17~25:7, 역대하36:11~21)

Ⅲ. 고레스의 조서(36:22~23)

16. 에스라(Ezra, עזרא)

(1) 명칭

히브리 성경의 탈무드와 맛소라 사본, 그리고 70인역과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에스라서2장의 내용과 느헤미야서 7장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처음부터 2권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BC. 5세기경의 별게이트 성경에서는 그 이전의 상황과 상관없이 각권의 책으로 분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책의 통합과 분리는 각 책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용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각이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보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 저자

저자에 관한 명확한 정보와 문헌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문장 또한 1인칭 또는 3인칭 주어의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어서 저자를 특정하기는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에스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러가지 포고문, 서신과 족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장 주어의 변형은 고대 바벨론 문서에서도 이같은 특징이 나타나 있으므로 당시 문학적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라가 자신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7:6)라고 지칭하는 대목입니다.

에스라의 기록연대는 이방인을 제하는 사건(10:17~44)이 발생한 BC. 456년 4월부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왕실로 부터 귀국한 후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간(10:6) 이후인 BC. 444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함께 생존해 있었으므로(느헤미야8:1~9,12:36), 그의 저술은 충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3) 기록목적

언약의 백성인 아스라엘의 부흥과 보존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보살피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와 느헤미와 함께 제사장 문서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파들의 족장, 하나님의 집,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등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의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의도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①그리스도의 모형

㉞ 스룹바벨과 에스라(요한복음14:6)

㉟ 성전재건(3~6장) : 부활의 예수님

(4) 주제

"성전재건과 다시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6:16)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에스라는 회복의 희망이었습니다 BC. 530년,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로 부터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세스바살)의 지도하에 40,000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1;8,2:2~65)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유다에 도착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드리는 감격을 맞이 하였습니다

BC. 458년,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제2차 포로귀환이 있었는데 1차 포로귀환 후, 7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방족속의 삶과 습관에 젖은 이들에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제사장의 예배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분열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호와 중심, 성전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선포하여, 포로귀환자와 기존의 백성들간의 관계회복과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였습니다

(5) 내용

에스라는 역대하로부터 연결되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로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된 것입니다(예레미야29:10~14) 포로생활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기에 그것이 성취되기 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로 2차에 걸친 대규모 포로귀환이 있었고, 이들과 함께 성전재건(1~6장)과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7~10장)

200년전 이사야의 성전재건에 대한 예언에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그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에스라서의 기록에서 증명하듯 그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이사야44:28~45:4) BC. 538년, 바사왕(페르시아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포로귀환은 다윗의 직계손인 스룹바벨(세스바살)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40,000명의 포로가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재건사업에 들어가는 감사로 먼저 제단을 쌓고 번

제를 드리는 등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3:1~2) BC. 536년, 성전재건작업이 시행되고 불과 2년만인 BC. 534년에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재건작업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벽재건(4:1~5.24)과 성벽중건(4:6~23)의 방해공작은 성전재건작업을 BC. 520년까지 무려 15년간을 중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제사장의 권고와 스룹바벨의 적극적인 주도로 다시 시작된 성전재건 사업은 BC. 515년에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성전재건이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통일성, 민족성, 선민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악한 무리들의 방해와 훼방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연시킬수는 있을지라도 중단하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2차 성전건축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초라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식민통치시대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은 궁핍해졌고, 페르시아의 공식허가와 여러 민족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그 기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성전을 기억하였던 백성들은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3:12) 그러나 새롭게 지은 성전은 보수와 수리를 통하여 오랜기간 보존되었고 헤롯왕에 이르러서는 가장 웅장한 건축물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포로귀환이 있은지 80년, BC. 457년, 바사왕 아닥사스다1세의 호위 속에 에스라 선지자는 2,000명의 포로들과 함께 2차 포로귀환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2차 포로귀환의 공백기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태하여지고 영적으로 저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앞에서 울며 통곡하였고,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도에 동참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에스라의 눈물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며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 신앙회복운동으로 승계되었습니다

① 포로귀환을 통해서 본 선민적 신앙사

고대문명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세계열강들의 각축장 속에 끼여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함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할때에는 주변의 열강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앞에서 바로 서 있을때에는 세계열강들을 흔들며 자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BC. 1050년경, 사울을 초대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불과 4대만에 왕국이 분열되

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BC. 930년) 이스라엘의 분열은 외부로부터 도래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왕의 타락이 빚어낸 결과였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통치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죄와 악으로 뒤덮인 채 단 한번의 재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 남왕국 유다 또한 선과 악으로 갈팡질팡하며 마치 술에 취한 자와 같이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BC. 722년에는 북왕국이 앗수르제국에 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왕국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여 나라조차 없는 상태로 이름과 형식뿐인 선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자와 같은 희미한 희망의 그림자는 그래도 그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 학개, 스가랴, 히스기야, 스룹바벨,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바사왕(페르시아왕) 고레스를 통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한 40,000명의 귀환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위협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념과 각오로 준공된 새로운 성전(BC. 516년)은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영적 중심지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의 굴레속으로 넘어지고, 이로 인하여 마사, 마게도니아, 로마제국등의 식민지시대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BC. 400년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마저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에는 그야말로 암흑기 중의 칠흑같은 암흑기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죄와 전쟁과 회개와 승리를 반복하는 습관에 젖어 버린 이스라엘의 무지함은 결국 나라조차 없는 세월을 보내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대환영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패악이었습니다.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던 후손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세력으로부터는 해방되어 자유하였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전히 죄악으로부터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 사슬을 완전히 끊어 내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①연대(BC)

586년 : 남유다멸망, 바벨론포로(역대하36:11~21, 열왕기하25:1~26)

539년 : 바사왕(페르시아왕) 고레스의 귀환칙령(1:1~4, 역대하36:22`23)

536년 : 스룹바벨(세스바살)에 의한 1차 포로귀환(1:5~11)

536~520년 : 사마리아인에 의한 성전재건방해(4:1~24)

520~516년 :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재건

458년 :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귀환(7:1~10), 에스라에 의한 개혁운동 전개(9:1~10:44)

444년 : 느헤미야에 의해 3차 포로귀환(느헤미야1~13장)

(6) 개요

에스라서는 10장, 280절로 신약성경에 6회 인용되었으며 BC. 539~444년의 기록입니다

I. 스룹바벨이 인도한 제 1차 귀국(1:1~6:22)

- ① 고레스의 조서(1:1~11)
- ② 인구조사(2:1~70)
 - ㉠ 지도자(2:1~2), ㉡ 가계도(2:3~20), ㉢ 지역별 인원수(2:21~35), ㉣ 제사장(2:36~39),
 - ㉤ 레위인(2:40~42), ㉥ 느디님 사람(2:43~54), ㉦ 솔로몬의 신복(2:55~58),
 - ㉧ 불확실한 족보(2:59~63), ㉨ 총수(2:64~70)
- ③ 성전 재건의 시작(3:1~13) : ㉠ 번제의 재개(3:1~6), ㉡ 성전지대의 기초(3:7~13)
- ④ 반대자(4:1~24) : ㉠ 대적들의 협상(4:1~3), ㉡ 방해공작(4:4~5), ㉢ 반대운동(4:6~24)
- ⑤ 계속되는 성전재건(5:1~6:12)
 - ㉠ 선지자의 예언(5:1~2), ㉡ 닛드내의 상소문(5:3~17), ㉢ 다리오의 조서(6:1~12)
- ⑥ 성전의 완공(6:13~22) : ㉠ 성전완공(6:3~15), ㉡ 성전봉헌(6:16~18), ㉢ 유월절(6:19~22)

II. 에스라가 인도한 제2차 귀국(7:1~10:44)

- ① 예루살렘으로의 귀향(7:1~8:36)
 - ㉠ 에스라(7:1~10), ㉡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서(7:11~28), ㉢ 여행의 과정(8:1~36)
- ② 예루살렘에서의 부흥운동(9:1~10:44)
 - ㉠ 백성들의 죄악상(9:1~4), ㉡ 에스라의 고백(9:5~15),
 - ㉢ 백성들의 언약(10:1~8), ㉣ 이방인들을 제함(10:9~44)

17. 느헤미야(הִימָתָן נְהֵמְיָה, Nehemiah)

(1) 명칭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측면에서 느헤미야서의 명칭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느헤미야는 담력과 수완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거룩한 섭리를 통찰하고 페르시아왕실에서의 평안함을 뒤로한 채 유다총독으로서 성벽재건에 주도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율법의 충성과 성벽재건의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산발랏과 결혼한 대제사장의 손자를 용납하지 않은 관계로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으로 52일만에 성벽재건을 완공하였으며 겸손과 신념,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진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2) 저자

본문의 주어로 볼때 느헤미야가 아니고서는 누구에 의해서도 기록될 수 없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3인칭에 관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제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본 자신일 뿐이었습니다(8:9,10:1,12:26). 페르시아왕 다리우스(12:22)와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증손자로 소개하는 앓두아(12:11)로 인해 저자의 혼선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BC. 5세기 말엽의 페르시아왕 다리우스를 다리우스2세로 보는 학자들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BC. 445~425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역사적 실재성은 엘레판틴 파피루스 사본의 발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하난(12:22~23)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느헤미야의 적이었던 산발랏의 아들들을 BC. 408년,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바고아스를 유다총독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본으로 보아 느헤미야는 그 이전에 공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시기는 유다총독(BC. 444~425년) 퇴임후인 BC. 421~4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서 헌작시종의 직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유다총독을 자원하여 성벽재건에 나선지 52일만에 완공을 한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왕에 의해 시작된 성전건축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반대로 수십년이 지나서야 완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때에도 그는 산발랏과 도비야 등의 도발로 인하여 성벽재건공사가 자

첫 상당한시일을 지체할 수 있다는 직감을 하였습니다 "한손에는 쟁기를 들고, 또 한손에는 무기를 들고"계속된 성벽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건축 52일만에 완성되고 성벽의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가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의해 영적인 요소를 취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면, 느헤미야서는 평신도이면서 궁중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에 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 느헤미야의 눈물(1:4) :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우심(누가복음19:41)
- ㉮ 우림과 둠밈(7:65) : 빛(우림), 완전(둠밈)
- ㉮ 성경해석(8:8) : 율법의 완성(마태복음5~7장)

(4) 주제

"성벽재건과 율법교육"(6:15)을 주제로 유다총독 느헤미야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성전의 성벽을 완성함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대국가에서 성벽이 없는 도성은 그 어떤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는 위기의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벽재건은 예루살렘이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성벽재건에도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로 건축은 지연되는 듯 하였으나(4:1~6:14) 52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완공을 함으로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6:15~19) 이것은 성벽재건을 앞두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선하였으며, 느헤미야의 백성에 대한 설득과 권면이 선행된 결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완공으로서 그의 사명을 종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교육(8장)을 하고 회개와 헌신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9~10장)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죄악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5) 내용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유다총독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성벽재건을 반대한 르훔과 심새는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에게 재건반대 상소문을 올려 왕으로 부터 중지 명령을 허가 받았습니다(스가랴4:7~21) 이에 힘을 받은 르훔과 심새는 성벽을 허물고 성문에 불을 지르는 등 강제로 역사를 중지시키는 패악을 저질렀습니다(스가랴4:23,느헤미야1:3)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였기에 하나님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BC. 445년에서 425년까지 20여년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재건과 함께 예루살렘에 퍼져있는 악습을 척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귀국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시대인이었던 에스라의 사역과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느헤미야8:1~9,12:26). 또한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동일한 기간에 영적, 도덕적 부흥운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메시아 탄생 400년전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귀환의 1차 목표는 성벽재건이었습니다. 에스라 귀환 후 13년째이며 스룹바벨의 귀환이 있은지 94년이 지난 BC.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에스라 제사장의 꿈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성벽재건공사의 사역지를 분배하고 사역을 진행하던 중 조롱(4:1~6)과 무력(4:7~9), 실의(4:10)와 두려움(4:11~13), 이기심(5장)과 간사함(6:1~4), 모함(6:5~9)과 위협(6:10~14)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도자이며 용기있는 리더자였던 느헤미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손에는 쟁기를 들고, 또 한손에는 칼을 든 채로 성벽사역을 이어가며 52일이라는 최단시간에 완성을 이루었습니다(6:16).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사람을 사용하여 성벽을 쌓고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도록 신앙의 흙으로 굳건히 세워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재건에 이어 느헤미야가 시작한 것은 죄악과 불신앙으로 부터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 성벽재건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운동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의하고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BC. 433년경,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안식일 준수와 율법을 강조하며,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13:6).

① 연대(BC)

- 538년 :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에스라1:5~11)
- 520~516년 :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재건(에스라5:1~18)
- 458년 :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에스라7:1~10)
- 458년 : 에스라에 의한 개혁운동(에스라9:1~10:44)

445년 :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느헤미야2:1~10)
444년 : 느헤미야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느헤미야3:1~6:19)
432년 : 바벨론으로 소환(느헤미야13:6)
430년 : 느헤미야 귀국과 개혁운동(느헤미야13:6~31)

(6) 개요

느헤미야서는 13장, 406절로 신약성경에 5회 인용되었으며 BC. 445~415년의 기록입니다

I. 느헤미야가주도한 성벽의 재건(1:1~7:73)

- ① 예루살렘으로 돌아옴(1:1~2:20)
- ㉞ 예루살렘의 상황(1:1~7), ㉞ 느헤미야의 간구(1:8~11)
- ㉞ 아닥사스다의 조서(2:1~10), ㉞ 성벽탐사(2:11~20)
- ② 성벽의 증축(3:1~7:4)
- ㉞ 작업할당(3:1~32)
- ㉞ 방해자들(4:1~6:14)
- ㉞ 조롱(4:1~6), ㉞ 모의(4:7~23), ㉞ 착취(5:1~19), ㉞ 거짓협상(6:1~4), ㉞ 중상모략(6:5~9), ㉞ 배신자와의 밀통(6:10~14)
- ㉞ 성벽의 완공(6:15~7:4)
- ③ 돌아온 백성의 계보(7:5~73)

II. 에스라가 주도한 언약의 갱신(8:1~10:39)

- ① 율법의 낭독(8:1~8)
- ② 백성의 슬픔과 기쁨(8:9~18)
- ③ 백성의 회개(9:1~38)
- ④ 언약서에 인을 침(10:1~27)
- ⑤ 언약에 대한 책임(10:28~39)

III. 민족의 개혁(11:1~13:31)

- ① 지역과 인구의 재조정(11:1~12:26)
- ㉞ 예루살렘(11:1~24), ㉞ 다른 성읍(11:25~36), ㉞ 제사장들과 레위인들(12:1~26)
- ② 새 성벽의 봉헌식(12:27~47)
- ③ 백성의 부흥운동(13:1~31)

- ㉠ 비 유대인에 관련된 개혁(13:1~3)
- ㉡ 제사장직과 관련하여(13:4~14)
- ㉢ 안식일과 관련하여(13:15~22)
- ㉣ 이방인과의 혼인에 관련하여(13:23~31)

18. 에스더서(Esther)

(1) 명칭

이 책의 명칭은 이 책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페르시아식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Star)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도금양 나무"라는 의미를 가진 "하닷사"입니다. 에스더서는 롯기와 함께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여자 이름을 제목에 사용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압여인으로 이방인이었던 롯은 유대인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왕 아하수에로와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왕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로 인하여 유대인의 멸망을 좌절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2) 저자

페르시아왕 아하수에로(Xerxes)(BC. 486~465년)의 통치기간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정황으로 볼때(10:2) 이 책은 BC. 465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의 기자가 아하수에로왕 당시의 사건과 BC. 435년 경 화재로 소실된 수산궁(Shushan Palace)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록 연대를 아닥사스다1세 통치기간인 BC. 435~425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모르드개"를 저자로 지명하고 있지만 10:2~3로 볼때 신빙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기자는 페르시아에 거주하며 메대와 페르시아의 궁중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2:23,9:20,10:21).

(3) 기록목적

천지창조 이후 세계의 질서와 인류사를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와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제국의 식민통치 시대, 유다 멸망의 각종 위기와 역경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하만이 제비를 뽑아 정한 날에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하였으나(3:6~7)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오히려 하만과 그 가족이 처형된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10:21~28)의 기원과 그 내력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에스더는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에는 기도와 제사, 성전과 종교제의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신보다는 강한 복수심이 강조되어 있는 에스더서 속

에는 하나님의 숨은 공의와 사랑의 섭리가 도출되며 백성들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와스디가 왕비에서 폐위되고 극적으로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
면서 유대인 위에 드리워 졌던 먹구름은 물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 첫번째 반전이었고, 미세한 간섭과 영향속에서 유대인들의 복잡한 구조는 그 실
타래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 에스더(4:16) : 목숨을 담보로 유대를 구한 에스더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
- ㉡ 다윗왕통(6~10장) : 하만의 계략으로 부터 위기의 유대를 구한 에스더의 지혜
- ㉢ 성령의 역사(5:2,6:1) : 에스더가 왕궁뜰에서 우연히 왕을 만나게 되는 사건속 숨은 진실

(4) 주제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와 유대의 구원"(4:14)을 주제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섭리의 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왕(바사)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간택된 것은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와스디라는 교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폐위되고, 궁중의 뜰을 거닐던 유대여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음모와 계략으로 유대인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모르드개와 힘을 모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에스더는 한편의 소설과 같이 진행되지만 그 역사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중의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인에게는 부림절이라는 새로운 기념일이 제정되었고(9장), 에스더의 지혜는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5) 내용

에스더서는 에스라 6~7장에서 전개된 스룹바벨에 의해 인도된 1차 귀환과 에스라에 의해 인도된 2차 귀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귀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귀환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포로생활로 인하여 모든 생활 기반이 페르시아에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정착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페르시아내 유대인의 대학살을 위기로 부터 극적 구원하는 상황을 생동감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단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차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 흐르는 전반적

인 기운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됨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왕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영토를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확장하였던 다리오1세를 계승하여 왕위에 올라 BC. 485~464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위대한 왕, 왕중의 왕, 광대한 열방의 왕이라고 불렀던 그는 변덕스러운 성격과 함께 향연을 좋아하고 간신배들의 무고를 경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왕은 6개월이 넘도록 향연을 베풀며 자신의 권력과 영화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1:1~8) 미모의 왕비, 와스디를 만민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그는 와스디에게 궁중잔치에 나올것을 명령하였으나, 와스디의 거절로 궁중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하였고, 급기야 이일로 와스디가 폐위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1:13~22) 폐위 후 아하수에르는 즉각적으로 에스더를 왕비로 발탁하였고(2:1~18), 에스더로 인하여 유대인의 멸망 음모도 좌초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녀와 사촌관계 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개도 궁중의 한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가 박단과 데레스에 의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제지시키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직책은 왕으로부터 신뢰받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르시아의 최고실권자 하만의 등장으로 유대인들의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대노한 하만은 페르시아내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하만의 계획과 실행의지는 아하수에르왕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으로 조서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관한 아하수에로의 조서로 인해 하만의 세력은 축제 분위기인 반면, 유대인 사회는 대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개는 이 문제를 극적으로 타개할 사명이 에스더에게 주어졌음을 재차 요구하였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의 신앙으로 화급을 다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아하수에르왕과의 담판을 예고하였습니다(4장)

극적 반전은 하나님의 숨은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개가 하만의 계교를 물리치고 오히려 하만과 그 가족들이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히브리민족의 중요한 절기중 하나인 부림절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민족에 대한 극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하만이 제비를 뽑아 정한 날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하였으나(3:6~7)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오히려 하만과 그 가족들이 처형을 당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이었습니다(10:21~28)

당시 유다백성들은 망국의 설움속에서 각국에 분산되어 살아가는 약소국민에 불과

하였습니다 페르시아제국의 총리대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손아귀에 쥔 하만의 계략으로 한낱 파리목숨에 지나지 않았던 유대민족은 몰살위기에 처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 깊게 보시는 현상들에 대하여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로마서4:17) 에스더와 모르드개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명과 함께 자신을 구한 아하수에는 모르드개를 수상에 임명하여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더 높여 주는 영광의 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유다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면서 이방나라의 포로신분이었던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까지 세우고 그녀를 통하여 유대민족을 구하는 중차대한 일을 함께 이루심으로서 약한자로 하여금 강한자를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사야60:22)

①연대(BC)

538년 : 페르시아왕 고레스 칙령반포,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483년 : 페르시아왕 아하수에는의 왕후 와스디의 폐위(1:1~22)

479년 : 새 왕후 에스더 간택(2:5~18)

474년 : 하만의 음모와 죽음(3:1~7:10)

473년 : 부림절의 기원(9:1~32), 존귀한 자리에 오른 모르드개 수상

458년 :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귀환(에스라7:1~10)

(6) 개요

에스더서는 10장, 167절로 신약성경에 3회 인용되었으며 BC. 483~473년의 기록입니다

I.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위기(1:1~3:15)

① 와스디의 폐위(1:1~22)

② 에스더의 즉위(2:1~20)

③ 모르드개의 공로(2:21~23)

④ 하만의 음모(3:1~15)

II. 에스더의 결심(4:1~5:14)

① 모르드개의 호소(4:1~14)

② 에스더의 응답(4:15~17)

③ 에스더가 베푼 잔치(5:1~8)

④ 하만이 만든 교수대(5:9~14)

Ⅲ.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6:1~10:3)

① 하만의 패배(6:1~7:10) : ㉞ 굴욕(6:1~14), ㉟ 죽음(7:1~10)

②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개의 조서(8:1~17)

③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닥친 멸망(9:1~19)

④ 부림절의 기원(9:20~32)

⑤ 모르드개의 명성(10:1~3)

19. 욥기(Liber Job, Book of Job)

(1) 명칭

욥기는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욥의 이름을 그대로 승계하여 제목이 정하여 졌습니다. 욥은 역사적 실제 인물로서(에스겔14:14, 야고보5:11), BC. 20세기경의 비성경문헌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박해받는 자" 라는 의미를 가진 "이욥"으로 읽혀 지지만 라틴역 성경인 벌게이트(Vulgate) 성경에서는 단음절인 "욥"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고, 서론과 결론만 산문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고대문학의 일반적인 양식에 의한 것으로 지혜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구속의 계시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성경적 일반 지혜서들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저자

혹자는 욥기서가 지혜문학이 성행하였던 솔로몬시대, BC. 10세기경 당시의 익명의 단일기자가 기록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저자에 관한 논쟁은 욥기의 통일성에 관한 회의로 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LXX)은 맛소라 본문(Masoretic texts)에 비하여 20%를 생략한 욥기 본문을 채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첨가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서론과 결론, 지혜의 시(28장), 엘리후의 변론들(32~37장),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 또는 전체(38~41장) 등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내용들이 갖고 있는 상호관계의 구조적 통일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저자가 익명 이듯이 기록연대 또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욥은 족장시대의 초기 인물로 추정하며, 욥의 장수를 주목하여 바라 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참된 제사를 드린 사실에서 이러한 족장시대의 동향들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족장 욥에 대한 전승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구전이나 문자에 의해 전해져 왔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바벨론 포수나 그 후, 또는 BC.1세기까지 바라보는 소수학자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확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학자들은 솔로몬시대, 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거나 확실한 문헌을 보유한 익명의 기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시편88~89편, 열왕기상4:31)

(3) 기록목적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 때로는 억울함과 누명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내외적 갈등은 오직 순종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 등 이스라엘 선민적 요소와 시대적 배경, 등장인물, 사상등의 이방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지혜문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중보자,판결자(9:32) :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디모데전서2:45, 히브리서9:15)

㉯ 땅위에 오실 구속자(19:25) :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에베소서1:7,누가복음 24:21)

(4) 주제

"고의적 고난의 허용과 욕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1:21)를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결백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해 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욕기서의 난제입니다. 욕기서에는 "고통"(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충격적으로 와 닿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과 조건속에서 고통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기서에는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난 테스트에서 유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더 큰 충격은 이러한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속에서도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욕의 의지는 과연 실존인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 였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2차에 걸쳐서 무자비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소식이 끝날 무렵 또 하나의 비보가 연이어 욕의 귓전에 들려 왔습니다. 미처 확인할 틈도 없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는 족장시대 최고의 거부였던 욕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 부족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1~2장). 이것도 잠시, 그를 찾아온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의 방문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3:1~42:6). 욕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주를 하고 그를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 하였으며, 그의 전재산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변 부족들도 그의 몰락을 즐기는 듯 하였습니다. 욕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보기에 욕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오히려 질

병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욥에게는 아직도 남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욥은 내내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부르짖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가 욥에게 만큼은 살아 계셔서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주의 결말을 본 것이었습니다(42:7~17) 사람들은 왜 고난을 겪는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죄와 죄악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와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은 욥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증명하신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5) 내용

유프라테스강변 구스땅은 메소보다미야와 함께 고대근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해 남동쪽 구스땅에 터전을 잡은 욥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구스땅의 존경받는 사람이며, 동방의 의인 욥이 초유의 고난을 겪으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욥기서를 읽으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에 상응할 만한 죄악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으로 인한 욥과 욥의 가족의 충격은 이미 상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쇼크였습니다(1:1,8) 욥에게 닥쳐진 시련과 고통의 이면에는 사탄마귀의 활동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1:10) 사탄마귀는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세적 재물을 취하기 위한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사탄마귀의 대화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제하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하여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진정성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에게 욥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욥에게 닦은 고난과 시련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족장시대, 최고의 갑부였던 욥은 그의 전재산을 하루 아침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을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에게도 피부병에 걸려 한순간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였을때 사탄의 말대로 적중한 것은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극언을 하고 재난을 피해 도망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호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적신으로 이땅에 왔었고 또한 이대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세상을 떠나도

잃은 것이 전혀 없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피부병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그의 입에서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듯한 일부의 언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3장)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의 갑작스런 재난에 당황하며 가장 큰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4~14장). 엘리바스와 발닷과 소발과 엘리후의 방문으로 욥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신앙적 잣대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둔 "자기중심적 신학"으로 욥의 문제를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은 욥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현재의 상황으로 면밀히 직시하라는 것이 그들의 변함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변론은 세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3:3,24,19:7,23:3~5,30:20).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6:4,7:20,9:17). 셋째, 하나님께서 악인의 번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21:7). 욥의 변론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27~31장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인 엘리후의 변론이 끝나자, 하늘에서 폭풍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변론자들의 변론이 끝난 시점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쳐 자연만물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첫번째 음성을 들은 욥은 더이상 변론을 하지 못하였고, 두번째 음성을 들었을때 욥은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만으로도 욥은 최고의 지지와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욥의 신앙은 보다 고차원적으로 높여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이 갑절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한번 재현되는 큰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사탄마귀의 욥에 대한 전쟁은 KO패로 끝났습니다. 더이상 욥에게 사탄마귀가 접근하거나 시비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에는 고난에 관한 사탄마귀와 욥의 세친구와 엘리후(친구)와 하나님의 4대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사람들이 고난없이 잘 살고 축복을 받을때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세친구인 엘리바스와 발닷과 소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엘리바스와 발닷과 함께 세번째 방문에 동참한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결론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 분을 믿도

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자체를 온전히 신앙하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고난을 정의하였습니다

① 욥기서에 나타난 사탄(사단)

욥기서 1장6~12절에는 세상을 여행하던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곳에 함께 서 있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조된 "천상의 존재들"로 천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겔10:20, 욥기38:7, 창세기6:2) 이러한 천상의 존재들의 회합에 초청되지 않은 사단이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욥기1장에는 하나님과 사단사이에 있었던 짧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 본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사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서 그의 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사단은 욥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음으로서 그의 감정과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1:9~11) 셋째, 사단은 욥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로 계획함으로서 독자적인 의지를 지녔음을 보여주었습니다(1:11, 2:4~7) 넷째, 사단이 욥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보아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가축과 짐승들과 소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이 모든 능력이 지역을 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실제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때에도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서 세상만물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섯째, 사단에게는 본질적으로 선(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惡)이 그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사단은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숨길 능력이 있고 그것을 미화하고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공격과 교만과 성냄과 분열과 헛소문과 전쟁과 다툼과 비방과 살인과 종교와 불신과 불신앙 등 모든 요소들을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믿는 자를 현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적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1:12, 2:6) 사단은 실제 인격적인 동시에 영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사단이란 뜻은 그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하심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항하는 "대적자", "참소하는 자"(히브리어, 하사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로 부터 땅으로 왔으며, 그 땅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비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자유를 천년왕국에서 천년동안 강금 당한 후(요한계시록20:2) 영원 불못에 떨어지기 까지(마태복음25:41) 자신의 악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것입

니다

(6) 개요

욥기는 42장, 1070절로 신약성경에 36회 인용되었으며, BC. 족장시대?의 기록입니다

I. 욥에게 닥친 고난(1:1~2:13)

- ㉠ 순전한 욥의 행복(1:1~5)
- ㉡ 욥에게 겹쳐오는 재난(1:6~2:10)
- ㉢ 사단의 제안(1:6~11), ㉣ 하나님의 허락(1:12~22),
- ㉤ 사단의 고집(2:1~6), ㉥ 욥의 인내(2:7~10)
- ㉦ 욥의 세 친구들(엘리바스, 발닷, 소발)(2:11~13)

II. 욥과 세 친구의 변론(3:1~42:6)

- ㉠ 욥의 탄식(3:1~26)
- ㉡ 엘리바스의 첫번째 변론(4:1~5:27)과 욥의 답변(6:1~7:21)
- ㉢ 발닷의 첫번째 변론(8:1~22)과 욥의 답변(9:1~10:22)
- ㉣ 소발의 첫번째 변론(11:1~20)과 욥의 답변(12:1~14:22)
- ㉤ 엘리바스의 두번째 변론(15:1~35)과 욥의 답변(16:1~17:16)
- ㉥ 발닷의 두번째 변론(18:1~21)과 욥의 답변(19:1~29)
- ㉦ 소발의 두번째 변론(20:1~29)과 욥의 답변(21:1~34)
- ㉧ 엘리바스의 세번째 변론(22:1~30)과 욥의 답변(23:1~24:25)
- ㉨ 발닷의 세번째 변론(25:1~6)과 욥의 답변(26:1~14)
- ㉩ 친구들에 대한 욥의 마지막 답변(27:1~31:40)
- ㉪ 욥이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함(27:1~23)
- ㉫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선언(28:1~28)
- ㉬ 그의 일생의 전개(29:1~31:40)
- ㉭ 엘리후의 변론(32:1~37:24)
- ㉮ 첫번째 변론(32:1~33:33), ㉯ 두번째 변론(34:1~37),
- ㉰ 세번째 변론(35:1~16), ㉱ 네번째 변론(36:1~37:24)
- ㉲ 하나님의 말씀(38:1~42:6)
- ㉳ 하나님의 첫번째 말씀(지식)(38:1~40:2), ㉴ 욥의 지혜로운 침묵(40:3~5),
- ㉵ 하나님의 두번째 말씀(능력)(40:6~41:34), ㉶ 욥의 회개(42:1~6)

Ⅲ. 욕이 얻은 구원(42:7~17)

- ① 그의 친구들에 관하여(42:7~9)
- ② 그의 가족에 관하여(42:10~17)

20. 시편(詩篇, Psalms, Tehilim מִלְיִהָת)

(1) 명칭

성경 가운데 시편처럼 가장 직관적이고 선명하며 아름다운 종교적 체험이 다양하게 표현된 책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도있는 지혜(insight)는 시편과 제사의식의 결합속에 영원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얻어진 인간의 영적 체험이 한 권에 집대성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있습니다. 시편은 순수하고 감격스러운 감동의 자발적인 표현들입니다.

히브리 구약성경은 율법, 예언서, 성문서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시편의 중요성은 성문서의 서두에 나오면서 전체의 대표로 지칭된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누가복음24:44). 유대인의 찬송인 시편은 150편, 2,461절로 되어 있으며, 신약성경에서 454회나 인용되는 가장 지명도가 높은 책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찬양"을 의미하는 "테힐림"(tehillim), 또는 "찬양의 책"을 의미하는 "세페르 테힐림"이란 제목으로 사용되었으며, 70인역에서는 "시가의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달리 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편이라고 칭하는 것 또한 시편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표제문 연구

150편의 시편 가운데 116편에는 상단에 표제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문은 시의 저자, 작시의 배경, 시의 특별한 용도 또는 특징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각시의 표제문은 시의 형태를 지칭하는 기술적 명칭, 음악용어, 찬양의 선율, 전례의 표기, 역사적 사실중 일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들은 후대의 기자들이 편집과정에서 첨부한 것으로 그 역사적 내용은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기술적 용어는 "셀라"와 "영장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71회, 하박국 3장에서 3회 사용된 셀라는 반주부의 막간이나 변화를 알리는 음악적 표기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장"(노래 지휘자)라는 의미의 "메낫체아흐"라는 말은 55편의 시와 하박국 3:19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영장을 위해 준비된 시를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㉞ 시의 양식

- ㉠ 미즈모르 : "시"라는 의미로서 종교적 예배에만 사용(3편 등 57건)
- ㉡ 쉬르 : "노래"라는 의미로서 종교적, 세속적 노래에 함께 사용(4편 등 30건)
- ㉢ 마스길 : 교훈시(32편 등 13건)
- ㉣ 믹담 : 황금시, 금연시(6편 등 6건)
- ㉤ 쉼가욀 : ?(7편)
- ㉥ 테필라하 : "기도"의 의미(17편 등 5건)
- ㉦ 테힐라하 : "찬송시"의 의미(145편 등 145건)

(2) 저자

시편은 다윗(73편), 솔로몬(2편:72,127), 고라자손들(12편:민수기26:9~11), 아삽(12편:에스라2:41), 헤만(1편:88편,열왕기상4:31), 에단(1편:89편,역대상15:19), 모세(1편:90편) 등 7명의 실명과 익명의 시들이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사무엘하23:1)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 BC.10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BC. 15~5세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대속에서 전해 내려온 것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시편 5권은 솔로몬(1권), 고라자손(2권), 아삽(3권), 에스라,느헤미야(4~5권)에 의해 각각 수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권의 최종적인 완성은 에스라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는 정교한 예술적 기교보다는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회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단어들은 시각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히브리 시는 다른 일반적인 시들과는 달리 음악적 효과를 위하여 운율을 사용하지 않고, 리듬과 함께 반복, 변형, 대조의 방법으로 주제를 강조하는 대귀법(對句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사용하는 리듬과 효과들은 어떤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대화하거나 감사와 찬양을 보다 강조하려는 시도들은 시편의 영감을 보다 영적으로 승화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시편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계층의 신앙인들에 의해 작성되고 집대성한 것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편의 중심에는 이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재된 신앙적 공감의식의 확장으로 인하여 각종 공식예배 및 가정과 회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회화적인 언어인 관계로 신앙 심성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모든 성경 가운데 시편이라 할 것입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㉔ 메시아(2,16,22,24,40,45,68,69,72,97,110,118)
- ㉕ 참목자(23편)
- ㉖ 말씀이신 그리스도(119편)
- ㉗ 영광의 왕(42편)
- ㉘ 수난당할 주(22편)

(4) 주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라"(150:6)는 주제로 시편은 창조와 사랑, 해방과 구속, 성소와 예배, 방황과 고난, 율법과 찬양 등 5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Hallelujah)를 시편의 핵심단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시편은 찬양과 경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50편을 이루는 각각의 시인들은 다른시대와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셨으며, 그 분을 통하여 영원과 영원으로 연결되는 고리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함으로써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의 통일된 동일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내용

시편은 150편, 2461절로 신약성경에 454회 인용되었으며, BC. 1500~450년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은 주제별 관련성과 상관없이 각 시대별로 다섯차례에 걸쳐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편집된 것은 모세오경과 상관관계를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사용한 듯 하였습니다. 또한 1~2편과 150편의 위치 또한 서론과 송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위적인 배열의 고조를 갖추었습니다.

I. 제1권

제1권은 1~41편까지 41편으로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해당하며 "창조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1권은 주로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편1편은 이스라엘 신앙에 관한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하고 묵상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에 나타난 여호와의 가르침인 동시에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1편이 개인적 신앙생활의 핵심소재라면, 2편은 대외적인 차원의 신앙의 핵심소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사상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편과 2편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여호와

율법을 즐겁게 성취하며 묵상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권에 나타난 주요사상은 피조물인 사람에게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들과 그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두 분류의 사람들의 모습과 참된 신앙을 갖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시편1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II. 제2권

제2권은 42~72편까지 31편으로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 해당하며 "해방과 구속"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고라의 자손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교회적인 소망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명령을 따라 처음가는 길에서 우리는 은총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삶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III. 제3권

제3권은 73~89편까지 17편으로 모세오경의 레위기에 해당하며 "성소와 예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로서 레위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인간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구조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운과 축복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끼며 사회적 모순에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고 사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IV. 제4권

제4권은 90~106편까지 17편으로 모세오경의 민수기에 해당하며 "방황과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4권은 주로 저자 미상의 시들로서 삶에 대한 방황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인하여 의인은 불안해 하고, 악인들이 받는 축복에 대하여 신앙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참된 기쁨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 제5권

제5권은 107~150편까지 44편으로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해당하며 "율법과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5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

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시편에서는 베벨론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고단한 인생속에서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으며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이라는 결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① 유명한 시편

1편 : 복있는 사람

16편 : 다윗의 황금시 ,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23편 : 찬양시, 여호와께 나의 목자

47편 : 찬양의 시, 찬양찬양찬양하라

51편 :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후 하나님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

62편 : 다윗 :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찬양곡으로 많이 나옴

63편 : 다윗 :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옴, 찬양곡으로 많이 나옴

117편 :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2절)

119편 : 성경에서 가장 긴 장(176절)

136편 : 대할렐(The Great Hallel)

150편 :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대 할렐루야(The Great Hallelujah))

(6) 개요

시편은 150편, 2461절로 신약성경에 454회 인용되었으며, BC. 1500~450년의 기록입니다

I. 제1권(1~41편) : 다윗의 시, 창조와 사랑

1편(6절) : 익명 : 복있는 사람

2편(12절) : 익명 : 너는 내 아들이라

3편(8절) : 다윗 : 압살롬으로 부터 피신할 때의 대적

4편(8절) : 다윗의 영장현악 : 환난에서 평안함으로

5편(12절) : 다윗의 영장관악 : 행악자는 미움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6편(10절) : 다윗 스미닛(낮은음) :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다윗

7편(17절) : 다윗 식가온(황홀경) :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한 베냐민인구시

8편(9절) : 다윗영장 깃딤(기쁜곡조) :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 9편(20절) : 다윗 뭇랍벤(악사의 죽음과 같은 곡조명) : 수리아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감사
- 10편(18절) : 다윗(익명설) :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비탄의 시)
- 11편(7절) : 다윗의 영장시 :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 12편(8절) : 다윗 스미닛(낮은음) : 말씀은 일곱번 단련한 은과 같다
- 13편(6절) : 다윗의 영장시 :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려나이까
- 14편(7절) : 다윗의 영장시(53편과 유사) : 어리석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 15편(5절) : 다윗 : 주의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
- 16편(11절) : 다윗 믹담(황금시) :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 17편(15절) : 다윗의 기도 : 금생의 분깃을 받은 자
- 18편(50절) : 다윗 :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 19편(14절) : 다윗의 영장시 : 자연 율법을 찬양
- 20편(9절) : 다윗의 영장시 : 기름 부은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 21편(13절) : 다윗의 영장시 : 구원을 기뻐함
- 22편(31절) : 익명, 아엘렛 샤할(새벽의 사슴과 같은 곡조명) : 어찌 버리시나이까, 비탄의 시
- 23편(6절) : 다윗 : 여호와와 나의 목자
- 24편(10절) : 다윗 : 왕이 들어가심
- 25편(22절) : 다윗 :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 26편(12절) : 다윗 : 완전함에 행한 판단
- 27편(14절) : 다윗 : 누구를 두려워 하랴
- 28편(9절) : 다윗 : 주께서 잠잠하면 나는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이
- 29편(11절) : 다윗 : 여호와의 소리(7번)
- 30편(12절) : 다윗의 시낙성가 : 노염은 잠간이며 은총은 평생토록
- 31편(24절) : 다윗의 영장시 : 구설수와 다툼에서 면케하신 주
- 32편(11절) : 다윗의 마스길(교훈시) :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신자의 복
- 33편(22절) : 익명 :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나라의 복
- 34편(22절) : 다윗 :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척 하다가 생명을 보존한 다윗
- 35편(28절) : 다윗 : 내 기도 내 품으로 돌아온다
- 36편(12절) : 다윗의 영장시 :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다
- 37편(40절) : 다윗 :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 38편(22절) : 다윗 : 내 죄악이 머리에 넘침으로 참회합니다
- 39편(13절) : 다윗 : 쓰라린 슬픔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다윗
- 40편(17절) : 다윗의 영장시 :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 41편(13절) : 다윗의 영장시 : 재앙의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

II. 제2권(42~72편) : 다윗의 삶, 해방과 구속

42편(11절) : 고라 마스길(교훈시) :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43편(5절) : 익명 :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44편(26절) : 고라 마스길(교훈시) :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음
45편(17절) : 고라 마스길(교훈시) : 사랑의 노래
46편(11절) : 고라자손의 시 :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47편(9절) : 고라자손의 시 : 찬양하라 찬양하라
48편(14절) : 고라자손의 시 :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를 즐거워 함
49편(20절) : 고라자손의 시 : 존귀에 처하나 못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50편(23절) : 아삽의 시 : 환난날에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함이라
51편(19절) : 다윗 :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후 하나님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
52편(9절) : 다윗 마스길(교훈시) :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53편(6절) : 다윗 마스길(교훈시) :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54편(7절) : 다윗 마스길(교훈시) :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심
55편(23절) : 다윗 마스길(교훈시) : 입은 우유, 마음은 전쟁, 말은 기름부드러움, 실상은 뽑힌 칼
56편(13절) : 다윗 믹담(황금시) :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사망에서 구원하소서
57편(11절) : 다윗 믹담(황금시) :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58편(11절) : 다윗 믹담(황금시) :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으로 인하여 기뻐함
59편(17절) : 다윗 믹담(황금시) : 개처럼 울며 성으로 다니게, 나의 산성이시라
60편(12절) : 다윗 마스길(교훈시) : 경외자에게 기, 대적을 밟으심
61편(8절) : 다윗의 영장시 : 주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나의 서원을 이행
62편(12절) : 다윗 :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3편(11절) : 다윗 :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
64편(10절) : 다윗의 영장시 : 언행을 조심하라
65편(13절) : 다윗의 영장시 : 초장에는 양떼들이,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다 즐거이 노래함
66편(20절) : 익명의 영장시 : 온 땅 주께 경배, 주를 찬양
67편(7절) : 익명의 영장현악 : 우리에게 복 주시리니 모든 것이 하나님 찬양
68편(35절) : 다윗의 영장시 : 고아 아버지 바산산은 하나님 산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여호와
69편(36절) : 다윗 소산님(백합화 곡조) : 적들이 징벌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
70편(5절) : 다윗의 영장노래 : 대적자들로부터의 구원
71편(24절) : 익명 : 늙어 백수될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72편(19절) : 솔로몬 : 의와 평강과 능력과 자비와 번영

Ⅲ. 제3권(73~89편) : 이스라엘 역사, 지성소와 예배

- 73편(28절) : 아삽의 시 : 악인의 형통
- 74편(23절) : 익명, 마스길(교훈시) : 성소 화재
- 75편(10절) : 익명, 알다스헛 : 악인에게 심판을 경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 76편(12절) : 익명, 현악 : 백성의 찬양과 하나님의 승리
- 77편(20절) : 익명, 여두둔 :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외침과 은혜의 역사
- 78편(72절) : 익명, 마스길(교훈시) :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
- 79편(13절) : 익명 : 예루살렘의 모독을 슬퍼함
- 80편(19절) : 익명, 소산님(백합화곡조) : 앗수르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북방민족
- 81편(16절) : 익명, 깃딤(기쁜곡조) :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
- 82편(8절) : 익명 : 세상을 판단
- 83편(18절) : 아삽 : 세계의 지존자
- 84편(12절) : 고라자손 : 주의 장막사랑
- 85편(13절) : 고라자손 : 귀환, 죄악, 용서
- 86편(17절) : 다윗 : 궁핍
- 87편(7절) : 고라자손 : 영광스러운 시온
- 88편(18절) : 고라자손 : 주 얼굴을 숨김
- 89편(52절) : 익명, 에스라인 에단 : 세계열왕 언약

Ⅳ. 제4권(90~106편) : 공의와 공평, 방황과 고난

- 90편(17절) : 모세 : 연수가 강건하여도 70에서 80까지
- 91편(16절) : 익명 : 은밀하신 지존자
- 92편(15절) : 익명 : 늙어도 풍부함
- 93편(5절) : 익명 : 통치
- 94편(23절) : 익명 : 공의
- 95편(11절) : 익명 : 모든 신들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 96편(13절) : 익명 : 심판주
- 97편(12절) : 익명 : 초월하신 주
- 98편(9절) : 익명 : 땅을 위로함
- 99편(9절) : 익명 : 거룩한 찬양
- 100편(5절) : 익명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101편(8절) : 다윗 : 인자롭고 공의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 102편(28절) : 익명 : 중년에 마소서
- 103편(22절) : 다윗 : 인생은 풀과 같다
- 104편(35절) : 다윗 : 천지창조

105편(45절) : 출애굽 역사

106편(48절) : 출애굽 회복역사

V. 제5권(107~150편) : 율법과 찬양

107편(43절) : 익명 :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찬양

108편(13절) : 다윗 :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

109편(31절) : 다윗 : 연수를 단축케 하시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110편(7절) : 다윗 :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에 두리라

111편(10절) : 익명 :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112편(10절) : 익명 : 경외하는자에게 복을 주어 후손이 강성하고

113편(9절) : 익명 : 해돋고 지는데 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114편(8절) : 익명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115편(18절) : 익명 : 여호와를 의지하며 방패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봄

116편(19절) : 익명 : 성도의 죽으심을 귀하게 보시는 여호와

117편(2절) : 익명 :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18편(29절) : 익명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119편(176절) : 익명 :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자

120편(7절) : 익명 : 환난중에 부르짖음

121편(8절) : 익명 :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122편(9절) : 익명 : 성안에는 평강이, 궁중에는 형통이

123편(4절) : 익명 :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124편(8절) : 익명 : 적으로부터 보호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125편(5절) : 익명 :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

126편(6절) : 익명 :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127편(5절) : 익명 :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128편(6절) : 익명 :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129편(8절) : 익명 : 악인의 줄을 끊어버리는 여호와

130편(8절) : 익명 : 파수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131편(3절) : 익명 : 내 중심이 젖뎀 아이와 같다

132편(18절) : 익명 : 기름부은자를 위해 등을 예비하심

133편(3절) : 익명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134편(3절) : 익명 :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심

135편(21절) : 익명 :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36편(26절) : 익명 :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37편(8절) : 익명 : 시온을 기억하며 애통해 하나이다
138편(9절) : 익명 : 주께서 소성케 하시고 내게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소서
139편(8절) : 익명 :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여 주의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140편(13절) : 익명 : 악인에서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여 주소서
141편(10절) : 익명 : 내 입앞에 파수군을 세우시고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
142편(7절) : 익명 :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시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143편(12절) : 익명 :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144편(15절) : 익명 :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생이 무엇이길래
145편(21절) : 익명 : 왕이신 나의 하나님
146편(10절) : 익명 :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147편(20절) : 익명 : 별의 수효를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148편(14절) : 익명 :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물과 불과 우박과 아이들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149편(9절) : 익명 : 영광중에 즐거워 하고 기뻐 찬양하라
150편(6절) : 익명 : 호흡이 있는자 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21. 잠언(箴言, Liber Proverbiorum)

(1) 명칭

히브리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의미의 "미셀레 쉐로모"(Meshalim)를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셀레"는 "마살"(Mashal)의 복수형인데 "골수에 사무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로 명성을 떨쳤기 때문이며, 그의 지혜로움은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의 이름 그 자체가 지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생략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잠언"(Proverb)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저자

잠언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1:1,10:1,25:1) 그런 의미에서 22:17~24:22, 24:23~34(이상 "아굴"의 글로 추정), 30:1~31:31(이상 "르무엘"의 글로 추정) 등 세 군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단정지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왕기상서 4:32에 의하면 솔로몬은 잠언 3000과 노래 1005편을 지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후반부는 히스기야왕의 서기관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실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로들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의 초기 공적과 인간성까지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첩을 둔 것으로 인하여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변론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하여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패악된 우상숭배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까지 둘로 쪼개진 사건은 치명적인 오류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열왕기상11:7~9) 솔로몬의 잠언 후반부를 덮고 있는 아굴의 글과 르무엘의 글에 대한 개인적 정보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안에서는 잠언의 기록 및 수집연대에 관한 그 어떤 실효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BC. 2세기경에 정경으로 인정되었고, 최종편집은 BC. 400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들이 기록된 후(BC. 970~931년), 히스기야왕 재위기간중 다른 부분과 함께 편집된 것을 고려할 때(BC. 728~697년) 잠언의 기록연대는 BC. 950~700년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보편 타당할 것입니다

(3) 기록목적

가장 고귀한 지식과 지혜서로 알려진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속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과 다양한 경험의 실패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허무주의속에서 솔로몬은 페미니즘에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존귀한 왕은 그가 일생을 통하여 느꼈던 참회의 글을 기록하면서 더 이상의 이와같은 반복된 오류는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서 가운데 BC. 2700년경에 기록된 이집트의 "아메네몹"(Amenemop)의 격언들과 유사점이 있으나 솔로몬의 잠언서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성과 우월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㉔ 지혜의 근본(8:24~25) : 그리스도의 신성(골로새서1:15~16)
- ㉕ 지혜의 말씀(8:27~30)
- ㉖ 지혜의 교훈(17:32~35)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 ㉗ 지혜의 통치(8:15~16)
- ㉘ 생명의 근원(8:35~36)

(4) 주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1:7,3:5~6)를 주제로 22:16까지는 375개의 시와 대화와 금언과 격언이 사용되었고 22:17~24장까지 16개의 경구(풍자어,epigram)가 사용되었습니다.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wisdom)의 근본"(1:7)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Understanding)이라고 하였습니다(9:10). 이와같이 솔로몬은 그의 공과 과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지혜(wisdom)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의 교훈이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기록하였음을 내면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5) 내용

잠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지혜"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속에서 만나는 어리석음, 죄, 선함, 재물, 명예, 권력, 가난, 말, 자만심, 겸손, 공의, 복수, 싸움, 대식가, 사랑, 색욕, 게으름, 친구, 가정, 삶과 죽음들과 교훈관계를 이루며 적용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본질은 윤리적 기준에 의한 교훈입니다. 1~9장에는 선과 악의 대조가 묘사되며 선은 지혜, 교훈, 명철(Understanding), 정의,

평등, 지식, 근신, 학식, 훈계 등과 같이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 지고 있고, 지혜는 17회 언급되고 나머지는 22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은 3:15에 처음 인용되며 3:15~18과 7:4에서 언급되듯이 지혜는 창기와 이방여인이 아니라 "정숙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덕을 대표 하듯이 이방여인도 모든 악과 죄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길거리에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9:4)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7이 말하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지혜는 윤리적 관점에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허영이 함께 구조화된 인간의 지식(전도서2:12~15)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기28장과 시편37:30에서 지혜의 바른 윤리적 개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연과학에 통달한 자"(열왕기상4:33), "명 판사"(열왕기상3:16~28), "높은 식견을 가진 자"(열왕기상10:1~9)로 명성을 날리며 인간의 지적 재능위에 인간의 지식을 가치있는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요소인 윤리성을 지혜의 개념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전반부에서 말하는 지혜는 통속적인 요소를 전혀 배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 할 것입니다

10:1~22:6 은 순수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교훈은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절에 대비하여 후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조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대조와 같이 무엇과 어떤 삶을 살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비웃는 자, 완고한 자 등과 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하는 것입니다 "정직, 성실, 생명, 공의, 사랑, 자비"와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할 가족과 자녀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깨닫고,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교훈하고 반복하지 말자는 중요한 의미와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6) 개요

잠언은 31장, 915절로 신약성경에 66회 인용되었으며, BC. 970~697년의 기록입니다

I. 머리말(1:1~7) : ① 저자(1:1), ② 목적(1:2~6), ③ 주제(1:7)

II. 지혜의 교훈(1:8~9:18)

①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1:8~19), ② 지혜의 충고를 따르라(1:20~33), ③ 음녀를 피하라(2:1~22),

④ 하나님을 경외하라(3:1~12), ⑤ 지혜의 가치(3:13~20), ⑥ 친절과 관용(3:21~35),

⑦ 지혜를 얻으라(4:1~9), ⑧ 악한 동무를 삼가라(4:10~19), ⑨ 마음을 지키라(4:20~27),

⑩ 색욕을 버리라(5:1~23), ⑪ 보증금지(6:1~5), ⑫ 게으르지 말라(6:6~19),

⑬ 간음하지 말라(6:20~35), ⑭ 창기를 피하라(7:1~27),

⑮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8:1~9:18) : ㉠ 지혜의 탁월함(8:1~21), ㉡ 지혜의 기원(8:22~31),

㉢ 지혜로운 자(8:32~36), ㉣ 어리석은 여자(9:1~18)

Ⅲ. 솔로몬의 잠언(10:1~22:16) : ① 선악의 대조(10:1~15:33), ② 경건한 생활(16:1~22:16)

Ⅳ. 현자들의 잠언(22:17~24:34)

① 여러가지 행실에 관한 잠언들(22:17~23:35)

② 여러가지 사람들에 관한 잠언들(24:1~34)

Ⅴ. 후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들(25:1~29:27)

① 인간관계(25:1~26:28) : ㉠ 왕과의 관계(25:1~7), ㉡ 이웃들과의 관계(25:8~20),

㉢ 원수들과의 관계(25:21~24), ㉣ 자신과의 관계(25:25~26:2),

㉤ 어리석은자와의 관계(26:3~12), ㉥ 태만한자와의 관계(26:13~16), ㉦ 험담(26:17~28)

② 처신에 관한 잠언들(27:1~29:27) :

㉠ 생활(27:1~27), ㉡ 법(28:1~10), ㉢ 재물(28:11~28), ㉣ 고집(29:1~27)

Ⅵ. 아굴의 잠언(30:1~33) : ① 개인적인 말(30:1~14), ② 여러가지 말들(30:15~33)

Ⅶ. 르무엘의 잠언(31:1~9)

Ⅷ. 선한 아내(31:10~31)

22. 전도서(傳道書, קהלת, Ecclesiastes)

(1) 명칭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말하거나 전달하는 사람", "성직자", "설교자"라는 의미의 "코헬렛"(Kohleth, קהלת)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성경에서는 "집회"(assembly)라는 의미의 "에클레아스테스"(Ecclesiastes), 즉 "설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도서"(傳道書)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2) 저자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전도자"(코헬렛)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1)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적인 "지혜"(1:16), 엄청난 재력(2:7),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향락과 유희를 누렸거나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록연대에 관하여도 BC. 150년경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솔로몬 말기인 BC. 93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실패경험을 통하여 인생의 참 진리와 행복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증언함으로서 역설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진리의 도를 전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설교를 피하고 인생의 실패에서 얻은 탄식과 번민의 과정을 상세하게 나열함으로서 진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현세의 영광이나 축복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할 때에는 절망과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에 대하여 회의를 느낄 뿐 결국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I. 그리스도의 모형

- ① 한 목자(12:11) : 참목자(요한복음10장)
- ② 섬김을 받을자(3:11)
- ③ 풍성케 하시는 자(1~2장) : 참된 삶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요한복음10:9~10)
- ④ 낮아지신 자(9:15)
- ⑤ 말씀을 기뻐하는 자(5:1)

⑥ 의무를 다한 자(12:13)

(4) 주제

"인생의 헛됨속에서 발견하는 참된 하나님의 선"(1:2)을 주제로 인간이 지혜를 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 가지만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허무요 헛됨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주의, 페미니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영적 의미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헛됨"(Futility)이며 전도서에서만 3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연의 질서와 인간사회의 병폐에 대하여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속에는 죄악이 여전히 솟구치고 있고, 욕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과 참된 선을 찾기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우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알게 되었을때 늦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라는 솔로몬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 내용

전도서의 메시지는 세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없이 반복되며(1:4),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과 같이 보이는 인생을 볼 때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3:12~13,3:22,5:18~19,8:15,9:7~9) 셋째, 지혜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3:16~17,12:14)

히브리인들이 이 책의 해석과 정경성의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정도로 전도서는 가장 난해한 책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이 육체적 향락을 추구한다면 분명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공허(Emptiness), 무의미(Meaninglessness)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대 인간들은 헛된 육체의 쾌락과 물질의 부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염세주의적 표현을 일종의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너는 청년의 때...창조자를 기억하라"(12장)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자신은 창조자가 아니며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발명자를 예로 드는 솔로몬은 육체의 소멸을 이야기 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로 시작되는 12장은 노년의 통증, 나이먹어 떨어지는 손, 힘있는 자의 구부러짐, 치아가 없는 노인 등 삶이 무의미하게도 죽음을 향하여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자의 지혜와 순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쾌락과 유희는 그의 삶을 결국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열왕기상3:4~9)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세상 영광에 물들기 이전에(열왕기상11:1) 얻은 지혜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세상에 빠지고 물들어 버린 후에 기록함으로서 잠언은 지혜를 말하고 전도서는 허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① 전도서와 과학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1:6) 갈릴레오 시대(AD. 1630)까지도 바람의 정기적 순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기의 순환이란 두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지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태양 복사열의 차이이고 또 하나는 지구의 자전입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바람의 순환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순환되는 바람은 결국 한바퀴를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전도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전도서의 과학적 증명이 실현된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1:7) 물의 순환은 16~17세기에 이르러서야 과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기상학자 페라울트(Pierre Perrault)와 마리오테(Edme Marioete)는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를 최초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증발, 응결, 강수되는 물의 순환은 항상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의 평균 수위는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도서에서 오래전에 증명함으로서 성경의 과학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② 돈에 대한 성도의 자세

성경은 돈에 대하여 무조건 죄악시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실제로는 돈을 벌기위해 분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돈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돈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돈을 우상처럼 절대시 하는 죄악적 속성때문입니다 또한 돈이 미래와 자녀세대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 순간적 쾌락과 즐거움과 풍요로운 삶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중심으

로 세상권력과 명예가 움직이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과 계획과 행위가 조성되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돈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청년이 가진 재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 처럼 성도의 삶도 거기에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사업을 위해 언제든지 아낌없이 내 놓을 각오가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물질은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성경의 행복론

인간의 행복은 영혼의 문제로 "심령의 낙"(6:3)을 의미합니다 건강, 부귀 등의 행복의 요소들과 행복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재산, 부귀, 명예, 오락, 권세 등은 육신적 안락함과 일시적 행복감을 주기에 편리한 요소들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행복을 안겨다 주는 요소로는 부족, 또는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께로 부터 찾을 수 있는 영적 위안의 요소들일 것입니다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행복의 근거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죽음과 죄의 그늘이 없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회개로 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통하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행복의 조건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3:11)로서 영원성과 절대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하며, 세속적인 위치에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물질적 요소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천국의 무형속에서 위치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6) 개요

전도서는 12장, 222절로 신약성경에 6회 인용되었으며, BC. 935년 전후의 기록입니다

I. 저자와 논제(1:1~3)

II. 인생무상(1:4~2:26)

① 인생의 허무함(1:4~11), ② 인간의 지혜의 허무함(1:12~18), ③ 기쁨과 재물의 허무함(2:1~11),

④ 유물주의의 허무함(2:12~23), 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라(2:24~26)

Ⅲ.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3:1~22)

① 생활에 질서를 주심(3:1~11), ② 생의 선물을 주심(3:12~13),

③ 장래의 심판을 보여 주심(3:14~21), ④ 결론(3:22)

Ⅳ. 인간의 헛된 노력(4:1~5:20) : ① 압제(4:1~3), ② 일(4:4~12), ③ 정치적 성공(4:13~16),

④ 거짓예배(5:1~7), ⑤ 재물(5:8~17), ⑥ 결론(5:18~20)

Ⅴ. 헛된 재물(6:1~12)

Ⅵ. 인생을 위한 충고(7:1~12:8)

① 사람의 악에 관하여(7:1~29)

②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에 관하여(8:1~9:18)

③ 인생의 불확실성에 관하여(10:1~20)

④ 노년에 관하여(11:1~12:8)

Ⅶ. 결론(12:9~14)

23. 아가서(雅歌書, Song of Songs)

(1) 명칭

아가서는 본래 아가, 롯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로 구성된 다섯 두루마리(Five Megillothor rolls)중 제1 두루마리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가서는 유월절, 롯기는 오순절, 애가는 압월(Ab, 7월15일~8월15일) 제9일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 전 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부림절에 각각 낭독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의 "쉬르 하쉬림"으로 영어로는 "Song of Songs"(노래 중의 노래)로 번역되었습니다

(2) 저자

"솔로몬의 아가라"(1:1)와 같이 아가서는 연애시로서 전통적 견해로는 솔로몬이 저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노래 1005편 가운데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열왕기상4:32) 이 책이 갖고 있는 통찰과 재능으로도 솔로몬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통일성 또한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일한 후렴구가 2:7, 3:5, 8:4에서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적 이미지와 동일한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절정기였던 BC. 965년경 아가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① 알레고리적 해석법 : 고대 유대인 사이에서 발생되어 현재의 기독교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의 선민 사이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으로 신앙하였습니다 또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뢰하였습니다

② 상징적 해석법 :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법이 문자적 의미에 충실하였다면, 상징적 해석법은 영적 의미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③ 극적 해석법 : 솔로몬이 소박한 시골 소녀인 술람미 여인때문에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제3의 등장인물로 목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취했지만 그녀는 끝내 목자를 잊지 못한다는 드라마같은 견해입니다

④ 사실주의적 해석법 :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로 보는 견해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현실적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3) 기록목적

솔로몬은 자신의 연애 체험을 바탕에 둔 아가서는 간접적 계시로서 성도들에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건전한 사랑의 기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주제를 다룬 다른 성경과는 달리 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연애감정을 놀라운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녀의 사랑에 경건성이 결합됨으로서 영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유래한 시적 이미지가 총만하고 유월절의 기쁨을 노래한 시로 고대 히브리사회에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㉗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 :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 ㉘ 교회의 신랑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부인 백성들

(4) 주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남녀의 사랑이 주는 기쁨"(6:3)을 주제로 육체의 아름다움과 결혼생활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이므로(야고보1:17) 그 자체로서 선하고 순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가서는 구애와 결혼에서 있어서의 사랑의 기쁨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금욕주의와 육욕의 양극단에 대한 중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부관계 내에서의 사랑에 관한 올바른 정의가 존중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예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는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한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거룩성을 잃은 내용으로 정경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에 담겨있는 영적 위대성과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결국 정경에 포함되는 역사가 고스란히 내려 옵니다.

(5) 내용

아가서에는 섬세한 애정, 정열적 욕망, 우정, 쾌락, 기쁨, 갈등, 고통과 번민, 상호간의 진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간의 복잡한 관계속에서도 사랑의 시작, 진전, 갈등극복과 승리로 성숙해 가는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남녀관계를 육체적인 묘사와 함께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고대 유대교 사회에서 문헌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신앙하는 그 이면에는 아가서가 갖는 하나님과 교회와 인간관계의 영적 카테고리를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지역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6:13). 술람미 여인은 솔

로몬왕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1:6)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방문하였을 때 우연한 기회에 그 여인을 목격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버린 솔로몬은 그녀를 취하고 왕궁으로 인도합니다 포도원에서 노동을 하던 그녀의 피부는 검고 그으려 저 있었지만 건강미가 넘치고 신선한 느낌에 솔로몬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1:6~8) 결혼식을 앞두고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구하였습니다(1:2~8) 연회장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1:9~2:7) 어느 봄날, 솔로몬왕이 술람미여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2:8~17)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것을 염려하여 꿈을 꾸게 됩니다(3:1~5) 그러나 신부의 집에서 예루살렘 궁전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혼인 행렬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3:6~11) 신랑은 신부의 머리에서 발끝 까지를 노래하고 그녀의 고결한 잠근 동산에 들어가는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4:16~5:1)

신혼초기 술람미 여인은 왕이 궁을 떠나있는 동안 심경이 복잡한 꿈을 꾸었습니다(5:2) 그 꿈은 솔로몬이 문 앞에서 문들 두드렸으나 그녀가 너무 늦게 대답하여 솔로몬은 가버렸고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밤이 맞도록 남편을 미친듯이 찾다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돌아왔을 때 신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6:4~7:10) 어느날 술람미 여인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애원하였습니다(7:11~8:4) 결국 술람미 여인의 뜻대로 여행은 시작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 갔습니다 둘의 사랑은 주변의 방해와 환경들로 부터 자유로와 졌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술람미 여인은 어렸을 때 오빠들이 자신을 돌보아 주던 것을 회상하였습니다(8:8~9) 이제 그녀는 정결하며(8:9), 오빠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8:11~12) 아가서는 남편이 아내를 초청하고 아내가 남편을 다시 초청하는 2중 초청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에 관한 모든 종류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로스(Eros)(8:5), 스토르게(Storge)(4:9), 필라(Phila)(5:16), 아가페(Agape)(2:16)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에로스(Eros), 스토르게(Storge), 필라(Phila)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아가페(Agape)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사랑들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표현되어 있는 아가서는 많은 주제들과 교훈과 영감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습니다

(6) 개요

아가서는 8장, 117절로 신약성경에 0회 인용되었으며, BC. 965년 전후의 기록입니다

I. 제목(1:1)

II. 구애(1:2~3:5)

- ① 술람미 여인의 독백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왕에게(1:2~4),
- ② 술람미 여인(1:5~7),
- ③ 예루살렘의 딸들(1:8), ④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1:9~10),
- ⑤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1:11), ⑥ 술람미 여인(1:12~14),
- ⑦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에게(1:15~2:6),
- ⑧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2:7),
- ⑨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2:8~13), ⑩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2:14),
- ⑪ 합창(2:15), ⑫ 술람미 여인의 독백(2:16~3:5)

III. 결혼예식의 행렬(3:6~11)

IV. 신방에 들어감(4:1~5:1)

- ① 솔로몬이 신부에게(4:1~15), ② 신부가 솔로몬에게(4:16),
- ③ 솔로몬과 하나님이 신부에게(5:1)

V. 신혼이 끝난 후(5:2~6:14)

- ①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 아내의 실수(5:2~8)
- ②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내에게 :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5:9)
- ③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 남편이 얼마나 멋진가(5:10~16)
- ④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내에게,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6:1~3)
- ⑤ 남편이 아내에게(6:4~10), ⑥ 아내의 독백(6:11~12),
- ⑦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내에게(6:13),
- ⑧ 왕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6:14)

VI. 깊어지는 결혼생활(7:1~8:4)

- 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7:1~10),
- ②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7:11~8:3),
- ③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8:4)

VII. 사랑의 성숙(8:5~14)

- ① 솔로몬의 회상(8:5), ② 아내가 남편에게(8:6~7),
- ③ 술람미 여인의 남자 형제들(8:8~9),
- ④ 아내가 모든 이들에게(8:10~12), 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8:13~14)

24. 이사야(ספר ישעיהו, Sefer Y'sha'yah, Isaiah)

(1) 명칭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 첫번째 권으로 히브리어 원전 제2부인 느비임(예언서) 중 후기 예언서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제5복음" 또는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중심인물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적용하여 책 이름이 정하여 졌으며, 여기에 부적합한 이견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ספר ישעיהו)는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유다 출신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인이었습니다(이사야1:1). 이사야는 전통적인 자료들을 취하기 위하여 왕(7:3)과 제사장(8:2) 등 지도자들과 근접하며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고위직 가문출신으로 왕족으로서 웃시야왕의 사촌이거나 아마샤의 조카 였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 저자

아모스의 아들로 유다의 유력한 귀족가문에서 출생한 이사야는 왕족들과 교제하면서 외교문제 자문역을 맡아 왔습니다. 그는 웃시야왕이 사망한 BC. 739년에서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한 68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 였습니다. 이사야는 외국과의 동맹을 반대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7:4,30:1~17). 이사야는 영적타락의 징조를 경고하고 당시 만연하던 사회악과 악습들을 철폐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1:3~9).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생을 보냈고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BC. 697~642년)에 의해 톱으로 목이 잘려 나가는 순교를 당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히브리서11:37). 이사야는 앗시리아인들이 유다에 침입하였을때 그의 기도로 산헤립의 군대가 전멸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열왕기하19:35~37:2) 국가의 영적 지도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자신에 의해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외경집회서와 70인역, 그리고 탈무드와 히브리문헌에 이르기 까지 이사야의 저자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용어와 문체와 사상의 통일성은 이사야의 영적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웃시야왕의 사망시기인 BC. 739년 이후 므낫세 통치 기간중(BC. 697~642년) BC. 681~680년경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멸망해 가는 유다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대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도래한다는 진리를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실제로 본 목격자와 같이 기록함으로써(53장)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영적 영향력과 예언력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39장과 27장을 배열함으로서 한 권에서 모든 진리의 사상이 압축된 듯한 진국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사건인 동시에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가 얼마나 지근거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㉔ 예수님의 탄생과 계보(7:14,9:6,11:1), 그리스도와 성령(11:2)
- ㉕ 예수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11:3~5,42:1~4,53장)
- ㉖ 부활과 구속과 통치(25:8,49:7,11:3~6)
- ㉗ 영광과 위로와 공의(60:1~3,61:2~3,11:4~5)
- ㉘ 심판과 품성과 흑암의 빛(11:4,42:1~3,9:2)
- ㉙ 자유를 주시는 분(61:1~3),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진 자(22:22~23)
- ㉚ 번제(52:13~15), 소제(53:1~3), 화목제와 속죄제(53:7~9), 속건제(53:10~12)

(4) 주제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1:19~20,53:1~7)를 주제로 신구약 성경전서가 한 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1~39장) 주의 날을 중심으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열방에 부과되는 10가지의 부담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하는 6가지의 비통함들, 최후의 진노와 시온의 회복에 이르기 까지 징벌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이 위험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40~66장) 등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과 회복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차대한 위기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53장).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사이에는 그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700년전,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눈으로 목격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죄를 회개하고 장차 오실 역사를 소망함으로서 추복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내용

쇠퇴일로에 있던 앗수르에 디글랏빌레셀왕이 즉위하면서 회복의 기운을 받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는 북수리아의 아르밋에 진을 치고 서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메섹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를 비롯한 고대 근동지역의 군소왕들이 세력을 규합하였으나 하나씩 앗수르의 점령지가 되어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남쪽지역 애굽(이집트)에서는 25왕조의 창시자, 샤바코가 BC. 715년, 애굽을 통일하고 전성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앗수르와 애굽의 접경지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생존해 있는 유다로서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유다의 정가는 친앗수르 세력과 친애굽 세력들간의 정쟁으로 정치적 혼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왕들은 우상숭배를 장려하는 등 여호와의 신앙이 극도로 타락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들과 같은 정치와 종교개혁을 외치며 우상을 제거하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의 사후에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죄악의 반복이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범람과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패악의 지경에 이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120년 후에나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BC. 586년)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0:2~3)

이사야서에는 유다와 백성들과 가족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네가지의 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2:8~9)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서 패역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2:7,5:13)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군대의 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의 선조 다윗왕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오직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술취함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5:11~12,22:2~3,28:1~7) 영적인 모든 감각을 상실한 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탐욕과 압제속에 있었습니다(3:12~15, 5:7~8)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불평등의 수직적 구조로 약자들을 탄압하는 모순에 흔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범죄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자기의 고향 유다(1~12장)를 시작으로 바벨론, 앗수르, 블레셋, 모압, 수리아,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등 모든 열방들에 이르기 까지(13~23장) 정죄받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와 인간적인 부강과 교만과 능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의 영원함을 승계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와같이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28~33장) 이러한 패망은 장차 새로운 나라에 내리게되는 축복의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34~35장)

BC. 701년, 유다가 앓수르의 포위공격의 위기상황을 면한 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열왕기하20장)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 침공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촉구하였습니다(36~37장) 히스기야왕이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의 수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38장) 그러나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유다는 또 다시 위기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39장)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모든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40~48장)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소망과 기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53장) 눈 앞에서 일어난 일들의 목격자이며 동행자와 같이 기록한 이사야서의 기록을 읽은 독자들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700년전에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했을까?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 위대함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장차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아 사상이 점점 더 선명해 지고 있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무슨 뜻인지 구별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구원에 관한 큰 힘이 되었던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을 중심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지점은 분명 구원이었습니다 선지서에는 모두 33회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사야서에만 26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심판의 이면에 동행하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구약을 통합하여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왕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였던 유대왕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기 전, 북왕국이 앓수르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열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앓수르는 산헤립왕을 내세워 남유다 정벌에 나섰습니다 46개 성읍을 파괴하고 20만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생애는 앓수르의 침입으로 시작하여 내내 고통가운데 보내야 했으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부터 듣게된 미래의 비밀의 흔적을 책에 남겨 두었습니다 150년후 고레스왕의 칙령으로 돌아올 포로들을 예언하였으며, 700년후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6) 개요

이사야서는 66장, 1292절로 신약성경에 472회 인용되었으며, BC. 739~681년의 기록입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신구약성경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39장이 구약성경 전권 39권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40~66장이 신약성경 전권 27권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성경전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I 부 : 징벌과 회복에 대한 예언(1:1~39:8)

I. 유다를 향한 책망(1:1~12:6)

① 유다에 대한 정죄(1:1~5:30) : ㉓ 하나님의 선고문(1:1~23), ㉔ 심판후 회복에 대한 약속(1:24~31), ㉕ 왕국의 영광(2:1~4), ㉖ 평화(2:5~4:1), ㉗ 다가올 영광의 예언(4:2~6), ㉘ 포도원의 비유(5:1~30)

② 이사야의 소명(6:1~13)

③ 메시아의 강림(7:1~12:6) : ① 임마누엘의 표적(7:1~25), ② 마할살랄하스바스의 표적(8:1~22),

③ 메시아의 표적(9:1~7), ④ 사마리아에 내릴 심판(9:8~10:4),

⑤ 앗수르에 대한 복수와 이스라엘의 귀국(10:5~54), ⑥ 이새의 가지에서 나올 통치자(11:1~16),

⑦ 찬양의 노래(12:1~6)

II. 이방을 향한 책망(13:1~23:18)

① 바벨론(13:1~14:23), ② 앗수르(14:24~27), ③ 블레셋(14:28~32), ④ 모압(15:1~16:14),

⑤ 다메섹(수리아)과 그 동맹국 이스라엘을 향하여(17:1~14), ⑥ 구스(이디오피아)(18:1~7),

⑦ 애굽(19:1~20:6), ⑧ 바벨론(21:1~10), ⑨ 에돔(21:11~12), ⑩ 아라비아(21:13~17),

⑪ 예루살렘(22:1~25), ⑫ 두로(23:1~18)

III. 미래의 심판과 왕국(24:1~27:13)

① 심판(24:1~23), ② 새왕국의 승리(25:1~12), ③ 새왕국에서 찬양(26:1~21), ④ 하나님 백성(27:1~13)

IV.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화와 축복)(28:1~35:10)

① 사마리아에 내릴 화(28:1~29),

② 유다에 내릴 화(29:1~31:9) : ㉓ 위선의 죄(29:1~24), ㉔ 애굽과 동맹한 죄(30:1~31:9)

③ 메시아와 그의 나라(32:1~20), ④ 앗수르와 멸망(33:1~24), ⑤ 열국이 받을 심판(34:1~27),

⑥ 새나라와 축복(35:1~10)

V. 산헤립을 향한 책망(36:1~39:8)

① 앓수르의 조롱(36:1~22), ②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리(37:1~7),

③ 앓수르로부터의 위협(37:8~35), ④ 앓수르에 대한 승리(37:36~38),

⑤ 연장된 히스기야의 수명(38:1~22), ⑥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39:1~8)

II부 : 소멸과 회복에 대한 예언(40:1~66:24)

I. 위대하신 하나님(40:1~48:22)

① 포로생활로 부터 유다를 해방하심(40:1~11), ② 창조의 주(40:12~31),

③ 우상들과 비교해서(41:1~29), ④ 사자를 보내심에 있어서(42:1~25),

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43:1~44:28), ⑥ 고레스를 사용하심에 있어서(45:1~25),

⑦ 바벨론을 심판하심(46:1~47:15), ⑧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해방하심에 있어서(48:1~22)

II. 구원자, 종, 메시아(49:1~57:21)

① 종을 세우심(49:1~26), ② 종과 이스라엘의 비교(50:1~11),

③ 남은 자를 향한 격려(51:1~52:12), ④ 종의 고난과 승리(52:13~53:12),

⑤ 종을 통한 구원(54:1~57:21)

㉞ 구원의 노래(54:1~17), ㉞ 구원의 초청(55:1~13),

㉞ 이방인에게 확장된 하나님의 의(56:1~8), ㉞ 구원을 거절하는자에 대한 책망(56:9~57:21)

III.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58:1~66:24)

① 바른 제사와 잘못된 제사의 비교(58:1~14),

② 죄의 해결책(59:1~21) : ㉞ 이스라엘의 죄악상(59:1~8),

㉞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고백(59:9~15), ㉞ 도말된 이스라엘의 피(59:16~21)

③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60:1~22)

④ 평화를 위한 메시아의 노력(61:1~11)

⑤ 이스라엘의 회복(62:1~12)

⑥ 축복의 조건(63:1~65:16) : ㉞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63:1~6),

㉞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63:7~64:12), ㉞ 죄의 회개(65:1~16)

⑦ 새 왕국의 묘사(65:17~25)

⑧ 위선에 대한 책망(66:1~6)

⑨ 새롭게 된 이스라엘(66:7~9)

⑩ 미래의 소망(66:10~24)

25. 예레미야(Jeremiah)

(1) 명칭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으나(1:6)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망국에 대한 애국적 고민과 범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던지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레미야"의 이름을 그대로 책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2) 저자

예레미야서(1:1,36:1~2)와 역대하(36:21)와 에스라(1:1)와 다니엘서(9:2)와 신약성경의 전승들이 모두 예레미야의 저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대부분은 바룩이 대필하였으며(36:4), 52장은 바룩 또는 익명에 의해 첨가된 부분이었습니다. 기록시기는 요시아왕 13년(BC. 627년)에서 예루살렘 함락(BC. 586년)때까지의 시기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첨가된 52장은 BC. 562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52:31).

눈물의 선지자(9:11,13:17)이며 고독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솔로몬왕과 아도니아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아비아달계 제사장들의 귀양지였던 아나돗 태생의 제사장으로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13년(BC. 627년), 그가 20세 되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왕 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40년 선지자 생활 동안 온갖 박해와 반대 속에서 변절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11:18~23,12:6,18:18,20:1~3,26:1~24,37:11~38:28).

청년 제사장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선왕 요시아의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고 있을때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술에 취한 듯한 행보를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나라는 신명기 28~30장에 예언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외치는 지도자를 향하여 유다의 마지막 권세가들은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급기야 귀족들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앗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제국의 등장으로 애굽에 강제로 송환되었으며 그의 마지막 설교도 그곳에서 이루어 졌습니다(44장).

(3) 기록목적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도무지 알지 못하였던 시대상황을 눈물로서 기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함으로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국가적 재앙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대순으로 정리되지 못한 무질서함은 엿보이나 예언이 반복되면서 예레미야의 불안한 심기를 드러내는 듯 하였습니다 유다의 멸명과 회복을 여호와 신앙과 연계시켜 줌으로서 제국의 강약에 따라 유다의 흥망성쇠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끊임 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 목자(23:4,31:10)(요한복음10:11)
- ㉡ 의로운 가지(23:1~8)(누가복음3:31)
- ㉢ 여호와 우리의 의(23:5~6)
- ㉣ 생수의 근원(2:13,17:3)(요한복음7:37~38)
- ㉤ 치료하는 의사(8:32)(누가복음5:31)
- ㉥ 통치자(23장)
- ㉦ 새 언약을 세우실 그리스도(31:31~34)
- ㉧ 애통해 하는 그리스도(8:21)(마태복음23:37~38)
- ㉨ 평안과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사랑해 주시는 주(31:3)(요한복음14:27)
- ㉩ 구속자(50:34)
- ㉪ 다윗과 같은 왕(30:9)

(4) 주제

"유다의 심판과 회복"(30:15,31:31)을 주제로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심판날에 관한 첫 예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한 유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위기를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들에게 전해지는 선포는(21~39장)일관성있는 태도로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더욱 더 완강한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40~44장)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마섹과 게달과 하손과 엘람과 바벨론과 갈대아 등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결국 유다의 회개와 하나님의 손을 통한 회복이 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5) 내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예언의 영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의 범죄함과 백성들의 타락을 경고하고 죄와 멸망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과 같은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절망할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하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출생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9:11,13:17) 예레미야는 솔로몬왕과 아도니야의 권력 투쟁인 왕자의 난에서 패배한 아비아달계 제사장들의 귀양지였던 아나돗 태생의 제사장으로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왕 13년(BC. 627년), 그가 20세 되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요시야왕의 말기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왕 등 5왕조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비유, 설교, 상징적 행동을 통한 교훈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12편에 걸친 그의 설교는(13:1~14,14:1~9,16:1~9,18:1~8,19:1~13,24:1~10,27:1~11,32:6~15,43:8~13)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것으로 심판의 불가피성과 회복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절망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함께 주고자 함이며, 그것을 위해서 대각성 회개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메시지(2:25)로 인하여 투옥 당하는 등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26~45장).

예레미야는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열강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술(아라비아), 엘람, 바벨론 등 약육강식의 시대에 통합과 분열의 국가존립을 예언하되 애굽, 모압, 암몬, 엘람에게는 회복의 언약이라는 희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약탈되고 멸망되며 지도자들은 처형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열왕기하24:10,14~15).

I. 히브리 선지자들(BC)

- ① 오바다(853~841)(열왕기하25장, 역대하36:11~21)
- ② 요엘(835~796)(열왕기하11장~15:17)
- ③ 요나(793~753)(열왕기하13~14장)
- ④ 아모스(760~755)(열왕기하14:23,15:7)
- ⑤ 호세아(746~724)(열왕기하15~18장)
- ⑥ 이사야(740~680)(열왕기하15~20장, 역대하26~32장)
- ⑦ 미가(740~695)(열왕기하15:8~20장, 이사야7~8장, 예레미야26:17~19, 역대하27~32장)
- ⑧ 나훔(640~630)(요나서, 이사야10장, 스바냐2:13~15)
- ⑨ 스바냐(640~630)(열왕기하22장~23:34, 역대하34장~36:4)
- ⑩ 예레미야(626~585)(열왕기하22~25장, 역대하34~36:21)
- ⑪ 하박국(608~597)(열왕기하23:1~24:20, 역대하36:1~10)
- ⑫ 다니엘(600~530)(열왕기하23:35~25:30, 역대하36:5~23)
- ⑬ 에스겔(592~570)(열왕기하24:17~25장, 역대하36:11~21)
- ⑭ 학개(520~519)(에스라5~6장)
- ⑮ 스가랴(520~475)(에스라5~6장)
- ⑯ 말라기(435~425)(느헤미야13장)

II.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유다의 왕들

- ① 요시야(640~609)
 - 627년(1~6장) : 예레미야의 소명, 요시야의 종교개혁, 유다는 앗수르에 조공을 바침
 - 622년 :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함
 - 621년(11~12장)
 - 612년 : 바벨론이 앗수르 수도 니느웨를 점령함
 - 609년 : 요시야왕이 바로 느고를 대항하다 므깃도에서 전사함(열왕기하23:29~30)
- ② 여호아하스(609)(22:10~12)
- ③ 여호야김(608~597)
 - 608년(7~10장, 14~20장, 22:13~23, 26장) : 신바벨론제국 등장, 두루마리 소각
 - 605년(25, 35~36, 45, 49장) : 바벨론1차침략, 1차포로
 - 601년(22:13~17) :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다시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음
- ④ 여호야긴(597)(22:24~30, 23:9~40) : 바벨론2차침략, 2차포로
- ⑤ 시드기야(597~586)
 - 597년(24장, 29~31장, 49:34~39)
 - 595년(23:1~8, 27~28장)

- 590년(50~51장)
- 588년(21:1~22,9:32~34,37장) : 예루살렘 포위(바벨론3차침략)
- 587년(38장)
- 586년(39장,52장) : 3차포로,예루살렘함락
- ⑥ 그달랴(586)(40~41장) : 그달랴가 유다총독이 되었으나 암살당함
- ⑦ 요하난(585)(42~44장) : 요하난이 지도자가 됨

(6) 개요

예레미야서는 52장, 1364절로 신약성경에 137회 인용되었으며, BC. 627~574년의 기록입니다

I. 예레미야의 소명(1:1~19)

- ① 소명(1:1~10), ② 소명에 대한 확증(1:11~19)

II. 유다를 향한 예언(2:1~45:5)

- ① 유다의 범죄와 형벌과 우상숭배(2:1~10:25)
- ㉞ 유다의 범죄(2:1~3:5),
- ㉞ 유다의 형벌(3:6~6:30) : ㉞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조(3:6~11), ㉞ 회개 촉구(3:12~25),
- ㉞ 심판의 예언과 원인(4:1~5:31), ㉞ 심판의 확실성(6:1~30)
- ㉞ 유다의 우상숭배(7:1~10:25) : ㉞ 성전에서 백성을 꾸짖는 설교(7:1~8:3),
- ㉞ 하나님의 심판(8:4~9:26), ㉞ 어리석은 우상숭배(10:1~18), ㉞ 선지자의 반응(10:19~25)
- ②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유다(11:1~13:27)에 닥칠 가뭄(14:1~15:9)
- ㉞ 진상(11:1~17), ㉞ 결과(11:18~12:17), ㉞ 경고(13:1~27),
- ㉞ 예레미야의 메세지(14:1~6), ㉞ 예레미야의 중보기도(14:7~15:9)
- ③ 다시 소명을 받는 유다의 선지자(15:10~16:9)
- ㉞ 예레미야의 후회(15:10~21), ㉞ 사양하는 예레미야(16:1~9)
- ④ 유다의 죄악상(16:10~17:27)과 토기장이의 상장(18:1~23)
- ⑤ 깨어진 오지병의 상징(19:1~20:18)
- ㉞ 선포된 말씀(19:1~15), ㉞ 예레미야가 받는 박해(20:1~18)
- ⑥ 유다의 왕들(21:1~23:8) : ㉞ 시드기야(21:1~22:9), ㉞ 여호아하스(살룸)(22:10~12),
- ㉞ 여호야김(22:13~19), ㉞ 여호야긴(여고냐,고니야)(22:20~30), ㉞ 메시아(23:1~8)
- ⑦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23:9~40)
- ⑧ 유다의 포로시대(24:1~25:38)
- ㉞ 추방된 자(24:1~10), ㉞ 포로기간(25:1~11), ㉞ 정복자들의 정책(25:12~38)

- ㉑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한 유다의 반응(26:1~24)
- ㉒ 예레미야의 충고 :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라(27:1~29:32) :
- ㉓ 멍에의 표적(27:1~22),
- ㉔ 거짓 선지자들의 반대(28:1~17), ㉕ 유다포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29:1~32)
- ㉖ 유다 회복에 대한 소망(30:1~33:26)
- ㉗ 약속선언 : 고난후의 회복(30:1~31:26)
- ㉘ 약속된 언약 : 새언약(31:27~40)
- ㉙ 약속의 예증 : 밭의 매매(32:1~44)
- ㉚ 약속의 확인 : 다윗의 언약(33:1~26)
- ㉛ 예루살렘 함락전까지(34:1~38:28)
- ㉜ 시드기야에게(34:1~7), ㉝ 백성들에게(34:8~12),
- ㉞ 레갑족속에 관하여(35:1~19),
- ㉟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움(36:1~32),
- ㊱ 예레미야의 투옥(37:1~38:28)
- ㊲ 예루살렘의 함락(39:1~18)
- ㊳ 유다인들의 운명(39:1~10), ㊴ 예레미야의 운명(39:11~18)
- ㊵ 예루살렘 함락 후에(40:1~45:5)
- ㊶ 팔레스틴에 있는 유다인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사역(40:1~42:22)
- ㊷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사역(43:1~44:30)
- ㊸ 바룩에 대한 예레미야의 사역(45:1~5)
- Ⅲ. 각 족속들에 대한 예언(46:1~51:64)
- ① 애굽(46:1~28), ② 가나안 족속(47:1~7), ③ 모압(48:1~47), ④ 암몬(49:1~6),
- ⑤ 에돔(49:7~22), ⑥ 다메섹(49:23~27), ⑦ 게달과 하술(49:28~33),
- ⑧ 엘람(49:34~39),
- ⑨ 바벨론(50:1~51:64)
- Ⅳ. 역사의 보충 자료(52:1~34)
- ① 예루살렘의 운명(52:1~23), ② 일부 백성들의 운명(52:24~34)

26. 예레미야 애가(The Lamentations of Jeremiah)

(1) 명칭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제목은 1,2,4장에 나오는 첫 단어로써 "어찌하여"라는 의미의 "에카"입니다. 에카는 "아!~"라는 극도의 비통함과 애절함을 표시하는 감탄사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아가, 룯기, 전도서, 에스더와 함께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두루마리의 한 권으로 성문서(지혜서)로 분류됩니다. 히브리성경은 성경의 분류를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애가"라는 의미의 "키노드"라는 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 성경인 70인역(LXX)에서는 본문이 예레미야서와 함께 배열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제목으로는 "소리높여 울다"의 의미를 가진 "트레노이"에서 유래한 "눈물들"이란 뜻을 가진 "트레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리아역과 벌게이트(Vulgate)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저자

고대로부터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작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70인역(LXX)과 벌게이트 성경은 1:1앞에 표제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예레미야가 앓아 이 애가를 갖고 슬피 울었으니 그가 노래하기를", 이 표제 후에 1장1절을 연결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본문에서도 예레미야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애가서는 모두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유다를 비롯한 모든 민족의 타락, 하나님을 불신하고 허약한 이방세력과 동맹을 맺은 행위,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제사장들의 범죄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35:25에서도 예레미야가 애가를 기록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시기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로 예상됩니다.

(3) 기록목적

유다의 비극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할 때, 희망과 기대가 있을 것임을 가르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암송을 쉽게 하도록 답관체로 기록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멸망일을 기념하여 낭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BC. 586년과 AD. 70년에 각각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멸망한 것을 추념하기 위해 압월의 9일(7월 중순경)에 공식적으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고난주간의 마지막 3일동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난중의 말씀이 마태복음23:37~3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섯 두루마리 책들은 아가는 유월절, 룯기는 오순절, 애가는 압월(7월15일~8월15일) 제 9

일(예루살렘이 파괴된 날),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부림절에 각각 낭독되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㉞ 눈물을 흘리신 그리스도(4:1~2), ㉞ 고난당한 메시아(2:15~16,3:14)
㉞ 자비와 긍휼하심(3:19~20)

(4) 주제

"예루살렘이여 통곡하라"(1:1)는 주제로 비탄에 잠긴 시, 다섯편이 다섯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앙(1장)으로 선지자는 탄식하고 도성의 애곡하는 소리는 밤낮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진노하심(2장)으로 예루살렘은 비탄에 빠졌고 도성의 애곡은 깊어만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3장)은 고통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려 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와 위로를 기다립니다 다시 시작된 여호와와 진노(4장)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과 방관하는 에돔왕으로 인하여(4:12~22) 식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5장) 시온은 무너져 내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로 부르짖는 음성은 예루살렘 하늘에 퍼져 가고 있습니다

(5) 내용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과 비탄, 그리고 죄에 대한 증오심이 답관체 형태로 반복된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에 걸쳐서 부르짖은 "회개운동"을 끝내 거역한 백성들을 원망하기 보다는 눈물로서 그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통곡을 듣고 그들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온다면 유다 백성들에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왕의 치적으로 이루었던 예루살렘의 영화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빛나는 지상천국으로 이어졌지만, 그것도 잠시,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도성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1:1~11)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다윗을 탓할 것인가? 수많은 궁녀들을 거느리며 국부를 탕진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솔로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강박한 백성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탓할 것인가? 그러나 예레미야의 슬픔은 비탄에 빠져 있지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거나 우물에 넘어지는 염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을 여호와와 진노로 분별하였던 예레미야는 제 3자적관점에서 그 원인을 지적하였습니다(2:1~19)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군사적 약세와 국력미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항상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방탕함과 부패함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비극과 낙담을 자신이 직접 당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3:1~18) 이것은 유다민족의 슬픔과 비통함이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바로 예레미야의 비극이며 백성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자성과 회개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3:19~24) 더 나아가 하나님께 구원하심과 바벨론 대적에 대한 보복을 간구하였습니다(3:42~66) 현재의 슬픔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 보고 죄를 고백하는 용기 또한 영생을 향한 소망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4장은 암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의 첫번째 책임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과 지도자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않거나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예루살렘이 적들의 손에 유린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대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5장은 결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현재의 고통과 시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사랑의 자비로서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만을 위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소망과 기대, 간절함과 바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내고 있습니다(5:19~22)

I. 언약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가이드인 성경은 언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베리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일"과 관련성이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디아데케"로 언약이 구원을 도래하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이라는 3대명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구속언약

구속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구원받을 자의 대표인 성자 사이에 결정된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입니다. 구속언약의 실현이 은혜언약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계획속에 영원전부터 있었고(에베소서1:4, 데살로니가후서2:13), 그 계획은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요한복음5:30).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에는 당사자로서 삼위 하나님의 대표인 성부와 택함을 받은 자의 대표인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시2:7~8). 또한, 보증인으로서 성자는 언약의 당사자인 동시에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히브리서7:22). 다음은 조건으로서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완성하고 인간 대신 죄악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시40:7~8). 약속은 성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요한복음17:5).

구속언약의 성취는 언약의 당사자인 성부께서 언약의 다른 당사자이며 보증인인 성자를 세상에 보내어(요한복음3:16), 그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에 따라 고난과 죽음을 당케 하시며(로마서3:26), 언약의 약속에 따라 부활 승천하여 성부 우편에 앉으시고(베드로전서3:22),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지도, 보호 하시다가(요한복음14:26) 성자의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영화롭게 함으로서(에베소서1:6) 구속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② 은혜언약

은혜언약은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하나님과 구원받기로 결정한 인간, 즉, 택함을 받은 인간을 각각 당사자로 하며, 성자를 성부와 인간 사이의 중보와 보증인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은혜언약의 특징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은혜언약의 당사자는 행위언약과 동일하게 제1 당사자인 성부 하나님과 제2 당사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택함을 입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은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창세기17:7, 예레미야31:33).

은혜언약은 구원에 관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삼위하나님이 모두 참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에베소서1:3~5, 요한복음19:30).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계약이며(창세기17:9, 사무엘하23:5), 모든 세상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 제한하였다는 측면에서 특수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만 인간의 공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에베소서2:8) 더 나아가 계약당사자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성립되는 편무계약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히브리서6:17)

㉔ 시대의 은혜언약

은혜언약은 시대와 사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불변진리의 약속이었고(창세기17:7, 출애굽기19:5~6, 예레미야31:33), 약속의 조건은 언제나 믿음이었다는 변함없는 사실(창세기15:6, 로마서4:9~11), 그리고 중보자가 성자 예수님으로서 언제나 동일하다는 절대불변의 원칙(디모데전서2:5, 갈라디아서3:19~20, 히브리서13:8)의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㉕ 아담과의 원시언약 :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꺾을 것이라는 원시복음(창세기3:15)

㉖ 노아와의 이중언약 : 홍수전에 택한자의 구원에 대한 언약(창세기6:18)과 홍수후 다시 이러한 홍수가 없을 것이며 기후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약속의 언약(창세기9:8~10)

㉗ 아브라함과의 축복언약 : 가나안에 대한 현세적 축복과 메시아에 대한 영적 축복(창세기15:4~5), 그리고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신 칭의(창세기15:6)

㉘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 : 도덕적, 의식적, 국가적 율법이 주어진 언약(출애굽기24장)

㉙ 신약시대의 언약 : 이스라엘 선민에서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확대되는 복음의 보편성, 성령강림으로 인한 성령충만의 언약

(6) 개요

예레미야애가는 5장, 154절로 신약성경에 7회 인용되었으며, BC. 586년의 기록입니다

I. 무너진 예루살렘(1:1~22) : ① 성읍이 훼파됨(1:1~11), ② 성읍의 고통(1:12~22)

II. 예루살렘의 멸망(2:1~22) :

① 하나님의 심판(2:1~10), ② 선지자의 비탄(2:11~22)

III. 선지자의 혼란한 마음(3:1~66) :

① 슬픔(1~18), ② 희망(19~42), ③ 고통(43~54), ④ 기도(55~66)

IV. 패전한 예루살렘백성(4:1~22) : ① 포위기간(4:1~12), ② 포위원인(4:13~20),

③ 미래비전(4:21~22)

V. 백성을 위한 기도(5:1~22)

27. 에스겔(Ezekiel, עִזְקִיאל)

(1) 명칭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 비유, 표적,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명인 에스겔(Ezekiel, עִזְקִיאל)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는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3:8~9).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에만 2회 등장할 뿐(1:3,24:24) 다른 구약성경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LXX)에는 "Iexekiel"(에스겔)로 되어 있고,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에는 "Ezechiel"(에스겔)로 사용하며, 오늘날에도 벌게이트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자

에스겔(BC. 622~560년)은 사독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1:3,40:46). BC.597년, 느부갓네살왕의 제2차 침공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도 이 와중에 처형을 당하였는데 그녀의 죽음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침략때 유다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24:16~24).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의 대수로(大水路)인 그발 강가에 위치한 유대 포로민의 정착지였던 델 아비브에 터전을 잡았습니다(1:1,3:15,23).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1:4~28) 하나님의 대변자(Spokesman), 유대인 포로의 파수군(Watchman)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2~3장). 그의 사역은 여호야킨이 포로가 된 후 BC. 592~57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1:2,29:17). 예루살렘 함락(BC.586년)이전에 에스겔은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1~24장). 에스겔은 이방풍습을 쫓아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2:3,3:4~11,14:1,18:2,25:5,20:1). 그러나 예루살렘 함락후에는 절망한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며 소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는 곡과 마곡이 이끄는 악한 민족들 위에 임할 심판을 묘사하고 있지만(38~39장) 한편 다른 이방민족들의 회개와 개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중적(Doublets)인 기록들이 여러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3:17~21과 33:7~9이 그러하고, 18:25~29과 33:17~20이 그러한 예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실어증(失語症)과 같은 질병을 주었습니다(3:26,24:27,33:22). 실어증이란 입이나 발성기관 또는 귀의 외상 없이, 뇌의 병소나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를 이해하거나 관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 의학용어입니다. 포로생활속에서 실어증까지 걸린 선지자의 외침은 너무나 고독한 부르짖음이었습니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에서 1:3과 24:24에 두번만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록의 일관성으로 볼때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저자임을 의심할 그 어떤 의문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성경은 대부분 성경의 첫절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자신의 사역기간이었던 BC. 593~570년 가운데 BC. 565년경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재앙이 임했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인 동시에 소망을 주는 퇴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절망적인 환경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의 기회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구약의 서신들과 같이 유다에 대한 예언과 열방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유다에 대한 위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①그리스도의 모형

- ㉠ 인자(2:1) : 인간으로 오신 중보자(디모데전서2:5)
- ㉡ 성육신(1:26) :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빌립보서2:6~7)
- ㉢ 목자(34:11~31) : 누가복음19:10
- ㉣ 왕(21:26~27)
- ㉤ 가지(19:11)

(4) 주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환상"(38:23)을 주제로 에스겔서는 열방중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상기시키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의 죄 또한 고통속에서 자성하도록 하였습니다(4~24장)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심판후에 오는 회복, 곡과 마곡의 멸망속에서 예루살렘은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25~39장) 새성전 재건과 새 영광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와 거룩한 성전, 새로운 땅, 하나님의 견고한 도성의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새롭게 회복되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40~48장) 그러나 이러한 모든 소망과 기대는 반복

되지 않는 참된 회개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와 열방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5) 내용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포된 에스겔서의 예언은 예레미야서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예언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유다에 임할 심판과 장래의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은 풍유적 상징이 있어서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을 통하여 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1,8,40장). 그리고 비유법과 비교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애가를 사용한 비유가 많았습니다.

에스겔의 사역기간은 바벨론 포수 초기였던 BC. 593~570년경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유다의 함락과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인으로 연장자였던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최후를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예레미야 1:1~3). 바로 느고가 지휘하는 애굽군은 BC. 605년, 유프라테스강변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대패하였습니다(예레미야 46:2). 갈대아족이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열왕기하 24:7) 유다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봉신이었던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이후 바벨론의 봉신이 된 여호야김(BC. 608~597년)은 선지자들을 학대하고(예레미야 7:26), 유다의 영적 타락을 조장하는 등(예레미야 7:1~15) 무기력한 폭군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예레미야 22:13~19). BC. 602년,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반역하였고 주변국들의 침입에 내내 시달렸으며(열왕기하 24:1),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한 불운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3개월만에 폐위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열왕기하 24:8~17, 예레미야 22:24~30, 에스겔 19:5~9).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여호야킨을 포함하는 유다의 상류층 수천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킨과 함께 포로로 잡혀 갔으며 그로부터 5년후부터 예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도착한 곳은 느부갓네살의 대수로(大水路)인 그발 강가에 위치한 유대 포로민의 정착지였던 델 아비브였습니다(1:1,3:15,23).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적 영광에 대한 환상을 계시하고자 선지자직을 맡겼습니다. 이로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1:4~28) 하나님의 대변자(Spokesman), 유대인 포로의 파수군(Watchman)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2~3장).

유다를 향한 에스겔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유다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8~11장에는 환상을 통하여 그러한 심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유다의 죄악상과 운명이 시사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인접한 국가들도 방관

하거나 냉소적이었으며, 멸망에 동조한 댓가로 심판을 면키 어려웠습니다. 심판의 대상국들은 암몬, 모압, 애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등 유다를 경계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 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다시 회복과 소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타락한 유다에는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였으나 이제는 한 진실한 목자가 나타나 유다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은 성령에 의한 민족의 소생을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단된 이후로 멸망한 왕국은 다시 통일의 기반위에 세워 질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성전 재건과 성읍수축의 환상속에서 언약 백성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재현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합니다.

I.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와 이름

■ 히브리어

- ① 엘 엘론(창세기14:18~20) : 지극히 높은 자
- ② 사팻(창세기18:25) : 재판자
- ③ 엘 올람(창세기21:33) : 영원하신 하나님
- ④ 여호와 이레(창세기22:14) :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 ⑤ 엘 엘로헤 이스라엘(창세기33:20) :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 야곱의 하나님
- ⑥ 엘 샤다이(창세기49:25) : 전능하신 하나님
- ⑦ 여호와 닛시(출애굽기17:15) : 주는 나의 깃발
- ⑧ 여호와 샬롬(사사기6:24) : 주는 평화이시다
- ⑨ 엘 브릿(사사기9:46) : 언약의 하나님
- ⑩ 여호와 츠바웃(사무엘상17:45) : 만군의 하나님
- ⑪ 아도나이(시편2:4) : 주님, 주인
- ⑫ 케도시 이스라엘(이사야1:4)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 ⑬ 여호와 치드케누(예레미야23:6) : 우리의 의로운 주
- ⑭ 여호와 삼마(에스겔48:35) : 주는 거기에 계신다

■ 아람어

- ① 아티고 요임(다니엘7:9) :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
- ② 일라야(다니엘7:18) : 지극히 높으신 자

■ 헬라어

- ① 로고스(요한복음1:1) : 말씀
- ② 소테르(요한복음4:42) : 구주
- ③ 데오스 호 파테르(에베소서3:15) : 하나님 아버지
- ④ 퀴리로스(빌립보서2:9~11) : 주님
- ⑤ 알파 카이 오메가(요한계시록1:8) : 처음과 나중

II. 예언(프로페테이아, 나바)

예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프로" 와 "말하다" 라는 의미의 "페미" 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선지자란 장차 발생할 일을 미리 말하는 자를 가르키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대언하다", "대변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출애굽기4:10~16) 즉,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점쟁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뜻을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대신하여 전달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6) 개요

에스겔서는 48장, 1273절로 신약성경에 151회 인용되었으며, BC. 593~559년의 기록입니다

I. 에스겔의 소명과 파송(1:1~3:27)

- ① 에스겔의 환경(1:1~3),
- ② 에스겔이 본 하나님 환상(1:4~28) ; 네생물과 병거(4~14), 네바퀴들(15~21), 빛나는 궁창(22~28)③ 에스겔의 소명(2:1~10)과 파송(3:1~27)

II.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4:1~24:27)

- ① 상징(4:1~5:17) : ㉠ 박석-예루살렘함락(4:1~3), ㉡ 자세-포로기간(4:4~8), ㉢ 떡-궁핍(4:9~17)
- ㉣ 머리털을 깎음-예루살렘 거민들의 멸망(5:1~17)
- ② 설교를 통한 예언들(6:1~7:27) ; 임박한심판원인-우상(6:1~14), 임박한심판성질-심함(7:1~27)
- ③ 환상을 통한 예언들(8:1~11~25)
- ㉤ 타락한 성전의 환상(8:1~18), ㉥ 예루살렘 주민학살의 환상(9:1~11),
- ㉦ 불타는 예루살렘의 환상(10:1~22), ㉧ 악한 방백들과 떠나버린 영광의 환상

(11:1~25)

- ④ 심판의 확실성(12:1~24:27)
- ㉞ 선지자의 행구의 표적(12:1~16)과 떨림의 표적(12:17~28),
- ㉠ 거짓선지자들에 대한 경고(13:1~23)와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에 대한 경고(14:1~23)
- ㉡ 열매없는 포도나무의 비유(15:1~8)
- ㉢ 간음하는 여인의 비유(16:1~63) : 젊음(1~14), 죄악(15~34), 정죄(35~52), 회복(53~63)
- ㉣ 두 독수리의 비유(17:1~24)와 거절된 신 포도의 교훈(18:1~32)
- ㉤ 이스라엘 방백들에 대한 애곡(19:1~14)과 불성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20:1~32)
- ㉥ 앞날의 회복에 대한 약속(20:33~44)과 불 붙는 삼림(20:45~49)과 칼(21:1~32)
- ㉦ 심판의 풀무(22:1~31) :
- ㉧ 죄의 목록(22:1~12), ㉨ 심판의 확실성(22:13~22), ㉩ 죄인들의 계층(22:23~31)
- ㉪ 두 여인의 비유(23:1~49) : ㉫ 정체(1~4), ㉬ 음행(5~21), ㉭ 징벌(22~49)
- ㉮ 끓는 가마의 비유(24:1~14)
- ㉯ 에스겔 부인이 죽은 표적(24:15~27)

Ⅲ. 열방들에 대한 예언(25:1~32:32)

- ① 암몬에 대한 심판(25:1~7), ② 모압에 대한 심판(25:8~11),
- ③ 에돔에 대한 심판(25:12~14)
- ④ 블레셋에 대한 심판(25:15~17)
- ⑤ 두로에 대한 심판(26:1~28:19) :
- ㉞ 두로의 멸망(26:1~21), ㉠ 두로에 대한 애곡(27:1~36),
- ㉡ 두로왕의 멸망(28:1~10), ㉢ 두로왕에 대한 애곡(28:11~19)
- ⑥ 시돈에 대한 심판(28:20~26)
- ⑦ 애굽에 대한 심판(29:1~32:32) :
- ㉞ 심판의 확실성(29:1~21), ㉠ 심판의 묘사(30:1~26),
- ㉡ 앗수르와 애굽의 비교(31:1~18), ㉢ 애굽에 대한 애곡(32:1~32)

Ⅳ.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들(33:1~39:29)

- ① 파수군으로 임명된 에스겔(33:1~33)
- ② 이스라엘의 목자들(34:1~31) : ㉞ 거짓목자들(1~10), ㉠ 참목자들(11~31)
- ③ 이스라엘의 재건(35:1~36:38) :
- ㉞ 에돔의 멸망(35:1~15), ㉠ 이스라엘과 맺은 새언약(36:1~38)
- ④ 이스라엘의 부흥(37:1~14)
- 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통일(37:15~28)

- ⑥ 곡과 마곡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38:1~39:29)
- ㉞ 곡의 침입(38:1~16), ㉞ 곡에 대한 승리(38:17~39:29)

V.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40:1~48:35)

- ① 새 성전(40:1~43:27)
- ㉞ 밖의 뜰과 세 문들(40:1~27), ㉞ 안뜰과 세 문들(40:28~47),
- ㉞ 성전 건물(40:48~41:26),
- ㉞ 안뜰내의 방들(42:1~20), ㉞ 하나님 영광의 재현(43:1~12),
- ㉞ 번제단(43:13~27)
- ② 새 예배(44:1~46:24)
- ㉞ 수종드는 자들(44:1~31), ㉞ 수종드는 자들에 대한 지원(45:1~17),
- ㉞ 제물들(45:18~46:24) : ㉞ 절기에 드리는 제물들(45:18~25),
- ㉞ 안식일과 월삭과 아침마다 드리는 제물들(46:1~15),
- ㉞ 왕이 지킬 규정들(46:16~18),
- ㉞ 재물을 준비하는 장소들(46:19~24)
- ③ 거룩한 새 땅(47:1~48:35)
- ㉞ 땅에 생명을 주는 강(47:1~12), ㉞ 땅의 경계선(47:13~23),
- ㉞ 땅의 구획(48:1~35)

28. 다니엘(דַּנְיֵאֵל , Daniyyel)

(1) 명칭

다니엘(BC.605~536년)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마태복음24:15, 마가복음13:14) 히브리성경의 보통 책 제목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첫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에스겔 14:14,20, 28:3의 기록과 같이 욥과 함께 제시되는 다니엘을 본서의 저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의 판본에 따라 일부의 내용이 다른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가 지지하는 70인역(LXX)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히브리성경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6장은 다니엘과 연관된 직접적인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7~12장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꿈과 환상의 목격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제국들의 번성기와 함께 BC. 160년경, 셀레우코스(Seleucids)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유대인 핍박예언이 심도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13~14장에는 수산나, 벨신상의 파괴, 큰 뱀을 죽인 사건과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저자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내의 기록(8:1,15, 9:2,20, 10:2,12:11)과 탈무드의 유대전승 등에 의해 다니엘의 저자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BC. 586~539년 포로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그의 생애 말기인 BC. 530년경에 이 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저자설을 부인하는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을 노아와 우타니피스팀(Utanipishtim)의 홍수이야기 등과 함께 고대근동지역의 설화속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범민족적 설화인물이 아니라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존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BC. 605년 느부갓네살의 제 1차 침입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 궁전에서 정부관리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자 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성경에서는 성문서(케투빔)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 생애에 걸쳐 하나님과 세상속에서 그 어떤 타협과 협상도 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그의 신앙을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가 BC.550~530년경 다니엘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반대자의 선봉에 섰던 폴피리(AD.232~303년)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서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BC. 175~163년), 한 유대 무명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18~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정복자들인 팔레스틴을 160년간 지배하였으며, 다니엘서가 BC. 170년경 기록되었다면 본문중 헬라어 단어의 사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BC. 140년경 기록된 쿨란 사본들(Dead Sea Scrolls)과 다니엘서와의 수백년에 걸친 문법적 차이를 설명하기엔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쿨란 동굴에서 발견된 다니엘서 두루마리들은 사본들이고 원본은 마카비 시대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일이었습니다

(3) 기록목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이방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우월성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종말론적 나라를 계시함으로서 핍박과 포로 생활의 고난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묵시 문학적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꿈, 환상, 계시 등 상징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된 신학적 내용은 종말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와 함께 암흑기 4대 선지자로서 유대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 세상왕국을 부셔버릴 큰 돌(2:34~35,45)
- ㉮ 신의 아들(3:25)
- ㉮ 권세를 받은 인자와 쇠하지 아니할 왕국과 재림의 그리스도(7:13~14)
- ㉮ 기름부음을 받은 자와 육십구 이레와 그리스도의 현현(9:25~26)

(4) 주제

"핍박과 고난속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4:3)을 주제로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벨드사살)과 친구들의 순교자적 신앙은 참으로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함을 더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지옥같은 불속에서도 건져 내시고 살리신 바 되었으되 오히려 불 곁에서 그들을 던졌던 바벨론의 장수들만 타 죽는 엄중한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2장)과 다니엘의 환상(7장)을 통하여 물거품과 같은 세상나라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었습니다

바벨론 제3차 포로였던 유다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믿음을 가진 극소수만이 남은 암흑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열국 모든 우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그들의 목전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능력이 어떤 지배자와 장소와 상황에 전혀 통제받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생활로 어둡고 침통한 삶을 보내는 절망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며 희망을 버리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내용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함께 바벨론 포수(Exile)기간 중 기록되었습니다. 남유다왕국의 백성들은 성전과 수도 등 왕국 전체가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파괴된 후 도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강제 이주되는 등 그 참혹상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한 느부갓네살은 바로 유다로 진격하여 궤멸시킨 후, BC. 605년 여호야קים을 봉신으로 봉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상류층 인사들을 볼모로 잡아 갔습니다(1:1~6). 그 후 BC. 597년, 여호야קים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비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에 진노한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하여 여호야김과 에스겔 선지자 등 1만여명을 포로로 잡아 가는 보복을 단행하였습니다(에스겔1:1~3,역대하36:10). BC. 586년, 3차 침입을 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다왕국 전체를 회생불능토록 붕괴시켜 버렸습니다(열왕기하25:1~7,예레미야34:1~7,39:1~7).

유다의 포로들에 대한 귀국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BC.538년에 가서야 허락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칙령으로 선포된 후(역대하36:22~23,에스라1:1~4), 귀국한 유다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복구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우여곡절 끝에 BC. 516년 재건되었습니다(에스라6:15). 그러나 바벨론 포로생활로 인한 종교문화적 변화는 적지 않았습니다. 성전 제사를 대신하여 회당(Synagogue)예배가 발생하였고, 아람어(Aramic, Syriac, Chaldee)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과 같이 제2의 모국어가 되었습니다(창세기31:47,신명기26:5).

"구원의 계시록"으로 불리워지는 다니엘서는 향후 전개될 인류 역사를 구체적,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와 구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제국들은 일시적으로는 번영하는 듯 하나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제한된 국가와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성취되는 하나님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서게 될 것이며 무한한 영광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요 남유다 왕국 귀족가문 출신인 다니엘은 BC. 605년, 느부갓네살왕의 침공으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제1차 포로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황실에서 양육되어 대제국 황실직속의 황실 종교자문위원과 비서관의 지위를 갖게 되기 까지의 과정들이 다니엘서 1장에 자기소개서 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가문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음식규정의 변화, 민족적주체성의 변질 등 바벨론이 주도하는 상류층의 교육을 3년간이나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개조 운동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벨드사살)과 하나냐(사드락)와 미사엘(메삭)과 아사랴(아벳느고)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는 순교자적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으로 부터 탁월한 신적 지혜와 지식을 보상으로 받게 되어 마침내 왕궁에 등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다니엘"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의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로 개명되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의 "하나냐"는 "태양의 영감"이라는 의미의 "사드락"으로, "하나님과 같은 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의미의 "미사엘"은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라는 의미의 "메삭"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아사랴"는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의 "아벳느고"로 강제 개명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본래 이름이었던 영적 내면까지는 개종시키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유한권력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이 본 금신상의 환상(2장)과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7장)을 통하여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제국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제국을 주권적으로 일으킬 뿐만 아니라 폐하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한 나라들이 돌 하나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빗맞은 듯 로마제국 신상의 발을 친 것 뿐인데 박살이 난 것은 4개의 제국 모두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작은 미세한 손길속에서도 이 땅의 무지한 강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벨드사살)과 하나냐(사드락)와 미사엘(메삭)과 아사랴(아벳느고)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앞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풀무불속에 함께 보내어 그들을 온전히 지켰고, 오히려 풀무불 밖에서 그들을 던졌던 바벨론의 장수들은 근접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에 타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적적인 사건으로 느부갓네살은 칙령을 공포하여 유대인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합법화 하였습니다(3장)

바벨론 마지막왕이었던 벨사살(Belshazzar, B.C. 552-539)이 1천명의 귀족들을 회집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성전 제기들로 유흥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어서 나누신다"라는 의미의 이 글을 해석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무게를 재어 보니 함람미달이라 그 나라를 멸망시켜 페르시아와 메대에 넘긴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메대의 다리우스 군대가 바벨론 하수구를 통해 진입하여 바벨론이 무혈점령 당하고 벨사살왕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5장)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다리우스왕은 다니엘을 제국의 2인자로 임명하고자 하였으나, 제국의 신하들의 시기 질투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함정을 파놓고 왕의 허락을 받아 향후 30일간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반대자의 음모에 굴하지 않은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기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자굴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오락을 폐하고 잠을 설치던 다리우스왕은 새벽 미명에 사자굴로 뛰어 갔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서 처참하게 죽어 있어야 할 다니엘은 손끝하나 당한 바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내용을 다리우스왕에게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고 대신 그를 모함하였던 자신의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사자들의 입은 열려졌고 이들의 모든 몸뚱이를 뼈채로 삼켜 버리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자 다리우스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였습니다(6장)

다니엘이 본 환상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한되고 부패한 인간적인 기원을 갖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종국적으로는 멸망하고 그 세월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성취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은 영원무궁토록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기대하며 지금의 고통과 환난을 이겨라고 외치고 있습니다(7장)

앗수르가 멸망하였지만 유다는 행복해 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있고 그 후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지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장래와 구원과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유다였습니다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 페르시아제국의 멸망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그리스 제국의 발흥,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유대교 박해사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8장)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 임박한 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특별기도중에 70이레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70이레의 환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를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동시에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9장)

이스라엘 장래의 결과는 무엇인가? 신구약 중간시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간에 벌어지는 전쟁(B.C. 247~221)과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교 박해 등이 연대기적으로 예언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의 종국적인 승리와 구원의 회복이 확증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10~12장). 욥이 말한 주의 결말과 같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끝은 환난의 대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귀환한다는 것을 확정하고 보증한다는 것으로 환상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I. 묵시문학(Apocalyptic Literature)

유대문학과 초기 기독교 문학의 형식인 묵시문학은 BC. 200~AD. 100년경에 성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주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묵시적인 내용은 구약 예언자들의 글인 요엘, 아모스, 스가랴, 말라기 등과 신약의 예수의 감람산강화(마태복음24장), 데살로니가4:13~, 요한계시록 등이었습니다. 이 외의 것은 지나친 비약과 상상력의 소산물로 위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 심한 박해와 위기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종교적 박해 아래에서 이 땅의 역사에서는 희망을 보지 못한 억눌린 사람들이 그들의 내세 지향적인 신앙관과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BC. 200~AD. 100년경 유대주의의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묵시문학 작품은 우주적 이원론의 기반 위에서 현실과 장차 올 종말론적 시대, 현재의 비관주의와 종말의 낙관주의를 극과 극으로 대조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환상과 묵시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가 지향하는 통일된 목표,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사상 등을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상징하거나 메시아의 출현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등을 현실감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Revelation)라는 말이 인지 불가능한 구속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알려 주심을 의미하는 신학적 술어라면, 묵시(Apocalypse)는 성경신학에서 종말을 묘사하는 문학적 술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묵시의 해석은 특수한 방법과 영적관계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므로 해석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

존하는 영적 자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성경외의 묵시들이 난립하거나 해석의 무원칙속에 무비판적으로 자기본위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6) 개요

다니엘서는 12장, 357절로 신약성경에 152회 인용되었으며, BC. 605~536년의 기록입니다

I. 다니엘의 헌신(1:1~21)

① 환경(1:1~7), ② 헌신(1:8~16), ③ 다니엘의 은혜를 입음(1:17~21)

II. 느부갓네살의 꿈 : 신상의 환상(2:1~49)

① 느부갓네살의 꿈(2:1~6), ② 다니엘에게 계시된 꿈(2:7~23),
③ 다니엘이 왕의 꿈을 반복하고 해석함(2:24~45), ④ 다니엘의 승진(2:46~49)

III. 극렬히 타는 풀무 : 신앙의 시련(3:1~30)

① 신앙의 시련(3:1~12), ② 신앙의 확신(3:13~18), ③ 신앙의 입증(3:19~30)

IV. 높은 나무에 관한 느부갓네살의 환상(4:1~37)

① 느부갓네살의 진술(4:1~18), ② 다니엘의 해석(4:19~27), ③ 하나님의 성취(4:28~37)

V. 벨사살의 잔치

① 벨사살이 잔치를 위해 한 일 : 무절제한 방종(5:1~4)
② 하나님께서 잔치를 위해 한 일 : 벽의 글씨 :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5:5~6)
③ 다니엘이 잔치를 위해 한 일 : 멸망의 선포(5:7~29)
④ 다리오가 잔치를 위해 한 일 : 바벨론 정복(5:30~31)

VI.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6:1~28)

① 다니엘의 지위(6:1~3), ② 다니엘에 대한 음모(6:4~9), ③ 다니엘의 기도(6:10~11),

④ 다니엘의 처형 집행(6:12~17), ⑤ 천사에 의해 보호된 다니엘(6:18~28)

VII. 네 짐승과 그 후의 일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7:1~28)

① 역사적인 연대(7:1~3), ② 환상과 그 해석(7:4~28)

VIII.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8:1~27)

① 환상(8:1~4), ② 해석(8:15~27) :

㉞ 수양(15~20), ㉞ 수염소(8:21~22), ㉞ 작은 뿔(23~25), ㉞ 다니엘에게 미친 영향(26~27)

IX. 70이레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9:1~27)

① 역사적인 연대(9:1~2), ② 다니엘의 기도(9:3~19), ③ 예언(9:20~27)

X. 다니엘의 미래전망(10:1~12:13)

- ① 다니엘의 환상(10:1~9), ② 다니엘을 격려함(10:10~11:1),
- ③ 열국들에 대한 예언들(11:2~45) : ㉓ 바사(11:2), ㉔ 헬라(11:3~4),
- ㉕ 애굽과 수리아(11:5~20), ㉖ 안디오크스 에피파네스(11:21~35),
- ㉗ 적그리스도(11:36~45)
- ④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12:1~13)

29. 호세아(Hosea, הוֹשֵׁעַ בֶּן-בְּעִי)

(1) 명칭

히브리성경의 전승과 관습대로 책의 주인공으로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여 책 이름을 호세아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세아"(Hosea, הוֹשֵׁעַ, Ὡσηέ Ōsēē)는 히브리명으로 "호쉐아 벤 브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예언서 또는 12예언서로 알려진 작은 예언서들 가운데 첫번째 책이었습니다

(2) 저자

호세아는 브에리의 아들로써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2세때 예언자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명령에 따라 디블라임의 딸이자 음란한 행실을 저지르는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BC. 755~725년(740~720이라는 설도 있음)에 예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앗수르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된 전쟁에 관한 언급과(5:8~) 그가 이스라엘이 실제로 몰락할 무렵(BC. 721년)까지 활동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가족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지역의 다신교와 음란한 관계를 맺는 패악이 자행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른 사건과 세명의 자녀들 또한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호세아가 당시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으며 대예언자 이사야와 견줄만한 지도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전승과 히브리 문헌들이 호세아가 호세아서의 저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부터 말미암은 심판의 확실성과 그 분의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호세아서는 기록되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은유법적 표현이 호세아서 전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인간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출애굽기1:5~8, 신명기6:1~25)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권념하는 호세아

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로 호세아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자기 동족에게 예언하였다면 아모스는 유다출신이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 애굽으로 피난한 그리스도와 돌아온 그리스도(11:1)
- ㉡ 이방인의 구원(1:10, 2:23)
- ㉢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1~3장)
- ㉣ 그리스도의 부활(6:2)

(4) 주제

"타락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1:10)를 주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이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 자신이 음란한 고멜과 결혼한 것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사랑이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회복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범죄와 타락과 음란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방치하게 되고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광야로 쫓아버리는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이스라엘은 가혹한 형벌을 통하여 정화되어 회복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선언한 것입니다 고멜이 가출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 질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5) 내용

호세아 사역기인(열왕기하14:23~17:41) 여로보암2세(BC. 782~753년) 시대의 특징은 물질적 풍요와 영적 빈곤이 교차하는 시대였습니다 심판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하였지만 BC. 732년 다메섹이 앓수르에게 함락되었고 10년후인 BC. 722년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호세아는 포로생활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3:4)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섭리를 회복한다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3:5)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고멜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1:1~9)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실정을 나타내어 주는 상징적인 기사였습니다(2:1~7)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음녀, 고멜이 정죄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에 대

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2:8~13) 이것은 앓수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BC. 722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종결짓지 않으시고 호세아에게 간음한 고멜을 다시 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3:1~5) 이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것을 상징하는 메세지를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1:10~11, 2~14~23)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것을 책망하였습니다(4:1~5:15)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6:1~3) 그러나 이미 패역에 빠진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회개하라고 거듭 외쳤습니다(6:4~10:5) 절망 가운데 희망이 있고, 패악 가운데 회개의 불꽃이 있음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돌아 올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11:1~14:9)

(6) 개요

호세아서는 14장, 197절로 신약성경에 26회 인용되었으며, BC. 755~725년의 기록입니다

I. 방탕한 부인(1:1~3:5)

- ① 불성실한 여인(1:1~11)과 그녀를 향한 징벌(2:1~13)
- ② 그녀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2:14~23)
- ③ 그녀를 위한 구속(3:1~5)

II. 방탕한 백성(4:1~14:9)

- ① 심판의 메세지(4:1~10:15)
 - ㉠ 경고(4:1~19)와 판결(5:1~15), ㉡ 이스라엘의 호소(6:1~3)와 주의 응답(6:4~11), ㉢ 이스라엘의 범죄들(7:1~16)과 심판의 예언(8:1~10:15)
- ② 회복의 메세지(11:1~14:9)
 - ㉣ 방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11:1~11)
 - ㉤ 방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11:12~13:16)
 - ㉥ 방탕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14:1~9)

30. 요엘(Joel)

(1) 명칭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요엘"은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요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라는 제목으로 한권으로 묶고 요엘서를 4장으로 분류하였지만 기독교 번역본들은 2~3장을 한장으로 하여 3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요엘서는 요엘과 그의 아버지 이름 브두엘이 나온다는 점을 제외하고 저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2) 저자

요엘서의 저자는 브두엘의 아들 요엘이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에 대하여 요엘서1:1 외에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의 아들이며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8: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같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13회 등장하지만 그 어떤 인물도 본 저자와 일치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브두엘의 뜻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엘의 가문은 경건한 종교적 가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승은 요엘이 전제와 소제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그의 부친인 브두엘이 제사장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제사장의 일원이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요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였으며 남왕국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2:1,23,32,3:16~20). 그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예루살렘 거주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1:9~16,2:14,17). 요엘은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첫번째인 요아스 통치(BC. 835~796년) 초기에 유다에서 사역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열왕기하11:1~12장), 이 책의 기록연대도 BC. 83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이스라엘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선민에게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엘서는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신약의 성령행전이라 한다면 본서는 구약의 성령행전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성령강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2:28~29). 이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순절 성령강림 사

건(사도행전2:1~3)으로 성취되었습니다

① 그리스도의 모형

- ㉓ 성령을 보낼 분(2:28~32), ㉔ 열방을 심판하실 분(3:2,12)
㉕ 산성과 피난처(3:16), ㉖ 구원자(3:22)

(4) 주제

"여호와와 날"(1:4)을 주제로 요엘서는 유대를 먹는 곤충 메뚜기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하나님이 유대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보낸 군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서들의 내용이 그와 같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는 앗수르와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타락과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듣지않고 패역을 이어 나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강들의 손에 그들을 내어주고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항상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2:28) 사도행전에서 성령강림으로 성취되는 이 메시지는 요엘 시대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었습니다(스바냐1:15). 마지막 순간의 희망은 "돌아서라"(2:12~17)와 "너를 회복시키리라"(2:18~27)는 메시지였습니다.

(5) 내용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은 "여호와와 날"(1:15,2:1~2,3:1,18)과 관련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팔레스틴에 임한 자연적 재앙이 여호와와 날의 예표가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1:1~2:17).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의 여호와와 날은 구원의 여호와와 날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2:18~3:21). 팔레스틴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은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큼 극심한 재앙이었습니다(1:1~12).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요엘은 이같은 재앙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상징하고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2:1~11). 여호와와 날은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백성들의 삶과 행위가 결정할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풍성한 축복과 언약의 복을 내려 주실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I. 성령과 그의 사역

■ 성령

- ① 성령의 인격성 : 성령은 지(고린도전서2:10~11), 정(에베소서4:30), 의(고린도전서12:11)를 가진 인격체, 교육(요한복음14:36), 인도(로마서8:14), 위임(사도행전13:4), 명령(사도행전8:29), 제어(창세기6:3), 중보(로마서9:26), 말씀(요한복음15:26)
- ② 성령의 신성 : 성령은 삼위의 다른 인격과 동등하게 관계하며(고린도전서6:11),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요한복음14:16) 신적인 전지성(창세기1:2), 진리(요한일서5:6), 거룩(누가복음11:13), 생명(로마서8:2), 지혜(이사야40:13), 창조(창세기1:2), 영감(베드로후서1:21), 그리스도의 탄생(누가복음1:35), 인간을 확신시킴(요한복음16:8), 중생(요한복음3:5~6), 위로(요한복음14:16), 중보(로마서8:26~27), 성결(데살로니가후서2:13)
- ③ 성부성자와의 관계 : 성령은 성부(요한복음15:26)와 성자((요한복음15:26,16:7)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나의 신"(창세기6:3), "하나님의 영"(고린도전서2:11), "주의 영"(고린도후서3:17), "그리스도의 영"(로마서8:9)

■ 성령의 사역

성령사역은 항상 삼위일체 사역의 종결과 완성이라는데 있습니다 성자의 사역은 성부의 사역을 따르고, 성령의 사역은 항상 성자의 사역을 따라 모든 구속 및 일반 사역을 피조물에게 직접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① 자연계의 사역
 - ㉞ 생명의 전달 : 존재는 성부로 부터, 말씀은 성자로 부터 , 생명은 성령을 매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피조물 창조사역의 최후 완성을 달성하였습니다(창세기1:3,욥기26:13,시33:6,104:30)
 - ㉞ 인간에게 일반은총의 영감과 능력을 주십니다(출애굽기28:3,31:2,35:35,사무엘상11:6,16:13~14시편51:11~12)
- ② 구속계의 사역
 - ㉞ 예언의 은사 : 신구약의 주의 종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행하였습니다(요한복음16:13,사도행전11:28,베드로후서1:21)
 - ㉞ 성경의 영감 :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무오한 진리를 전달합니다(고린도전서2:13,베드로후서1:21)
 - ㉞ 예수님의 성육신 예비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함(누가복음1:35,히브리서10:5~7,누

가복음3:22,요한복음3:34)

㉔ 구속의 적용 : 성자께서 성취한 구속사역을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이 성부께 최종적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심(요한복음3:5,8:14,고린도전서12:3)

㉕ 교회의 설립과 보존 :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실재화 되었으며 교회사의 전개에서 성령의 지속적 사역으로 교회는 지속되어 새하늘 새땅까지 전개 될 것입니다(요한복음14:26,15:26,16:13~14,사도행전5:32,고린도전서3:16,12:4,에베소서1:22~23,2:22,히브리서10:15)

II. 여호와의 날 사상

"여호와의 날" 사상은(1:15,2:131,3:14) 요엘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사상이었습니다(욥1:15,이사야13:6,에스겔13:5,아모스5:18,스바냐1:7)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던 요시아왕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범죄와 국내의 불평등구조의 사회악들이 해결될 미래를 소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의 악한 세력과 국내의 죄악들이 제거될 "구원의 날"로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외적 사상과 달리 선지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극도로 부패하여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없이 심판은 도래한다는 측면에서 선지자의 여호와의 날은 회개를 촉구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 제국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이사야2:12,에스겔7:7)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대적의 손에서 시작하여 그 대적의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 순환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제국의 손으로 넘어가고 역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신약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여호와의 날"로서 "메시아의 기념일"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 후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라 할 것입니다(고린도전서5:5,고린도후서1:14)

(6) 개요

요엘서는 3장, 73절로 신약성경에 34회 인용되었으며, BC. 440~430년의 기록입니다

I. 저자(1:1)

II. 폐허(1:2~2:17)

- ① 폐허의 성격(1:2~12), ② 폐허에 대한 반응(1:13~14), ③ 폐허의 모습(1:15~20),
④ 장래의 폐허 예언(2:1~11), ⑤ 폐허에 대한 권고(2:12~17)

Ⅲ. 구원(2:18~3:21)

- ①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2:18~27), ② 미래적 구원의 약속(2:28~3:21) :
㉞ 그 시초(2:28~32), ㉟ 그 심판(3:1~17), ㊱ 그 완성(3:18~21)

31. 아모스(Amos)

(1) 명칭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라는 제목으로 한권으로 하였으며 아모스도 3번째 책으로 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예언자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드고아 마을 출신으로 여로보암2세(BC. 786~746)때 활동하였습니다. "짐", "짐진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모스"는 히브리 관례의 전통에 따라 책 이름을 아모스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례는 헬라성경 등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2) 저자

1:1의 기록과 같이 아모스의 저작을 의심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1인칭문법으로 사용하며 이 글이 자신이 기록한 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5:1,7:1,4,7,8,8:1~2,9:1).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드고아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였습니다. 선지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부름으로 영적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7:4).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남방 예루살렘 남쪽 16km지점에 위치한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부터 직접 소명을 받아(7:15) 벰엘 북쪽으로 이주하여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용된 목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배경 설명을 통하여 아모스가 정경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출신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우상의 중심지이며 여로보암2세의 거주지였던 벰엘에서의 아모스 설교는 저항에 봉착하고 유다땅으로 돌아와 예언을 글로 기록하였습니다.

(3) 기록목적

배교와 방종으로 황폐화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멸망을 선포함으로서 회개의 길로 회복하도록 하며 말씀을 순종하는자가 종국적으로 얻게 될 새로운 나라의 구원을 선포함으로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비직업적인 선지자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명확하고 강렬한 논조로 정의와 공평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긴박한 시대상황과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선포됨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 그리스도의 모형

- ① 열방의 심판자(1:15~16)
- ② 이스라엘의 구원자(1:17~20)
- ③ 영원한 왕국의 소유자(1:21)

(4) 주제

"정의와 공의의 심판"(5:24)을 주제로 아모스는 다메섹(1:1~5), 블레셋(1:6~8), 두로(1:9~10), 에돔(1:11~12), 암몬(1:13~15), 모압(2:1~3), 유다(2:4~5), 북이스라엘(2:6~16) 등 8개국에 대한 경고를 하였으며 심판의 상징으로 불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의 패악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고 예외없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은 뇌물이 성행하고 가난한자를 억압하며 간음이 성행하는 불법부패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떼, 불, 담벽과 다림줄, 여름실과 한 광주리, 부서지는 기둥의 다섯가지 환상을 통하여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며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지만 그들은 패악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내용

아모스는 유다의 웃시야왕(BC. 790~739)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때의 인물이었으며, BC. 767~755년경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웃시야는 50년간 유다의 왕으로 적대국을 누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40년간 통치기간을 유지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2세는(BC.793~753) 이방의 우상숭배를 고의적으로 조장(열왕기하14:24~25)하고 제사제도에 혼합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여호와와 신앙을 어지럽혔습니다(호세아2:13~17) 사회는 간음, 살인, 강도 등 사회악이 만연하고 권력과 재력가들의 비리와 불법과 향락산업의 발전으로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아모스2:6~8,3:15,4:1,5:7~12,6:3~6,8:4~6,호세아4:1~2,6:8~9)

범죄한 이스라엘이 당면한 파멸의 위험성은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판의 참혹성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영적회복이 겹쳐진 것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사명받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주변 8강들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다메섹(1:1~5), 블레셋(1:6~8), 두로(1:9~10), 에돔(1:11~12), 암몬(1:13~15), 모압(2:1~3), 유다(2:4~5), 북이스라엘(2:6~16) 등 8개국은 "서너가지 죄"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국가범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의 설교는 현재(3장)와 과거(4장)와 미래(5~6장)를 각각 말하되 범죄와 심판

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며,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모스는 6장을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앞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징벌을 예고하는 메뚜기떼(7:1~3), 황폐화를 위한 불(7:4~6), 공의의 담벽과 다림줄(7:7~9), 썩어가는 여름실과 한 광주리(8:1~3), 무너져 내리며 부서지는 기둥(9:1~4)의 다섯가지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메뚜기떼와 불은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로 심판을 면하였지만 나머지 세가지는 문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도 벨엘 제사장 아마샤로 하여금 관제종교의 탄압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이 그러 하듯이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개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줄 복을 들고 있지만 그들은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쾌락과 유흥이 즐거울 뿐인 것입니다. 간음하는 동안 그 짧은 순간의 희락을 위해 죄의 굴레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심판의 어두운 날은 저녁노을을 길게 드리우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I.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이스라엘의 3대직분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으로서 이 가운데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특징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성경상 제사장(히브리어, 코헨)과 선지자(히브리어, 나비) 등 두 직분의 기원은 BC. 21세기경, 멜기세덱(창세기14:8)과 아브라함(창세기20:7)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시기 애굽과 바벨론 등 고대 근동지역의 국가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불리우는 무리들이 사회지도층의 최고위직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창세기41:45,47:22). 아브라함 시대로 추정되는 율기에도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케훈나"가 나타나고 있음은(율기 12:9) 이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의미의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출애굽(BC.1446) 호렘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방의 신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레위사람 제사장(하르위임 하코하님)으로 표기함으로서 이방의 제사장들을 가르키는 "케마림"(열왕기하23:5,호세아10:5,스바냐1:4)과 애굽의 제

사장(창세기46:20), 블레셋의 제사장(사무엘상6:2), 다곤의 제사장(사무엘상5:5), 바알의 제사장(열왕기하10:9), 다른 이방의 제사장(역대하34:4,예레미야48:7)들의 "코헨"과 완전히 구분하였습니다. 이방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기원이 토속적이고 인위적이며 미신, 마술, 거짓, 계시, 복술, 사주, 관상 등 허탄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예레미야14:14,23:25~28), 성경적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대조되는 것입니다.

① 제사장직의 직무

제사장직은 성소를 중심으로 ㉠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히브리서5:1) ㉡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출애굽기30:8,히브리서7:25). 이러한 중보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직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중 레위지파에 속해야 하며(민수기3:11,히브리서5:1~2),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인 자(민수기16:5,히브리서5:4), 아론의 후손인 자 중에서도 도덕적 순결과 거룩한 자(레위기21:6~8)로 제한하였습니다.

② 선지자직의 직무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로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언자들이었습니다. ㉠ 피동적 요소로서 반드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이사야6:1,예레미야1:4~10,에스겔3:1~4). ㉡ 능동적 요소로서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에스겔3:17,4:1~12). 한편 선지자 직분은 오직 신적 소명에 의존하므로 신분과 직업과 혈통과 계층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③ 제사장과 선지자의 특징

제사장과 선지자는 신적기원과 소명에 근거하고 있다는 공통점하에서 제사장은 체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선지자는 체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언)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두 직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무엘상2:18,3:20,에스겔1:3,에스라7:11,스가랴1:1).

④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구속사적으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분이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영원히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두 직분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중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직무입니다(갈라디아서2:20) 오늘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베드로전서2:4~5)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고 동시에(로마서12:1)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전도자서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6) 개요

아모서는 9장, 146절로 신약성경에 22회 인용되었으며, BC. 767~755년의 기록입니다

I. 저자와 주제(1:1~2)

II. 아모스의 예언들(1:3~2:16)

- ① 다메섹(1:3~5), ② 블레셋(1:6~8), ③ 두로(1:9~10), ④ 에돔(1:11~12),
⑤ 암몬(1:13~15), ⑥ 모압(2:1~3), ⑦ 유다(2:4~5), ⑧ 이스라엘(2:6~16)

III. 아모스의 설교

① 이스라엘의 운명(3:1~15)과 타락(4:1~13)

②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5:1~6:14) : ㉠ 임박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파멸(5:1~17)

㉡ 형식화된 종교에 대한 책망(5:18~27), ㉢ 전 국가를 향한 책망(6:1~14)

IV. 아모스의 환상(7:1~9:15)

① 삼키는 메뚜기(7:1~3), ② 불(7:4~6), ③ 다림줄(7:7~9), ④ 베엘 제사장들의 반대(7:10~17),

⑤ 과일 광주리(8:1~14), ⑥ 심판 주의 환상(9:1~10), ⑦ 미래 축복의 환상(9:11~15)

32. 오바댜(חִבְדִּיָּה, Obadiah)

(1) 명칭

오바댜는 "주의 종", "주의 경배자"라는 의미를 가진 뜻으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로 구약성경에서는 12명 이상 언급되고 있으나 동일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댜의 내용이 예레미야49:7`22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에돔에 관한 예언이 두개였으나 어떤 사람에 의해 수정본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일부학자들의 추측이 있으나 확인된 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성경의 제목에 따라 오바댜는 70인역(LXX)과 별게이트역(Vulgate)에서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서의 저자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관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2) 저자

오바댜서의 저자가 오바댜라는 사실은 본서 1:1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확보된 것이 없으나 유대인들의 전승과 교부들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본서의 기록연대도 BC. 920년설과 같은 주장들이 있으나 예루살렘 함락당시인 BC. 586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과 동시대 인물로서 남유다왕국의 멸망과 그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점과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 지라도 범죄가 용인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치유와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침략과 관련된 에돔의 죄악을 현재의 죄악인 것 처럼 이야기 함으로서 저들의 죄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모형

- ① 열방의 심판자(1:15~16)
- ② 이스라엘의 구원자(1:17~20)
- ③ 영원한 왕국의 소유자(1:21)

(4) 주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1:15)을 주제로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이 형제국가인 유다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와 그들의 패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은 형제국가인 유다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들이었지만 오랜 역사적 감정이 고립화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었고 오히려 바벨론의 약탈자의 편에서는 악한 행위에 심판의 경고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한장의 내용속에는 회개를 통한 용서와 회복도 함께 구성되어 있음으로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5) 내용

에돔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BC. 5세기경 사해 남쪽지역에서 요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돔에는 셀라(Sela,바위성)와 드만, 보스라 등과 같은 요새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셀라는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 지형은 페트라가 있는 지형으로 해발 600~700m의 높이로 치솟은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좁은 협곡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뭇족속들은 BC. 312년 이전에 에돔족속을 셀라에서 축출하였습니다. 에돔족속들은 유대남쪽 건조지대인 네겟에 정착하였다가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에돔족속간의 적개심은 오랜 세월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에돔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불허하였고, 가나안 원주민을 지원하여 가나안 정복을 지연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대왕이 바로 에돔족속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 죄과에 대한 혹독한 책망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국인 에돔에게서 조차 멸시와 천대를 당한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유다와 친척 관계에 있으면서도 환난을 당한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10~14).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열한 형제들의 상황에 진노하셨고 에돔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세력의 멸망을 말하는 영적 교훈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옛날 다윗왕 때 차지 하였던 영토까지 되찾아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19)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약속(20)은 절망 가운데 모든 희망을 잃은 유대인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6) 개요

오바다서는 1장, 21절로 신약성경에 1회 인용되었으며, BC. 580~560년의 기록입니다

I. 에돔의 운명(1:1~9)

① 심판의 확실성(1~4), ② 철저한 멸망(5~9)

II. 에돔에 대한 고발(1:10~14)

① 우애없음(10), ② 무관심(11~12), ③ 호전성(13~14)

III. 에돔의 파멸(1:15~21)

① 파멸의 시기(15), ② 파멸의 성격(16~21)

33. 요나(Jonah)

(1) 명칭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라는 제목으로 한권으로 하였으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요나서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과 같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가 이 글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요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자(요나, BC.760년)

아밋대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1:1) 열왕기하 14:25에는 갈릴리 지방 스불론 땅 가드 헤벨 출신으로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로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과 2장의 기도문으로 보아 이 글은 요나가 기록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요나의 글이라는 확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전승들은 요나의 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책이 요나의 기록이 아니라 요나에 관한 어떤 사람의 기록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때 활동하던 선지자로서(열왕기하14:25) 니느웨의 참회가 앗수르단3세(BC. 771~754)의 치세중에 발생한 것으로 짐작하여 BC. 7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요나서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민적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모든 세계,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의 종교적, 도덕적 우월성과 특권적 선민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반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움이 세계 만방에 퍼질 것을 예고하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 그리스도의 모형

① 그리스도의 죽음, 무덤, 부활(1:17)

- ② 용서를 보이신 그리스도(4장)
- ③ 세상을 주관하신 주(1:4~16)

(4) 주제

"이방, 니느웨의 복음"(4:11)을 주제로 요나서는 이스라엘 선민사상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요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보편적 복음의 세계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향을 갖고 시작합니다. 앗수르제국의 니느웨는 요나의 입장에서 정복 대상이고 패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결코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결심은 그를 다시스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잔을 피하지 않으셨는데 요나는 그 잔을 피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자신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로 되돌아갔지만 복음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각성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으며 바벨론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초가 되게 하였습니다.

(5) 내용

하나님은 어느 민족과 종파에 국한된 제한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편협하고 우월적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경내에서만 통치하시는 일종의 토착신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방세계에 대한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창세기12:1~3)과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을 전파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이사야42:1).

니느웨가 앗수르제국에 소속된 지역이었다는 이유로 요나의 생각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사상과 우월성에 집착한 이유도 있었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앗수르제국은 사탄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동쪽의 800km의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서쪽 200km지점에 위치한 다시스로 가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도피를 초자연적으로 중단시키고 요나의 패역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깊음은 절대적 위기를(시편42,88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마태복음12:40)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며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논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였으나 사실 그들로 부터 회개를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니느웨성 전체를 통회와 개혁의

블랙홀속으로 몰아 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며 하찮은 미물보다 인간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니느웨성의 대각성 회개운동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성령의 바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 하셔서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로 달려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피를 토하는 각성 촉구에도 변함이 없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민들보다 그저 흘러가는 요나의 한마디에도 통곡하는 눈물의 니느웨 백성들의 순결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나서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파선 직전에 바다가 잔잔하여 진 일(1:15)을 시작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 3일동안 안전하게 보호한 일(1:17),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과 물고기가 3일 후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일(2:10), 그리고 박넝쿨(4:6)과 벌레(4:7), 바람(4:8)을 준비한 일과 더 나아가 앗수르제국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일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 할 것이었습니다.

(6) 개요

요나서는 4장, 48절로 신약성경에 9회 인용되었으며, BC. 784~772년의 기록입니다.

I. 도망하는 요나(1:1~17)

① 이유(1:1~2), ② 도망하는 길(1:3), ③ 결과(1:4~17) : 선원들(1:4~11)과 요나(1:12~17)

II. 기도하는 요나(2:1~10)

① 그가 드린 기도의 성격(2:1~9), ② 기도에 대한 응답(2:10)

III. 설교하는 요나(3:1~10)

① 하나님의 명령(3:1~3), ② 설교의 내용(3:4), ③ 설교의 결과(3:5~10)

IV. 요나의 새로운 각성(4:1~11)

①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불평(4:1~3), ②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4:4~11)

34. 미가(Micah)

(1) 명칭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라는 제목으로 한권으로 하였으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미가서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과 같이 유다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 글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자가 누구이냐"라는 의미를 가진 "미가야후"에서 유래하였습니다(역대하17:7) 맛소라 본문(예레미야26:18)은 "미가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미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자(미가, BC. 700년경)

유다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갓지파의 모레셋 사람 미가는 유다출신으로 유다에서 생활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비판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동시대에 살았던 팔레스틴 남서부 모레셋의 미가는 유다평민들에게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가는 요담(BC. 739~735)왕 재위기간중 사역을 시작하여 아하스왕(BC. 735~725)과 히스기야(BC. 725~697)전 시대를 통하여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가가 히스기야왕 시대까지 예언 활동을 한 사실은 예레미야26:18~19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언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고 미가가 앗수르가 아닌 바벨론을 언급한 점(4:10) 등을 이유로 미가의 저자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미가의 저자설을 확인하고 마지막 일부를 제자 중 한사람이 문자로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 대해 알려줌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복하며, 이를 통하여 남북왕국을 경성케 할 뿐만 아니라 암흑의 질은 그림자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 주어지는 책망과 경고, 소망의 메세지가 많은 것은 백성들에게 보다 강하게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1:13,15, 5:5, 6:4~6, 7:20)

■ 그리스도의 모형

- ① 그리스도의 탄생지(5:2) : 베들레헴 에브라다
- ② 그리스도의 선재(5:2)
- ③ 의로운 왕(2:12~13,4:1~8,5:45)
- ④ 우러러 바라 볼 자(7:7~8)
- ⑤ 평강의 주(5:4)

(4) 주제

"유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베들레헴"(3:8,5:2)을 주제로 유다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언(1~3장)과 약속된 궁극적 축복(4~5장)을 위한 회개(6~7장)를 외치는 미가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아하스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들의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폐쇄하는 등 패악을 거듭하였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왕실을 중심으로 사역 하였다면, 미가는 주로 평민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였고,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사역활동을 하였습니다. 멸망이 다가오는데 소풍을 가려는 패악은 남과 북의 공통적인 죄악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 회복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가는 환난과 고통의 과정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5:2).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선명한 지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치명적인 심판이 아니라 회복가능한 심판이었습니다.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 깊은 죄의 늪에서 깨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5) 내용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 앗시리아의 통치자들은 빌레셀3세(BC. 744~727), 사르곤2세(BC.722~705), 산헤립(BC. 705~681) 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함락후 유다의 북부와 서부를 공략한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장기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은 느부갓네살2세(BC. 586)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앗수르제국은 애굽과 유다를 제외한 고대 근동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그들로 부터 조공을 받는 식민통치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 즉위할때 마다 반란을 일으키는 불안정국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세로 인하여 국경지역 지방주민들의 삶과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었습

니다 국경수비대들의 약탈과 노예와 성적유린은 그들의 삶과 문화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들과 결탁한 지방의 유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안전한 성안에 거주하며 그들의 일탈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미가 선지자는 이들의 패악을 결코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나누어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종교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였습니다(1:7,2:11,3:5~7) 또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고단한 백성들의 남은 물 한방울까지도 수탈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심판을 경고 하였습니다(2:1~2,3:1~4)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을 배신한 죄악이었습니다(신명기15:7~8)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으로 그들에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였습니다 왕국의 회복(4:1~5)과 포로들의 귀환(4:6~5:1), 그리고 왕국의 통치자에 대한 예언(5:2~15)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2의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미래적 소망과 성취로서 당시에는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요구되었습니다(6:1~7:6)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찾았고 타락과 방탕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회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7:7~20)

(6) 개요

미가서는 7장, 105절로 신약성경에 14회 인용되었으며, BC. 733~701년의 기록입니다

I. 머리말(1:1)

II.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메세지(1:2~2:13)

① 임박한 심판의 계시(1:2~16), ② 임박한 심판의 이유(2:1~13)

III. 멸망과 구원의 메세지(3:1~5:15)

① 멸망 : 임박한 심판(3:1~12) : ㉞ 지배자(1~4), ㉞ 거짓선지자(5~8), ㉞ 예루살렘(9~12)

② 구원 : 미래의 왕국(4:1~5:1) : ㉞ 왕국의 영광(4:1~8), ㉞ 왕국에 앞서는 고난(4:9~5:1)

③ 구원 : 미래의 왕(5:2~15) : ㉞ 초림(5:2~3), ㉞ 재림(5:4~15)

IV. 경고의 메세지(6:1~7:10)

㉞ 하나님의 1차경고와 이스라엘의 답변(6:1~8), ㉞ 하나님의 2차경고와 이스라엘의 답변(7:1~10)

V. 맺는 말 : 이스라엘의 축복(7:11~20)

35. 나훔(Nahum, Ναούμ)

(1) 명칭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라는 제목으로 한권으로 하였으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나훔서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과 같이 엘고스 사람 "나훔" 이 이 글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나훔"(Ναούμ)은 "위로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나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자(나훔, BC. 612년)

나훔은 남유다 요시아왕(BC.640~609년)시대 BC. 650~620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나훔은 엘고스 출신이라는 점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엘고스가 "나훔의 도시"(Nahum's city)라는 어원을 가진 가버나움이라는 학자들도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1:1의 첫머리와 같이 엘고스 사람인 나훔이 나훔서의 저자임은 분명하였습니다 유대전승에서와 같이 저자의 이름을 첫머리에 등장시킴으로서 이 이야기의 내용전개에 관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은 BC. 661년, 앗수르왕 아술 버니팔 (Ashurbanipal)에 의해 점령된 노아몬(Thebes)의 함락과 BC. 612년, 바벨론왕 나보폴라살(Nabopolassar)에 의해 점령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함락 직전에 일어난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전에는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으나 그후 100년에 걸치면서 그들은 패악으로 되돌아 갔고 결국 나라까지 멸망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훔은 요시아왕 말기인 BC. 612년경 이 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기록목적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국가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불의한 국가와 부패한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은 요나서와 함께 앗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중요한 사실이 기록된 것에 비해 나훔은 요나에 의해 믿음을 가졌던 100년전의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패악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으로 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모형

- ① 복음을 전하는 자(1:15)
- ② 짐을 가볍게 하실 자(1:12~13)
- ③ 환난 날의 산성(1:7)
- ④ 심판하실 자(1:8)
- 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자(1:3)

(4) 주제

"니느웨의 멸망"(1:2)을 주제로 BC. 600년경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성의 죄악과 그로 인한 멸망의 징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요나의 시대처럼 복음을 듣고 대각성 회개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악은 더 잔혹하고 더 패악한 교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앗수르는 유다 백성 20만명을 포로로 잡아갔던 하나님의 대적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니느웨의 불안한 정세는 결국 BC. 612년, 바벨론왕 나보폴라살(Nabopolassar)에 의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5) 내용

BC. 784년 요나는 니느웨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생각과 달리 복음을 듣고 대각성 회개를 일으켰으며 니느웨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아래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년 후, BC. 620년경의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모든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나훔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똑같은 100년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경고로 이어졌고 심판의 예언으로 이어졌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악을 더 하였고, 20만명이 넘는 유다의 포로는 여전히 앗수르 제국의 발밑에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에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증거하였습니다(1:2~8). 이것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입니다(1:9~14). 나훔이 전하는 니느웨의 멸망은 유다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소식(1:15)으로 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니느웨의 대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2차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앗수르는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이방족속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열왕기하15:19,29,17:1~6,18:14~16,19:35~37).

니느웨의 멸망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나훔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2:2)을 언급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멸망하는 니느웨를 증거하였습니다(2장)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훔은 니느웨의 죄악과 패역함을 지적하였습니다(3:1~7)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당위성만이 존재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3:8~19) BC. 612년, 바벨론왕 나보폴라살(Nabopolassar)에 의해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6) 개요

나훔서는 3장, 47절로 신약성경에 4회 인용되었으며, BC. 650~620년의 기록입니다

I. 주제와 저자(1:1)

II. 하나님의 위엄(1:2~14) :

① 하나님의 품성(1:2~8), ② 하나님의 진노(1:9~14)

III. 하나님의 심판(1:15~3:19) :

① 심판의 선포(1:15), ② 심판의 예언(2:1~2), ③ 심판의 묘사(2:3~10),

④ 심판의 변호(2:11~3:7), ⑤ 심판의 경고(3:8~10), ⑥ 심판의 필연성(3:11~19)

36. 하박국(Habakkuk)

(1) 명칭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 Minor Prophet)라는 제목으로 한권으로 하였으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하박국서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과 같이 "하박국" 이 이 글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구약의 신앙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록이 하박국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하박국"은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부 제롬은 "껴안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하박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자(하박국, BC. 612~605년)

하박국(BC. 621~609)은 현직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를 사역하였던 소선지자로 알려져 있을 뿐, 하박국 선지자에 관한 사적인 내용에 관하여 성경에는 그 어떤 정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열왕기하 4:16에 나오는 수넬여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1:1과 같이 하박국서도 하박국에 의하여 기록된 것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BC. 621년에서 609년까지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으며 니느웨가 멸망한 후 요시아왕(BC. 640~609) 재위 말기인 BC. 612~605년 경,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서 하박국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 기록목적

하박국은 신앙변증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신학사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불의가 선보다 득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하박국서는 보다 강한 어조로 신앙인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의함이 선보다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주관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하게 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신약적 특징을 가지고 믿음을 그 어느 때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하고 패악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본적 진리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모형

- ① 소망과 구원의 주(3:17~18)
- ② 사랑의 주(3:2)
- ③ 믿음의 주(2:4)
- ④ 재림의 주(2:14)

(4) 주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2:4)는 주제로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질문은 왜 유다에 있는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가? 바벨론인들은 악인들 중 악인들인데 왜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인간의 삶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이 서로 극과 극임을 알려주면서 믿음의 그림자속에는 항상 인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5) 내용

하박국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대화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번째 질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버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1:1~4). 유다에 불의가 득세하고 사회를 주도하는 것을 바라보며, 반대로 의인은 길모퉁이 한결에서 목소리를 낮추어야 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갈대아, 즉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도구로 예비하셨다는 것인데 바벨론이 곧 팔레스틴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긴박한 경고였습니다(1:1~11).

하박국의 두번째 질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를 사용하시어 유다를 징계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1:12~2:1).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의 손으로 치려 하시는가 하는 충격적이고 이해할수 없는 하박국의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유다가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징계를 당하는 것 처럼, 갈대아도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2:4)(에베소서2:8)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2:2~20).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을 깨달은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과 고난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 하리라는 신앙고백으로 하박국은 해피엔딩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6) 개요

하박국서는 3장, 56절로 신약성경에 8회 인용되었으며, BC. 621~609년의 기록입니다

I. 머리말(1:1)

II.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1:2~2:20)

① 하나님은 왜 유다의 악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셨는가(1:2~4) : 하나님의 답변(1:5~11)

② 하나님은 왜 악한 백성을 유다를 징계하는데 사용하시는가(1:12~2:1) : 하나님의 답변(2:2~20)

III. 하박국의 신앙고백(3:1~19)

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미(3:1~3)

②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미(3:4~7)

③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찬미(3:8~16)

④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미(3:17~19)

- ① 심판주(1:3,15~16), ② 전능자(3:17)
③ 심중에 거하시는 그리스도(3:5,11~17), ④ 그리스도의 사역(3:17~20)

(4) 주제

"여호와와 날, 심판과 축복"(3:17)을 주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심판하려 하는가? 진노와 심판의 임박성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영적 기후는 암흑기였습니다. 우상숭배와 폭력, 사기와 무관심으로 가득차 있는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블레셋, 모압, 암몬과 에디오피아, 앓수르 등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2:4~3:8).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심판후에 올 희망의 불꽃은 새 예루살렘으로 시작됩니다. 심판에는 항상 회개가 있고 올바른 회개와 각성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 내용

스바냐는 여호와와 날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유다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디오피아와 앓수르를 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1 | 2~18,3:1~7)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보응적 심판(2:4~15,3:8)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스바냐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2:1~3). 이러한 선지자들의 끝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BC. 586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와 날에 대한 심판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집행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진노중에서 은혜와 긍휼을 만지작 거리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후에 도래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야 왕국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열마가 회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며(3:9),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어서 구원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며(3:10~13),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산(요엘3:17)으로 돌아옴으로서(3:14~20) 부분적인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6) 개요

스바냐서는 3장, 53절로 신약성경에 5회 인용되었으며, BC. 636~623년의 기록입니다.

I. 저자, 시대적 배경(1:1)

II. 심판의 예언들(1:2~3:8)

① 유다에 대한 심판(1:2~18), ② 회개에의 경고(2:1~3),

③ 이방열국들에 대한 심판(2:4~15) :

㉞ 서쪽, 블레셋(4~7), ㉞ 동쪽, 모압, 암몬(8~11), ㉞ 남쪽, 에디오피아(12), ㉞ 북쪽, 앓수르(13~15)

④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3:1~7), ⑤ 열방들에 대한 심판(3:8)

III. 축복의 예언(3:9~20)

① 이방을 위한 미래의 축복(3:9~10), ② 유다를 위한 미래의 축복(3:11~20)

38. 학개(Haggai)

(1) 명칭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 Minor Prophet)라는 제목으로 한 권으로 하였으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학개서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과 같이 "학개"가 이 글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환난의 시기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학개"(חֲגַי)는 "축제", "절기"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여호와와 축제, 나의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학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자(학개, BC. 520년)

남유다의 선지자 학개(BC. 520)는 스가랴 선지자(BC.530~489)와 동일한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에 의해 포로들이 귀환하는 기간 중이었습니다. "학개"(חֲגַי)라는 이름은 "축제", "절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여호와와 축제, 나의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개가 하나님의 절기 축제기간중에 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에서 50년이 지난후에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출생한 학개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 가문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할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BC. 6세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보편적 특징은 익명성이었습니다. 학개 역시 개인적인 정보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에서와 같이 학개서의 저자가 학개인 것 만큼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페르시아왕 다리오 1세(BC.522~485)가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시기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재건을 중단한지 15년째 되는 BC. 520년경 학개 선지자는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3) 기록목적

학개서의 주요목적은 무기력한 귀국자들에게 자극을 줌으로서 성전을 재건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된 기초위에서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재조직하는데 있습니다. 유다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신정주의적 사회에 관한 비전을 상실할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복구되어야 할 예루살렘은 전과 같은 자유로운 이방적 자유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나님과 결속되고 포로를 해방시키고

회개한 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사제국의 격동기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깨우쳐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교훈해 줌으로서 신정주의를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모형

- ① 만물의 소유자(2:8)
- ② 성전재건을 통한 예언(2:9)
- ③ 스룹바벨 다윗의 혈통(2:13)

(4) 주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1:8)을 주제로 학개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C. 520년, 여섯째달 1일, 성전건축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하나님의 전보다 자기들의 터전과 집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1:1~15). 일곱째달 21일, 두 번째 성의 영광은 첫 번째 성의 영광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2:1~9). 아홉째달 24일, 죄가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 성전건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2:10~19).

(5) 내용

페르시아왕 고레스(Gyrus)가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점령한 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BC. 536년, 성전의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주변의 적들이 연합하여 성전건축을 모함하여 모든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15년간 방치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하였을 때 성전건축이 재개되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만이 성전건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옛 생활터전마저 상실한 것에 대하여 자포자기의 심령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때 이러한 패자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다백성들이 여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1:1~11).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건축이 우선이라는 학개의 설교에 감화된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휘아래 성전재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1:12~15).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는 학개는 지금의 성전이 옛 성전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외치면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클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2:1~9) 유다의 재정은 바닥에 이르렀고 이것은 없는 가운데서도 힘을 모아 성전재건에 나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개는 지금까지 성전건축을 중단한 채 방관해 온 백성들의 죄를 일깨웠습니다(1:10~19)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하였으므로 이후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2:19)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장차 열국들이 무너질때 스룹바벨이 큰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학개의 기록은 끝을 맺습니다(2:20~23)

(6) 개요

학개서는 2장, 38절로 신약성경에 7회 인용되었으며, BC. 520년의 기록입니다

I. 성전건축의 호소(1:1~15)

- ① 머리말(1:1~2), ② 책망(1:3~6), ③ 대책(1:7~8),
- ④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1:9~11), ⑤ 백성들의 반응(1:12~15)

II. 주 안에서 담대할 것(2:1~9)

III. 정결한 생활(2:10~19)

IV. 미래를 확신할 것(2:20~23)

39. 스가랴(Zechariah)

(1) 명칭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 Minor Prophet)라는 제목으로 한 권으로 하였으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와 함께 스가랴서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과 같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가 이 글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재건과 영적부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스가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자(스가랴, BC. 520~518년)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부친인 베레가의 죽음으로 조부 잇도를 계승한 스가랴(느헤미야12:4)를 스가랴서의 저자로 확인합니다(1:1,7,4:8,6:9,7:8,8:18). 스가랴의 이름은 구약에서 29명이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BC. 520~505)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에스라5:1,6:14). 스가랴는 스가랴서에서 1인칭으로 칭하였습니다(1:8,9,14,18). 스가랴는 1~8장에 대하여 BC. 520년 예언을 시작하였으며 마지막 예언(7:1)은 다리우스왕 4년인 BC. 5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기록은 잠시 중단되었으며 9~14장은 성전재건이 완료된 후인 BC. 480~47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체와 주제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1~8장과 9~14장은 각각 다른 저자의 기록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의 후반부인 9~14장은 메시아의 강림, 그의 왕국과 관련된 묵시적 예언을 마치기 위하여 일정 기간후 기록되었으므로 스가랴의 기록이라고 대다수 보수주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3) 기록목적

스가랴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며(1~6장)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고(4:8~10) 영적부흥을 도모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 환상이 많고, 이사야서와 같이 메시아 예언과 천사에 대한 언급과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 및 종말론적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모형

- ① 여호와의 사자(3:1)
- ② 일곱눈을 가진 돌(3:9), 왕인 제사장(6:13)
- ③ 겸손한 왕(9:9~10), 모퉁이 돌(10:24), 말뚝(10:4)
- ④ 싸우는 활(10:4), 배척당할 자(10:4~13)
- ⑤ 은 30에 팔림(10:4~13), 선한 목자(10:4~13)
- ⑥ 찢림을 받음(12:10), 씻는 샘(13:1)
- ⑦ 칼로 침을 당함(13:7), 의로운 왕(14장)
- ⑧ 장차 오실 심판자(14장), 머릿돌(3:8,4:7)
- ⑨ 나귀를 타심(9:9), 언약의 피(9:11), 그리스도의 재림

(4) 주제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 성전건축"(8:3)을 주제로 스가랴서는 성전건축과 성전건축 후의 영광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민족종교의 중심지로서 세계로 퍼져 나갈 복음의 성산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후 시온의 영광이 도래하는 영원한 성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귀환후 성전건축은 오랜 기간 완공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건축전과 후의 모습을 통하여 거듭남과 중생으로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내용

성전재건공사를 계속할 정력을 상실해 버린 이스라엘에게 스가랴는 선조들이 행한 악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1:2~6). 스가랴에는 해석이 난해한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상들은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이 결과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다섯가지는 위로를 나머지 셋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져 보입니다.

- ① 화석류 나무사이에 홍마를 탄 자(1:7~17) : 그리스도,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
- ② 네 뿔과 네 공장(1:18~21) : 네 뿔은 4대세력, 네 공장은 그 뿔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가 받을 심판,
- ③ 측량줄을 잡은 자(2:1~13) :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심,
- ④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3:1~10) : 이스라엘의 정결, 칭의의 옷과 거룩,
- ⑤ 순금 등대, 금촛대(4:1~14) : 성령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더함,
- ⑥ 날아가는 두루마리(5:1~4) :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
- ⑦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5:5~11) : 없어질 민족의 죄, 여인은 죄와 반역을 상징,

바벨론이 없어짐,

⑧ 네 병거(6:1~8) : 열방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

■ 관을 쓰는 여호수아(6:9~15) : 그리스도의 강림

스룹바벨 제사장의 인도로 돌아온 1차 포로들은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내외부의 정치 사회적인 술수와 벽에 부딪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 후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완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뒷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개축을 위해 총독의 지위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과거 재난을 당하였을때 제정되었던 금식기도 제도가 계속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7:1~3)을 받고 스가랴는 금식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의 심적 상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네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7:4~8:23) ① 헛된 의식을 배격하라(7:4~7), ② 과거 불순종을 기억하라(7:8~14), ③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바라라(8:1~17), ④ 이스라엘에 기쁨의 회복(8:18~23)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9~11장과 12~14장 등 두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경고(9~11장)는 이웃나라는 멸망을 받으나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과(9:1~8), 메시아께서 시온에 임한다는 것과(9:9~10),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이기고 영광을 누린다는 것과(9:11~17), 메시아의 축복과(10:1~11:3), 배척받는 메시아(11:4~17)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번째 경고(12~14장)는 메시아의 예루살렘 구원(12장)과, 정결과(13장), 메시아의 통치(14장)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다윗왕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총독이며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시점에서 사용한 지도자였을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것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스가랴는 구원사에 있어서 제사장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로 보는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건축과 정기적인 의식의 제도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속에서 타락한 백성을 선민으로 구원한 예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는 개인의 회개와 새로운 생활만이 전 민족적인 개혁과 회복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개혁운동에 신

님을 걸어야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선명한 예언으로 나타날 정도로 밝은 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언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9:9) 이러한 충격적인 예언은 다윗의 아들 예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던 스가랴서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초림(3:8,9;16,11:11~13,12:10,13:1,6)과 재림(6:12,14:1~21)에 관한 흔적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I.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의미

① 성전의 존재 의미 :

성전 자체는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적인 실체로서 신앙의 확신과 경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서 성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의 모형이며 예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구속사 전개에 한 시점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 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성과 죄인이 하나님앞에 나아오는 방법과 절차를 엄정하게 제한함으로서 신약의 성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와 비교해 볼 때 간접성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② 성전의 역사 :

성전의 역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Tebernacle)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성을, 성전은 고정성을 갖는 점 외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번 건립되었으나 성경에는 에스겔이 환상중에서 본 성전까지 모두 네개의 성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시대적 구분은 솔로몬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과 신약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③ 성전의 단계적 제한성의 의미 :

유대교가 가진 배타적 장소를 설명하며 죄 지은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앞에 나아가는 것의 제한적 요소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성전건물은 6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졌고 각 구획마다 한 단계씩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성결을 강조하였습니다

- ㉓ 이방인의 뜰 : 이방인들에게 허용한 유일한 장소로 성전경내 외곽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 ㉔ 성전, 벽 : 90cm의 담으로서 이방인들이 넘어설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 ㉕ 여인의 뜰 : 이방인의 뜰보다 90cm 높은 곳으로서 유대 여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㉖ 이스라엘의 뜰 : 여인의 뜰보다 3m 높은 곳으로 유대 남자들이 들어갔습니다
- ㉗ 제사장의 뜰 : 이스라엘의 뜰보다 90cm 높은 곳으로서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 ㉘ 하나님의 전 : 제사장의 뜰보다 2m50cm 높은 곳으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개의 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때에 자신의 임무를 위해 들어갔으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단 한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배제하였던 것은 유대인의 선민사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뜰을 계급별로 나누고 출입을 금지하여 유대교 체제의 엄격한 신분차별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년에 단 한차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점과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한 장소 가까이에 보통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한 여러가지 경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들로부터의 분리에 대해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④ 성전에서 교회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과 회개한 인간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 졌는데(마태복음27:51),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히브리서 10:19~20)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로마서10:12)과 남자와 여자의 차별(갈라디아서3:28)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차별(요한계시록1:6) 등 모든 신분적 차별이 철폐된 것이었습니다

(6) 개요

스가랴서는 14장, 211절로 신약성경에 71회 인용되었으며, BC. 520~489년의 기록입니다

I. 회개의 경고(1:1~6)

II. 스가랴의 환상들(1:7~6:15)

① 화석류 나무사이에 홍마를 탄 자(1:7~17)

② 네 뿔과 네 공장(1:18~21)

③ 측량줄을 잡은 자(2:1~13)

④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3:1~10)

⑤ 순금 등대, 금촛대(4:1~14)

⑥ 날아가는 두루마리(5:1~4)

⑦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5:5~11)

⑧ 네 병거(6:1~8)

⑨ 관을 쓰는 여호수아(6:9~15)

Ⅲ. 금식에 관한 질문들(7:1~8:23)

① 금식(7:1~3), ② 백성들의 태만(7:4~14), ③ 예루살렘의 장래(8:1~23)

Ⅳ. 미래에 대한 경고(9:1~14:21)

① 첫번째 경고(9:1~11:17)

㉞ 알렉산더 대제의 승리(9:1~8), ㉞ 오시는 왕(9:9~10), ㉞ 마카비의 승리(9:11~17),

㉞ 메시아의 축복(10:1~12), ㉞ 목자의 거절(11:1~17)

② 두번째 경고(12:1~14:21)

㉞ 주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심(12:1~14),

㉞ 주께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심(13:1~9),

㉞ 주께서 예루살렘에 두번째 오심(14:1~21)

40. 말라기(Malachi)

(1) 명칭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 예언서를 '12'(The Twelve Minor Prophet)라는 제목으로 한 권으로 하였으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와 함께 말라기서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과 같이 "말라기"가 이 글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익명의 저자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는 환난의 시기후에 도래한 유다백성들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질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말라기야"에서 파생되었는데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말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영어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자(말라기(익명성), BC. 433~432년(BC. 450~400년))

말라기(BC. 435?~415?)는 히브리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서의 저자로 보는 견해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하였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말라기를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보통명사로 취급함으로써 저자를 익명으로 보는 견해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우세한 입장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말라기는 레위인으로 대회당(Great Synagogue)에 소속된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 포로귀국 후 제2성전이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재해석한 사실(에스라7:10~26)과 모세율법의 불이행등이 사실로 간주된 점을 고려할 때 본서의 기록연대를 BC. 450~40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의 유사점, 즉 제사장의 타락, 불성실한 십일조, 이방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언급으로 볼때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는 동시대의 기록인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에 언급된 총독이 느헤미야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그가 팔레스틴을 떠난 BC. 433~432년으로 보다 간격을 좁혀서 보는 견해도 설득력을 갖고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고통의 생활속에서 하나님의 사랑(1:2)과 공의로운 통치(2:7) 및 말씀 순종(3:14)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1:2), 우리가 주를 멸시하였으며(1:6), 주를 더럽혔고(1:7), 주를 괴롭혔으며(2:17),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고(3:8), 주를 대적하였는데, 어떻게 주께 돌아갈 수 있는지(3:7) 밝혀

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와 도덕성을 강조한 반면 말라기서는 상대적으로 외적 제사와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모형

- 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3:1)
- ② 언약의 사자(3:1)
- ③ 그리스도의 사랑(1:2)
- ④ 참 제사장(2:5~6)

(4) 주제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의 약속"(1:11)을 주제로 참된 여호와 신앙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 국가와 제사장과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 모두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1:6,3:7). 말라기서는 23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3:10로 인하여 십일조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죄의 회개와 이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에 대한 구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내용

당시 유다에는 형식위주의 의식주의, 십일조와 재물에 대한 사기, 율법무시, 심령의 무감각과 간음이 성행하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현실화 하지 않자 유다 사회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적인 환경이 팽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다시 심판의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는 귀환 100년후의 유다생활상을 통하여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암흑기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선명한 언급과 함께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말라기는 현실적인 고난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 주려 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비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유효케하신 것만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신적 장정의 교리의 정당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 성전예배를 모독하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이방인과의 결혼과 이혼과 간음으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는 행위로 심판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도래 예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심판날이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분리를 말함으로서 다시한번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임박설을 주창하며 메시아 왕국의 현실도래를 강조하였습니다

(6) 개요

말라기서는 4장, 54절로 신약성경에 25회 인용되었으며, BC. 435~415년?의 기록입니다

I.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1:1~5)

① 하나님사랑의 선포(1:1~2)와 의심(1:2), ② 사랑의 확증(1:3~5)

II.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1:6~3:15)

① 배신(1:6~14)과 불신실성(2:1~9), ② 영적으로 혼잡한 결혼(2:10~12)과 이혼(2:13~16),

③ 불경건과 무례함(2:17), ④ 세례요한의 도래(3:1~6), ⑤ 도적질(3:7~12)과 교만(3:13~15)

III.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3:16~4:6)

① 불경건한 백성(3:16~18), ②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4:1~6)